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745-000025-10

ISSN 2799-8061

이 연구결과는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기관/(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23.11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김종안((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참여연구자 : 정지영((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한근진((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

조은지((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

김경미((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박유진((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곽동현((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제 출 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 종 안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방향 ····· 1
제2절 주요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년 4월 제출) ····· 3
제3절 연구 구성 ····· 6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 7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지원 정책 ····· 7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 10
1. 사회적기업의 분포 ····· 10
2. 사회적기업 지원금 ····· 14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 32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 32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2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 40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 47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 구조 ····· 70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 78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분석 ····· 84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 84
1. 매출액 ····· 84
2. 영업이익(손실) ····· 102
3. 당기순이익(손실) ····· 111
제2절 지출 : 비용구조 분석 ····· 125
1. 매출원가 ····· 125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 132

3. 영업외비용 ····· 137
4. 노무비 ····· 142
제3절 기타 성과지표 ····· 152
1. 노동생산성 ····· 152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 155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 172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 176
제1절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 176
1. 사회적기업 분포 ····· 176
2.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 178
3.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 180
4.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 182
5. 사회적기업 분포 종합진단 ····· 184
제2절 사회적 및 경제적성과 비교 ····· 186
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비교 ····· 186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 192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 193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 194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의 비교 ····· 195
6. 비용구조: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 196
제3절 기업규모별 경제적성과 비교 ····· 197
1.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 197
2. 기업규모별 경제적성과 비교 ····· 202

표 목차

<표 1-1>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의 수 ····· 3
<표 1-2>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 6
<표 2-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3년) ····· 8
<표 2-2>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 11
<표 2-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 13
<표 2-4>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 17
<표 2-5> 지역별 지원금 ····· 19
<표 2-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 21
<표 2-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 24
<표 2-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 25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 28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 31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 ····· 35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 36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8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9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 임금 ····· 41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 43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4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5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6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0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및 지역 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3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4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5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6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7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0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2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 65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66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69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 71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72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 74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 75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 80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 금액 ····· 82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 금액 추이 ····· 83
<표 4-1> 연도별 매출액 비중 ···· 88
<표 4-2> 연도별 공공매출액 비중 ···· 89
<표 4-3> 연도별 민간매출액 비중 ···· 90
<표 4-4> 지역별 매출액 ···· 93
<표 4-5>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비중 비교 ···· 105
<표 4-6>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 107
<표 4-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 112
<표 4-8>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15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19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23
<표 4-9> 연도별 매출원가 비중 비교 ···· 126
<표 4-10>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 129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 131
<표 4-12>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비중 ···· 133
<표 4-13>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 135
<표 4-14>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 136
<표 4-15>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 139

<표 4-1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 141
<표 4-17> 연도별 노무비 비중 비교 ····· 143
<표 4-18>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 145
<표 4-1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 146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48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51
<표 4-20>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 153
<표 4-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 154
<표 4-22>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 156
<표 4-23>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7
<표 4-24>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8
<표 4-25>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9
<표 4-26>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0
<표 4-27>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1
<표 4-28>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1
<표 4-29>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2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63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69
<표 5-1>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 173
<표 5-2> 사회적기업 수입구조 및 비용구조 요약 (2020~2022) ····· 175
<표 부1-1> 2022년 사회적기업 시도 분포 현황 ····· 177
<표 부1-2> 2022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 177
<표 부1-3>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 179
<표 부1-4> 2022년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 179
<표 부1-5>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 181
<표 부1-6>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 181
<표 부1-7>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 183
<표 부1-8>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 183
<표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당 임금 ····· 187
<표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 189
<표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 191

<표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 192
<표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 193
<표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 194
<표 부2-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교 ····· 195
<표 부2-8> 판매관리 및 영업외비용 비교 ····· 196
<표 부3-1> 2022년 기업분류 기준표 ····· 197
<표 부3-2> 3개년(2020~2022)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 199
<표 부3-3> 3개년(2020~2022)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 ····· 200
<표 부3-4> 2022년 시도 및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 201
<표 부3-5>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현황 조사 항목 (2021) ····· 203
<표 부3-6>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간 기업규모별 재무제표 비교(2021) ····· 206

그림 목차

[그림 1-1] 2022년 사업보고서(2023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 4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 10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 14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 15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 16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 17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 18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3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 34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 추이 ····· 37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 40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 42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 48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 48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49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1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2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9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1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3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 63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 70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 ····· 76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 인원 비율 ····· 77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 78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 79
[그림 4-1] 매출 총액 ····· 84

[그림 4-2]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5
[그림 4-3] 공공매출 총액 ····· 86
[그림 4-4]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6
[그림 4-5] 민간매출 총액 ····· 87
[그림 4-6]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7
[그림 4-7] 연도 및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8
[그림 4-8]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9
[그림 4-9]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90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1
[그림 4-11]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2
[그림 4-12]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2
[그림 4-13]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 95
[그림 4-14]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 96
[그림 4-15]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 97
[그림 4-16]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 98
[그림 4-17]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 99
[그림 4-18]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 99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 100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 101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 102
[그림 4-22]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 103
[그림 4-23]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04
[그림 4-24]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05
[그림 4-25]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06
[그림 4-26]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08
[그림 4-27]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09
[그림 4-28]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10
[그림 4-29]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 111
[그림 4-30]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12
[그림 4-3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13
[그림 4-3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14

[그림 4-3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 114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6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7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8
[그림 4-3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 125
[그림 4-38]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 126
[그림 4-39]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 127
[그림 4-40]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 128
[그림 4-41]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 132
[그림 4-42]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 133
[그림 4-43]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 134
[그림 4-44] 영업외비용 총액 ····· 137
[그림 4-45]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 138
[그림 4-46]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 138
[그림 4-47] 연도별 노무비 금액 ····· 142
[그림 4-48]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 143
[그림 4-49]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 144
[그림 4-50]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 152
[그림 4-51]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6
[그림 부1-1] 2022년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 ····· 177
[그림 부1-2] 2022년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 178
[그림 부1-3]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 180
[그림 부1-4] 2022년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 182
[그림 부1-5]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2022) ····· 185
[그림 부1-6]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 185
[그림 부1-7]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 185
[그림 부1-8]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 185
[그림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월 임금, 평균 주 근로시간 ····· 187
[그림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 188
[그림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주 근로시간 ····· 190
[그림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 192

[그림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 193
[그림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 194
[그림 부2-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교 ····· 195
[그림 부2-8]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비교 ····· 196
[그림 부3-1] 3개년(2020~2022)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 200
[그림 부3-2] 2021년 일반기업 중기업 및 사회적기업 중기업 비교 ····· 204
[그림 부3-3] 2021년 일반기업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소기업 비교 ····· 204
[그림 부3-4] 2021년 일반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비교 ····· 20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방향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지원되어왔다.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2021년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38,023명, 일반인 근로자 24,289명의 고용효과를 창출시켰으며, 사회적기업의 수가(2020년 2,777개, 2021년 3,215개, 2022년 3,534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성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하였으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③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
④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 · 간병 · 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 돌봄 · 간병 · 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

이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등의 성과 측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영공시자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본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현황 및 사회적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 정부 정책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일반기업과의 지원 체계를 유사하게 지원함에 따라 일반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법령으로도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 정책의 목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별도의 법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기업규모를 반영한 지원 정책보다는 포괄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거나, 주 기업규모인 소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기본계획에 맞춘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현황과 사회적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를 추가로 진행하여 사회적기업만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적성과 등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2절 주요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년 4월 제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분석이 진행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전년도 자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2023년 4월까지 제출이 완료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양식은 총 네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길현종 외, 2013, 2018), 본 연구에 활용된 사업보고서는 2017년 개편되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오프라인 양식은 [그림 1-1]과 같다.

지난 3개년 동안 사회적기업 수 대비 제출된 사업보고서는 2022년 사회적기업은 3,534개소로 사업보고서는 3,441개(97.4%)로 나타났으며, 3개년 동안 최소 95.3% 이상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의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미제출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반납,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

연도	사회적기업	제출기업	
	개소	개소	제출 비율
2020	2,777	2,738	98.6
2021	3,215	3,063	95.3
2022	3,534	3,441	97.4

[그림 1-1] 2022년 사업보고서(2023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변경[]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민법」에 따른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농(어)업회사법인[]영농(어)조합법인[]기타[]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등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그림 1-1]의 계속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 원	공공시장	천 원
			민간시장	천 원
	매출총이익	천 원	매출원가	천 원
	영업이익	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
	영업외수익	천 원	노무비	천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 원	영업외비용	천 원
	당기순이익	천 원	법인세 등	천 원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⑥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보건□사회복지□보육□환경□ 간병・가사 지원□산림□고용□청소□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⑩ 연계 현황	연계 기업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귀하

제3절 연구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황과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부록으로 <표 1-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 및 정책 현황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사회적성과 및 경제적성과는 기존 연구와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3개년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일반기업과 비교 도출하기 위해 [부록]으로 일반기업과의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일반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고유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1-2>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 연구 방향 · 주요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년 4월 제출) ·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분포,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분석	· 재정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지출(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 · 기타성과지표(노동생산성, 비취약계층 고용)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현황 ·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비교 · 기업 규모별 경제적 성과 비교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제2장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요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정리한 후, 인증사회적기업 일반 현황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후자인 인증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는 조직 특성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성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것이다.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지원 정책

사회적경제는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이후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대체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2021년 정부 평가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6년 20,459개에서 2020년 31,724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취약계층 취업자 수도 사회적기업 기준 2016년 23,858명, 2020년 33,2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성숙기 문턱에서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점으로는 매출의 높은 공공조달 의존도, 기부·자원봉사 등 시민 활동 연계기반 미흡, 글로벌 ESG 트렌드 대응 및 디지털·그린 전환 적응 역량 부족 등을 예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1].

이에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에서는 우수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 · 간병 · 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23.09)[2].

다음으로 <표 2-1>은 2023년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본 표에 의하면 2023년 총 17개 중앙부처에서 42개의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을 운영 중임이 확인된다.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처에서 각자 여러 종류의 사회적경제 조직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 관계부처 합동(2021.12.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 고용노동부(2023.09.01.).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23~'27) 발표"

<표 2-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3년)

중앙부처	사업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활성화
교육부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외교부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행정안전부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마을기업 육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기업 성장 지원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 관광벤처 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 농촌 교육·문화·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보건복지부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환경부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여가부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표 2-1>의 계속

중앙부처	사업
국토교통부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해양수산부	• 어촌뉴딜 300
중소기업벤처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 소셜벤처 육성 • 소셜임팩트 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예비창업패키지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산림청	•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 “2023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안내”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이하에서는 2022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해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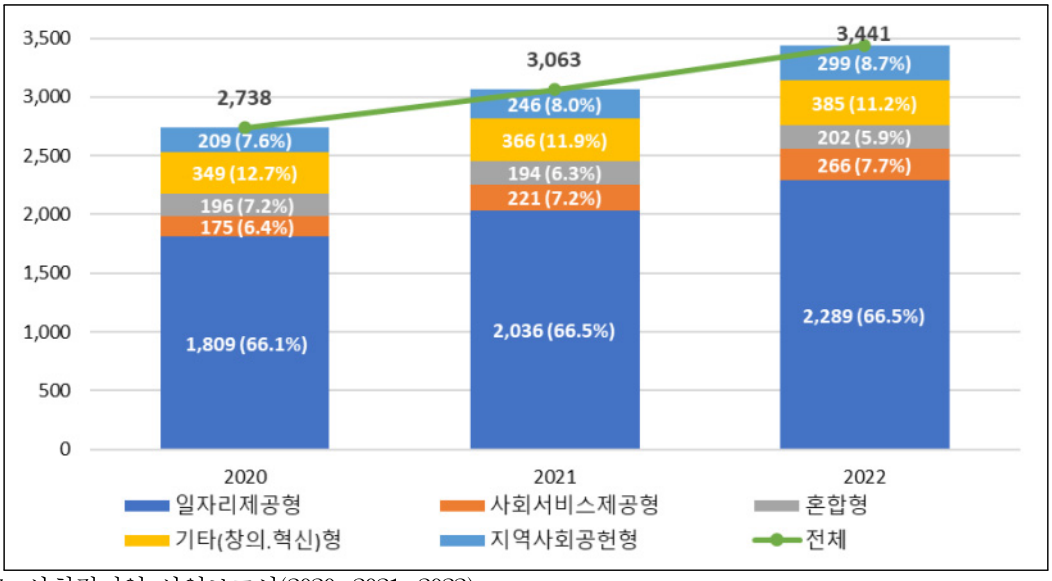
1. 사회적기업의 분포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3,441개소로 지난해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포함된 사회적기업보다 378개소 증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16.9%)과 경기(17.8%)로 전체 인증사회적기업의 약 34.7%에 해당된다. 반면 사회적기업이 가장 적게 소재한 지역은 4.0% 미만을 기준으로 세종(0.8%), 제주(2.4%), 대전(3.2%), 울산(3.3%), 대구(3.8%)이며, 이외 다른 지역은 4.0~6.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2-2>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서울	581	16.9
부산	159	4.6
대구	130	3.8
인천	199	5.8
광주	143	4.2
대전	110	3.2
울산	113	3.3
세종	26	0.8
경기	612	17.8
강원	196	5.7
충북	145	4.2
충남	139	4.0
전북	197	5.7
전남	191	5.6
경북	235	6.8
경남	182	5.3
제주	83	2.4
전체	3,441	100.0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 <표 2-3>은 이들 인증사회적기업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2022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2,582개소(75.0%)로 2007~2014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인 859개소(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인증사회적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 인증 반납 등으로 인한 인증연도별 기업 수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은 일자리제공형이 2,289개소(66.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 유형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66.5%)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11.2%)으로 전년대비 0.7%p 감소, 지역사회공헌형(8.7%)은 전년대비 0.7%p 증가, 사회서비스제공형(7.7%)은 0.5%p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결합된 혼합형(202개소, 5.9%)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72.4%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인증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 제공형의 비중은 66%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 인증사회적기업은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혼합형 및 기타형 인증사회적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는 상법상회사가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2,304개소(67.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법상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상법상회사의 설립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 요건이나 인적 구성이 요구되는데,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은 민법상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요건이 다소 낮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 초기에 상법상회사가 많았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선화 외, 2010). 한편, 2018부터 2022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설립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구분		2020	2021	2022
인증연도	2007	35	33	33
	2008	101	94	97
	2009	52	45	46
	2010	132	123	124
	2011	103	92	91
	2012	112	105	105
	2013	197	186	176
	2014	201	189	187
	2015	230	218	208
	2016	230	217	209
	2017	236	222	218
	2018	294	274	276
	2019	388	360	354
	2020	427	415	407
	2021	-	490	487
	2022	-	-	42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809	2,036	2,289
	사회서비스제공형	175	221	266
	혼합형	196	194	202
	기타(창의・혁신)형	349	366	385
	지역사회공헌형	209	246	29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80	343	304
	비영리민간단체	71	74	61
	사회복지법인	76	72	74
	상법상회사	1,808	1,993	2,3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11	11
	영농조합법인	99	100	11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94	466	569
	기타	-	4	-
전체		2,738	3,063	3,441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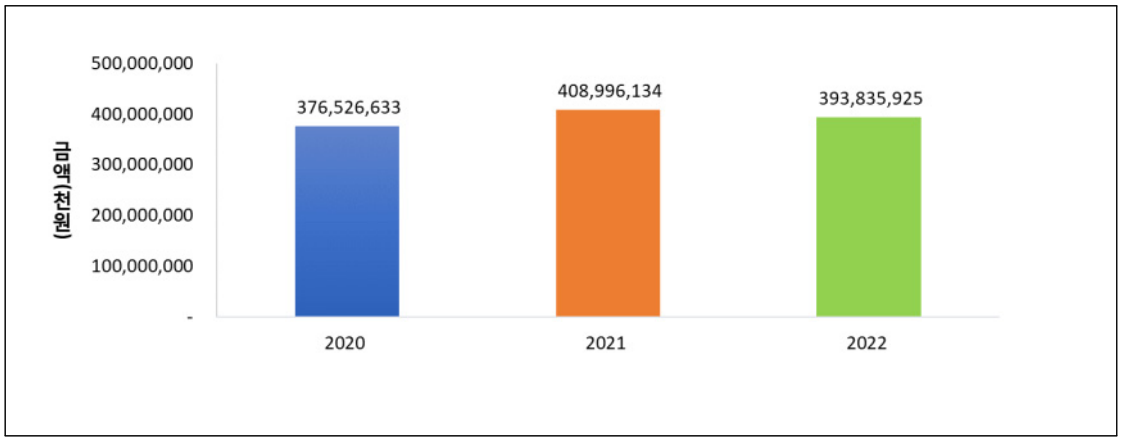
2. 사회적기업 지원금

이어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본 성과분석에서는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일반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순수한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금융지원은 제외한다. 정부지원에는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전문인력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은 제외하였다. 민간지원에는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영업외수익 금액이 포함되며 민간금융지원은 제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지원금 총액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2022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은 2021년 대비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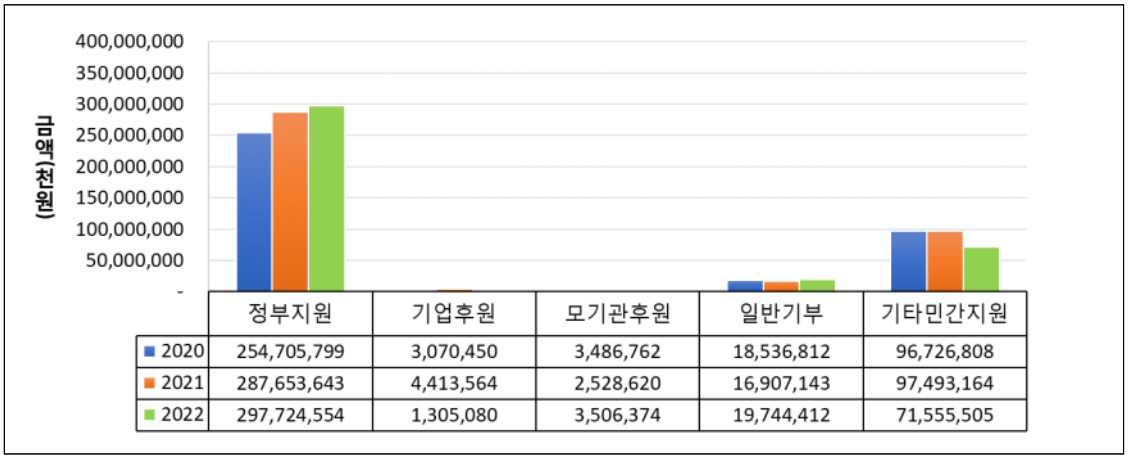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1년은 전년 대비 약 12.9% 증가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기타 민간지원의 경우 2021년은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26.6% 정도 감소했다. 기업후원의 경우 2021년은 전년 대비 약 43.7% 정도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70.4% 정도 감소했다. 모기관후원의 경우 2021년은 전년 대비 약 27.5% 정도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38.7% 정도 증가했다. 그 외 일반기부는 2021년은 전년 대비 8.8% 정도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보다 약 16.8% 정도 증가했다.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 천 원)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후원	일반기부	기타민간지원
2020	254,705,799	3,070,450	3,486,762	18,536,812	96,726,808
2021	287,653,643	4,413,564	2,528,620	16,907,143	97,493,164
2022	297,724,554	1,305,080	3,506,374	19,744,412	71,555,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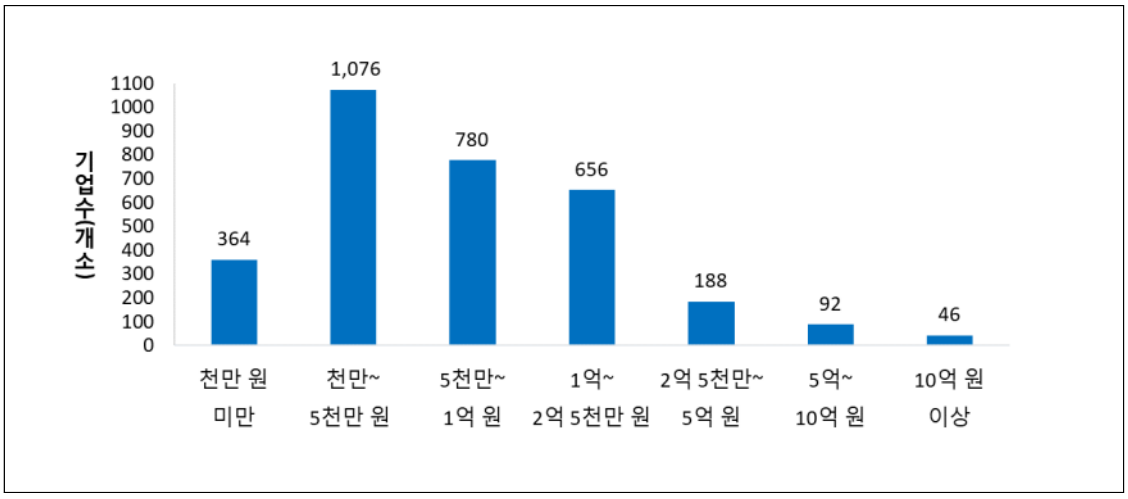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2022년 정부지원 2,755개소, 기업후원 39개소, 모기관지원 40개소, 일반기부 327개소, 기타민간지원 2,523개, 총지원금 3,202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그림 2-4]는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금액 및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다. 사회적기업 중 2022년에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사회적기업 3,441개소의 중 3,202개소(93.1%)로 나타났다. 지원금 액수는 1천만 원~5천만 원이 1,076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뒤로, 5천만 원~1억 원이 780개소, 1억 원~2억 5천만 원이 656개소, 천만 원 미만이 364개소, 2억 5천만 원~5억 원이 188개소, 5억 원~10억 원이 92개소, 10억 원 이상이 46개소 순이었다.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총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총 지원금 내역이 있는 3,202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으로, 지원금을 총지원금과 개별항목(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으로 구분한 뒤,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및 중위값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총지원금을 먼저 살펴보면, 2022년 총지원금 평균은 약 1억 2천 2백만 원, 중위값은 약 5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및 2021년 총지원금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평균 약 1억 6천만 원과 1억 원, 중위값 약 7천 8백만 원과 9백만 원으로 2022년에는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 정부지원금의 평균 약 1억 8백만 원, 중위값은 약 5천 4백만 원으로 다른 지원금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업후원, 기타 민간지원의 순으로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관지원금은 평균 약 8천 7백만 원, 중위값 약 4천 2백만 원, 일반기부금은 평균 약 6천만 원, 중위값 약 1천만 원, 기업후원금은 평균 약 3천 3백만 원, 중위값은 약 5백만 원, 기타 민간지원금은 평균 약 2천 8백만 원, 중위값 약 6백만 원이었다. 모기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4>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단위 : 천 원)

구분	2020		2021		2022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정부지원	127,162	68,875	131,049	62,486	108,067	54,420
기업후원	73,105	25,464	90,073	11,690	33,464	5,000
모기관지원	61,171	24,060	40,137	9,284	87,659	42,707
일반기부	72,979	12,424	62,388	10,128	60,380	10,460
기타 민간지원	35,851	5,795	32,123	6,409	28,361	6,136
총지원금	139,196	65,190	133,965	58,282	122,997	57,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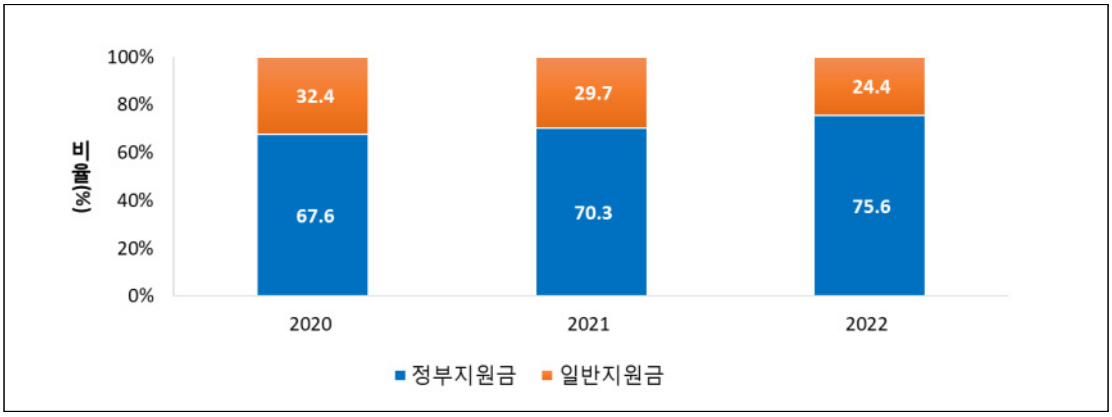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2년 정부지원 2,755개소, 기업후원 39개소, 모기관지원 40개소, 일반기부 327개소, 기타민간지원 2,523개, 총지원금 3,202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5]와 같다. 2022년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은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67.6%, 2021년 70.3%에 이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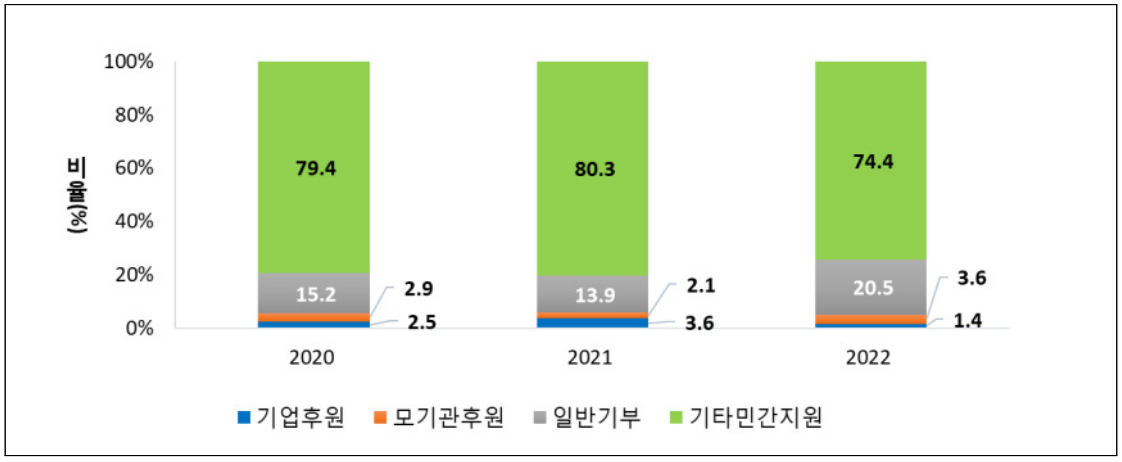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한편, [그림 2-6]에는 정부지원금 이외의 일반지원금의 비율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에서 기타민간지원금은 2021년 80.3%에서 2022년 74.4%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기부는 2021년 13.9%에서 2022년 20.5%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업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5%, 2021년 3.6%, 2022년 1.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단위 : %)



주1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주2 : 민간지원금에서 민간금융지원은 제외함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의 평균 및 중위값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먼저 지원금 총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 수가 25개소로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가 약 2억 1천 1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대전 약 2억 8백만 원, 전북 약 1억 7천 6백만 원, 경북 약 1억 3천 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제주 약 1억 8천 9백만 원, 전북 약 1억 4천 8백만 원, 대전 약 1억 4천 6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후원금은 충북 약 1억 1천 8백만 원, 서울 약 3천 9백만 원, 경기 약 3천 7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기관지원금의 경우 약 제주 1억 9천 7백만 원, 광주 약 1억 7천 9백만 원, 강원 약 1억 7천 3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대전 약 1억 6천만 원, 서울 약 9천 9백만 원, 경기 약 7천만 원, 충북 약 4천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민간지원금의 경우 전북 약 6천 1백만 원, 서울 약 4천 8백만 원, 대전 4천 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 지역별 지원금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서울	평균	102,266	39,456	101,943	99,456	48,259	135,754
	기업 수	411	16	11	84	298	490
	중위값	38,880	5,000	51,300	10,844	9,672	44,000
부산	평균	97,497	5,000	23,159	12,129	13,579	101,417
	기업 수	130	1	4	13	71	137
	중위값	62,682	5,000	30,000	5,063	6,600	61,139
대구	평균	116,070	5,956	-	17,950	8,318	121,288
	기업 수	125	2	-	12	124	130
	중위값	65,097	5,956	-	6,321	3,108	69,878
인천	평균	92,548	-	10,000	12,393	15,617	92,434
	기업 수	166	-	2	13	147	193
	중위값	49,174	-	10,000	4,285	3,352	45,254
광주	평균	114,188	5,000	179,257	39,175	15,369	121,865
	기업 수	118	1	3	7	93	129
	중위값	47,465	5,000	100,751	16,746	9,186	54,668
대전	평균	146,910	-	-	160,159	41,961	208,661
	기업 수	97	-	-	25	107	109
	중위값	89,308	-	-	15,857	3,233	93,432
울산	평균	100,965	5,000	10,000	12,979	12,318	102,798
	기업 수	100	1	1	15	98	112
	중위값	62,406	5,000	10,000	8,075	6,407	61,946
세종	평균	87,355	-	-	59,565	4,078	87,416
	기업 수	23	-	-	2	14	25
	중위값	49,040	-	-	59,565	1,485	49,040
경기	평균	93,246	37,577	81,680	70,474	32,783	105,431
	기업 수	434	9	4	52	502	581
	중위값	47,899	5,522	54,860	12,682	6,509	45,256

<표 2-5>의 계속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강원	평균	93,067	18,774	173,000	16,592	18,491	100,043
	기업 수	164	2	1	18	175	190
	중위값	52,389	18,774	173,000	7,670	4,838	58,339
충북	평균	91,957	118,823	57,680	40,344	30,175	112,594
	기업 수	119	2	2	12	132	140
	중위값	54,420	118,823	57,680	19,290	5,120	57,294
충남	평균	111,067	5,882	115,651	22,950	16,806	108,656
	기업 수	108	1	2	11	117	133
	중위값	66,990	5,882	115,651	18,866	10,197	61,194
전북	평균	148,203	5,000	51,991	22,007	61,916	176,127
	기업 수	155	1	3	7	153	186
	중위값	63,147	5,000	48,394	12,000	10,259	67,297
전남	평균	78,713	5,000	80,000	21,098	6,804	79,236
	기업 수	149	1	1	9	6	152
	중위값	50,294	5,000	80,000	5,290	3,207	50,215
경북	평균	117,987	9,767	75,744	25,379	26,623	138,682
	기업 수	218	1	3	19	231	235
	중위값	78,939	9,767	9,242	6,847	7,889	90,314
경남	평균	122,143	7,844	20,000	19,082	13,489	126,007
	기업 수	162	1	1	14	174	178
	중위값	50,200	7,844	20,000	12,699	3,563	51,836
제주	평균	189,982	-	197,500	33,627	25,261	211,592
	기업 수	76	-	2	14	81	82
	중위값	90,943	-	197,500	5,720	9,221	102,258
전체	평균	108,067	33,464	87,659	60,380	28,361	122,997
	기업 수	2,755	39	40	327	2,523	3,202
	중위값	54,420	5,000	42,707	10,460	6,136	57,37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으로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다음 <표 2-6>과 같다. 먼저, 인증연도를 확인해보면 지원금 총액에 있어서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 금액이 약 3억 9천 6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17년 인증기업의 평균 금액이 약 6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 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금을 받는 기업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의 지원금 총액이 약 1억 3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약 1억 2천 4백만 원, 혼합형이 약 1억 2천 2백만 원, 지역사회공헌형이 약 1억 1천 4백만 원, 기타(창의·혁신)형이 9천만 원 순이었다. 인증유형별로 세부 지원금 평균 금액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부지원금과 기타 민간지원금은 일자리제공형이, 기업후원금과 일반기부금은 혼합형이, 모기관지원금은 사회서비스제공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지원금 총액 평균은 약 6억 2천 3백만 원, 중위값이 6억 3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후원금 및 일반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항목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단위 : 천 원, 개소)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연도	2007	평균	398,465	-	33,996	17,815	132,180	396,107
		중위값	36,516	-	33,996	10,986	11,513	46,772
		기업 수	21	-	2	8	28	31
	2008	평균	247,841	68,799	118,548	42,756	62,579	262,643
		중위값	57,527	18,774	81,000	26,039	10,097	65,309
		기업 수	69	4	8	18	81	92
	2009	평균	179,779	202,500	291,776	23,647	29,885	189,932
		중위값	39,649	202,500	291,776	7,120	7,246	49,577
		기업 수	32	2	2	11	39	43
	2010	평균	137,530	20,490	53,596	19,418	30,082	132,461
		중위값	37,342	20,490	48,394	5,290	5,016	37,673
		기업 수	83	2	9	25	111	119
	2011	평균	163,235	25,925	119,720	19,602	58,295	195,719
		중위값	27,919	25,925	51,300	10,117	9,839	50,992
		기업 수	69	1	7	21	77	87
	2012	평균	200,681	5,000	53,511	11,719	23,238	163,561
		중위값	47,590	5,000	30,000	6,655	7,867	33,672
		기업 수	63	2	5	27	92	94

<표 2-6>의 계속1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13	평균	112,722	5,000	19,697	32,783	28,811	105,831
		중위값	37,100	5,000	20,000	12,298	6,563	29,028
		기업 수	108	2	5	20	146	162
	2014	평균	129,649	45,193	110,000	23,143	39,990	127,638
		중위값	41,251	13,500	110,000	17,120	6,748	33,545
		기업 수	106	3	2	11	139	156
	2015	평균	100,749	35,679	-	18,919	40,724	107,666
		중위값	25,400	5,000	-	15,857	7,046	31,114
		기업 수	125	5	-	13	143	175
	2016	평균	94,163	16,154	-	201,768	47,550	138,731
		중위값	32,929	8,805	-	13,985	7,668	34,915
		기업 수	146	4	-	22	153	184
	2017	평균	56,569	14,873	-	26,400	21,745	65,256
		중위값	31,600	5,000	-	17,140	7,553	33,914
		기업 수	161	5	-	9	140	191
	2018	평균	80,663	17,705	-	136,110	21,075	98,267
		중위값	42,988	15,038	-	18,492	6,783	53,089
		기업 수	236	3	-	15	177	253
	2019	평균	108,472	5,000	-	38,237	28,549	129,079
		중위값	73,388	5,000	-	6,003	8,873	82,189
		기업 수	315	1	-	28	253	329
	2020	평균	97,982	5,478	-	21,946	19,351	108,810
		중위값	64,000	5,000	-	11,790	4,388	70,930
		기업 수	379	4	-	31	277	397
	2021	평균	107,049	-	-	187,595	15,662	126,490
		중위값	73,183	-	-	7,259	4,753	79,566
		기업 수	452	-	-	36	356	480
	2022	평균	79,717	5,000	-	30,623	12,402	87,852
		중위값	57,567	5,000	-	8,393	3,250	62,902
		기업 수	390	1	-	32	311	409
인증 유형	일자리 제공형	평균	110,733	37,514	89,442	52,273	30,313	124,567
		중위값	56,636	5,882	42,707	8,514	6,239	57,771
		기업 수	1,813	21	38	174	1,696	2,131
	사회 서비스 제공형	평균	94,895	82,347	-	129,012	16,093	122,789
		중위값	47,905	11,576	-	12,190	5,579	57,853
		기업 수	230	5	-	41	197	250
	혼합형	평균	92,584	5,000	53,790	34,691	14,935	90,315
		중위값	41,442	5,000	53,790	12,152	4,125	42,590
		기업 수	148	3	2	32	155	191
	기타 (창의·혁신)형	평균	115,956	10,005	-	45,567	46,195	138,676
		중위값	55,910	5,000	-	18,521	7,414	60,895
		기업 수	297	8	-	41	257	348

<표 2-6>의 계속2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유형	지역사회공헌형	평균	101,120	5,261	-	61,053	12,783	114,104
		중위값	53,029	5,261	-	10,445	5,467	59,920
		기업 수	267	2	-	39	218	28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평균	214,654	15,038	65,828	120,534	35,223	254,297
		중위값	75,663	15,038	24,244	10,117	7,432	80,369
		기업 수	234	1	3	99	229	277
	비영리 민간단체	평균	135,499	-	45,354	29,287	35,336	140,250
		중위값	40,945	-	34,708	13,701	1,388	38,617
		기업 수	41	-	4	12	46	55
	사회복지 법인	평균	645,193	-	97,559	23,309	57,243	623,861
		중위값	623,102	-	50,557	10,829	12,010	638,671
		기업 수	59	-	32	49	67	74
	상법상 회사	평균	78,658	19,948	5,600	8,974	27,183	88,825
		중위값	48,334	5,000	5,600	3,066	6,610	51,293
		기업 수	1,826	30	1	34	1,656	2,134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평균	146,127	32,548	-	8,325	22,490	146,521
		중위값	105,491	32,548	-	8,325	7,876	130,977
		기업 수	9	1	-	2	11	11
	영농조합 법인	평균	79,750	-	-	4,000	13,649	80,919
		중위값	65,273	-	-	4,000	6,056	63,978
		기업 수	96	-	-	1	85	109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평균	104,640	94,150	-	46,094	27,055	128,288
		중위값	61,197	5,522	-	12,682	4,623	67,245
		기업 수	490	7	-	130	429	542
전체		평균	108,067	33,464	87,659	60,380	28,361	122,997
		중위값	54,420	5,000	42,707	10,460	6,136	57,370
		기업 수	2,755	39	40	327	2,523	3,202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한편, <표 2-7>은 전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세부 항목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확인한 결과이다. 비중이 높은 정부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증연도의 경우 오래된 인증기업에 비해 최근 인증기업의 정부지원금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후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증기간이 오래된 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도 대체로 정부지원이 6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단위 : %)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계
인증연도	2007	68.1	-	0.6	1.2	30.1	100.0
	2008	70.8	1.1	3.9	3.2	21.0	100.0
	2009	70.4	5.0	7.1	3.2	14.3	100.0
	2010	72.4	0.3	3.1	3.1	21.2	100.0
	2011	66.1	0.2	4.9	2.4	26.4	100.0
	2012	82.2	0.1	1.7	2.1	13.9	100.0
	2013	71.0	0.1	0.6	3.8	24.5	100.0
	2014	69.0	0.7	1.1	1.3	27.9	100.0
	2015	66.8	0.9	-	1.3	30.9	100.0
	2016	53.9	0.3	-	17.4	28.5	100.0
	2017	73.1	0.6	-	1.9	24.4	100.0
	2018	76.6	0.2	-	8.2	15.0	100.0
	2019	80.5	0.0	-	2.5	17.0	100.0
	2020	86.0	0.1	-	1.6	12.4	100.0
	2021	79.7	-	-	11.1	9.2	100.0
	2022	86.5	0.0	-	2.7	10.7	100.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75.6	0.3	1.3	3.4	19.4	100.0
	사회서비스제공형	71.1	1.3	-	17.2	10.3	100.0
	혼합형	79.4	0.1	0.6	6.4	13.4	100.0
	기타(창의・혁신)형	71.4	0.2	-	3.9	24.6	100.0
	지역사회공헌형	83.9	0.0	-	7.4	8.7	100.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71.3	0.0	0.3	16.9	11.5	100.0
	비영리민간단체	72.0	-	2.4	4.6	21.1	100.0
	사회복지법인	82.5	-	6.8	2.5	8.3	100.0
	상법상회사	75.8	0.3	0.0	0.2	23.7	1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1.6	2.0	-	1.0	15.3	100.0
	영농조합법인	86.8	-	-	0.0	13.2	1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3.7	0.9	-	8.6	16.7	100.0
전체		75.6	0.3	0.9	5.0	18.2	100.0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2-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단위 : 천 원)

구분		2020					2021					2022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인증 연도	2007	218,849	195,305	67,572	27,058	95,374	255,298	231,483	467,572	17,301	108,415	396,107	398,465	-	33,996	17,815
	2008	251,523	242,314	65,923	95,579	78,564	240,591	265,214	31,801	86,657	96,226	262,643	247,841	68,799	118,548	42,756
	2009	169,383	192,521	197,798	178,224	84,337	148,895	159,098	211,073	-	62,827	189,932	179,779	202,500	291,776	23,647
	2010	137,068	131,945	48,225	41,196	37,923	139,917	140,714	276,418	36,218	21,066	132,461	137,530	20,490	53,596	19,418
	2011	191,715	201,939	-	68,911	36,272	176,308	182,268	51,415	48,055	38,544	195,719	163,235	25,925	119,720	19,602
	2012	136,746	150,315	13,882	16,000	11,898	136,491	155,483	288,978	-	10,652	163,561	200,681	5,000	53,511	11,719
	2013	123,108	121,975	35,335	49,734	27,146	124,460	113,577	27,515	21,077	33,873	105,831	112,722	5,000	19,697	32,783
	2014	115,657	108,246	121,563	109,847	22,489	136,283	133,151	112,038	175,036	31,121	127,638	129,649	45,193	110,000	23,143
	2015	94,716	88,047	136,321	1,465	48,570	66,509	62,601	93,523	4,862	24,392	107,666	100,749	35,679	-	18,919
	2016	226,573	125,908	47,887	2,085	44,850	219,352	212,602	32,419	22,634	53,625	138,731	94,163	16,154	-	201,768
	2017	139,684	134,894	15,090	4	156,722	105,872	81,087	58,924	564	164,448	65,256	56,569	14,873	-	26,400
	2018	146,165	138,153	168,051	1	135,118	154,826	134,542	41,056	1,996	173,673	98,267	80,663	17,705	-	136,110
	2019	124,054	111,593	26,838	76	260,968	130,228	120,234	-	2,380	127,556	129,079	108,472	5,000	-	38,237
	2020	96,375	103,560	20,059	2,169	24,166	94,576	97,601	20,694	7,275	57,106	108,810	97,982	5,478	-	21,946
	2021	-	-	-	-	-	126,805	138,427	34,264	3,803	22,689	126,490	107,049		-	187,595
	2022	-	-	-	-	-	-	-	-	-	-	87,852	79,717	5,000	-	30,623

<표 2-8>의 계속

구분		2020					2021					2022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47,380	131,902	74,704	68,681	78,714	126,939	122,455	85,500	47,635	58,162	124,567	110,733	37,514	89,442	52,273
	사회서비스제공형	110,078	95,751	213,670	4,089	42,113	153,919	169,477	234,074	7,862	48,945	122,789	94,895	82,347	-	129,012
	혼합형	121,435	138,834	43,663	29,280	24,741	198,008	250,216	218,698	45,775	26,759	90,315	92,584	5,000	53,790	34,691
	창의・혁신형(기타)	116,635	109,468	32,048	1	61,601	137,012	120,604	47,695	2,365	77,541	138,676	115,956	10,005	-	45,567
	지역사회공헌형	147,039	131,773	93,264	77	145,944	119,608	101,446	18,404	1,131	117,016	114,104	101,120	5,261	-	61,05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78,117	166,949	75,738	43,074	53,359	165,405	159,487	188,174	41,765	62,077	254,297	214,654	15,038	65,828	120,534
	비영리민간단체	97,464	102,899	22,765	36,441	20,656	94,960	103,064	-	6,300	19,032	140,250	135,499	-	45,354	29,287
	사회복지법인	615,382	572,314	4,870	99,535	60,665	560,275	591,673	-	79,377	57,040	623,861	645,193	-	97,559	23,309
	상법상회사	108,170	98,165	61,787	11,546	22,753	103,758	101,419	61,943	4,723	14,337	88,825	78,658	19,948	5,600	8,97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4,334	79,812	52,454	-	18,619	135,811	116,841	20,638	-	9,542	146,521	146,127	32,548	-	8,325
	영농조합법인	138,166	148,045	-	-	2,000	116,418	92,021	-	-	19,669	80,919	79,750	-	-	4,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1,151	138,951	163,966	3,182	134,304	185,724	173,067	156,553	12,163	87,324	128,288	104,640	94,150	-	46,094
	기타	-	-	-	-	-	51,915	64,010	-	-	-	-	-	-	-	-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마지막으로 2020~2022년 총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 평균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비교해 보면 위 <표 2-8>과 같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볼 때, 전체 평균 지원금의 크기는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이 과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금 평균 크기도 마찬가지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 '평균 지원금(전체)'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2022년 기준 약 1억 2천 4백만 원, 사회복지법인이 약 6억 2천 3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유형별로는 기타(창의·혁신)형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역사회공헌형은 꾸준히 감소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은 2021년에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조직형태별로는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21년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상법상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다음의 <표 부가분석 2-1>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2020~2022년 전체 지원금,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 지원금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부가분석 2-2>에서는 전체 지원금을 지역과 표준산업분류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원금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0, 2021, 2022)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 천 원, %)

	항목		2020	2021	2022
전체지원금	전체총액		376,526,633	408,996,134	393,835,925
	인증연도	2007	7,440,881	8,169,533	12,279,321
		2008	24,900,849	22,134,370	24,163,138
		2009	8,638,580	6,700,254	8,167,085
		2010	18,093,022	17,069,907	15,762,912
		2011	19,363,283	16,220,363	17,027,539
		2012	14,905,314	14,195,052	15,374,726
		2013	24,006,184	23,149,483	17,144,606
		2014	23,015,866	25,757,411	19,911,470
		2015	21,311,121	14,432,519	18,841,582
		2016	50,752,431	47,379,995	25,526,461
		2017	32,546,471	23,503,486	12,463,978
		2018	42,680,226	42,112,616	24,861,473
		2019	48,009,036	46,882,178	42,467,080
		2020	40,863,363	39,154,390	43,197,502
		2021	-	62,134,578	60,715,416
		2022	-	-	35,931,63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63,222,423	257,939,510	265,451,858
		사회서비스제공형	19,043,612	33,708,355	30,697,290
		혼합형	23,437,041	38,017,499	17,250,124
		기타(창의・혁신)형	40,239,293	50,146,453	48,259,402
		지역사회공헌형	30,584,261	29,184,317	32,177,25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48,804,231	56,403,180	70,440,365
		비영리민간단체	6,822,544	6,932,108	7,713,757
		사회복지법인	46,153,681	39,779,523	46,165,725
		상법상회사	193,517,373	206,478,258	189,552,3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43,344	1,493,923	1,611,729
		영농조합법인	13,678,492	11,525,403	8,820,18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6,406,964	86,176,080	69,531,861
		기타	-	207,658	-
정부지원금	전체총액		254,705,799	287,653,643	297,724,554
	인증연도	2007	3,906,118	4,398,182	8,367,775
		2008	15,508,145	14,851,973	17,101,009

	항목		2020	2021	2022
정부지원금	인증연도	2009	5,583,137	4,454,744	5,752,916
		2010	12,007,077	12,101,432	11,415,009
		2011	13,126,062	11,300,632	11,263,193
		2012	10,973,022	11,194,787	12,642,886
		2013	17,198,581	15,446,501	12,173,997
		2014	15,479,279	17,575,921	13,742,753
		2015	14,791,983	9,077,163	12,593,658
		2016	23,922,584	35,291,998	13,747,832
		2017	26,709,208	14,757,874	9,107,646
		2018	32,604,275	30,541,105	19,036,467
		2019	32,138,785	32,583,504	34,168,560
		2020	30,757,536	25,766,790	37,135,056
		2021	-	48,311,038	48,386,259
		2022	-	-	31,089,53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72,660,384	175,110,615	200,758,388
		사회서비스제공형	12,256,183	26,269,004	21,825,796
		혼합형	18,881,505	31,777,392	13,702,480
		기타(창의・혁신)형	28,242,750	34,613,281	34,438,976
		지역사회공헌형	22,664,974	19,883,350	26,998,91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3,723,706	38,276,934	50,228,974
		비영리민간단체	5,453,688	5,565,464	5,555,463
		사회복지법인	32,621,930	30,767,020	38,066,395
		상법상회사	125,750,152	141,581,558	143,628,77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18,312	1,051,566	1,315,142
		영농조합법인	11,695,586	7,177,624	7,655,97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4,742,421	63,169,467	51,273,824
		기타	-	64,010	-
민간지원금	전체총액		121,820,833	121,342,491	96,111,372
	인증연도	2007	3,534,762	3,771,351	3,911,546
		2008	9,392,704	7,282,396	7,062,130
		2009	3,055,443	2,245,510	2,414,169
		2010	6,085,944	4,968,475	4,347,904
		2011	6,237,221	4,919,731	5,764,346
		2012	3,932,291	3,000,265	2,731,841
		2013	6,807,602	7,702,982	4,970,610
		2014	7,536,586	8,181,491	6,168,717
		2015	6,519,138	5,355,356	6,247,924
		2016	26,829,847	12,087,997	11,778,629
		2017	5,837,263	8,745,612	3,356,332
		2018	10,075,950	11,571,511	5,825,005
		2019	15,870,250	14,298,675	8,298,520
		2020	10,105,827	13,387,600	6,062,446
		2021	-	13,823,540	12,329,157
		2022	-	-	4,842,09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90,562,039	82,828,894	64,693,469
		사회서비스제공형	6,787,428	7,439,351	8,871,494
		혼합형	4,555,536	6,240,107	3,547,644

	항목		2019	2020	2021
민간지원금	인증유형	기타(창의・혁신)형	11,996,543	15,533,172	13,820,426
		지역사회공헌형	7,919,286	9,300,967	5,178,33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5,080,524	18,126,246	20,211,391
		비영리민간단체	1,368,856	1,366,644	2,158,294
		사회복지법인	13,531,750	9,012,503	8,099,330
		상법상회사	67,767,221	64,896,700	45,923,5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25,031	442,358	296,587
		영농조합법인	1,982,906	4,347,780	1,164,20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1,664,542	23,006,613	18,258,037
		기타	-	143,648	-
지원금 비율	전체비율		0.16	0.15	0.15
	인증연도	2007	0.10	0.10	0.10
		2008	0.16	0.15	0.15
		2009	0.14	0.14	0.14
		2010	0.16	0.15	0.15
		2011	0.15	0.17	0.14
		2012	0.12	0.11	0.12
		2013	0.14	0.13	0.11
		2014	0.13	0.12	0.10
		2015	0.13	0.10	0.09
		2016	0.14	0.13	0.09
		2017	0.18	0.13	0.19
		2018	0.17	0.16	0.11
		2019	0.19	0.18	0.16
		2020	0.19	0.14	0.15
		2021	-	0.20	0.18
		2022	-	-	0.1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0.14	0.12	0.12
		사회서비스제공형	0.23	0.2	0.19
		혼합형	0.18	0.19	0.26
		기타(창의・혁신)형	0.22	0.21	0.18
		지역사회공헌형	0.22	0.20	0.1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0.18	0.17	0.16
		비영리민간단체	0.29	0.25	0.28
		사회복지법인	0.32	0.27	0.30
		상법상회사	0.13	0.13	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11	0.07	0.07
		영농조합법인	0.17	0.14	0.1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0.22	0.20	0.19
		기타	-	0.07	-

주 : 지원금 비율=전체지원금총액/(전체지원금총액+매출액총액).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 지역별,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2)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 천 원, %)

전체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6,519,542	13,894,102	15,767,462	17,839,748	15,720,573	22,744,084	11,513,386	2,185,389	61,255,565	19,008,162	15,763,190	14,451,222	32,759,696	12,043,875	32,590,228	22,429,195	17,350,505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8,332,170	47,813,739	8,680,333	46,113,821	38,321,420	24,679,716	12,377,299	32,312,391	533,480	9,305,144	133,027,893	12,594,796	10,273,927	-	1,200,607	1,300,758	6,968,431
정부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031,447	12,674,653	14,508,750	15,362,887	13,474,212	14,250,292	10,096,527	2,009,168	40,468,784	15,263,032	10,942,935	11,995,260	22,971,459	11,728,166	25,721,204	19,787,160	14,438,617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임업 및 어업(A)	도매및 소매업(G)	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및 음식점업(I)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J)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및 보험업(K)	부동산업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263,956	35,497,587	7,157,827	28,445,736	28,382,179	18,918,108	9,754,741	25,788,281	449,787	6,728,880	105,829,932	10,134,435	9,514,915	-	1,111,631	1,191,400	2,555,189
민간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488,094	1,219,449	1,258,713	2,476,861	2,246,361	8,493,791	1,416,859	176,222	20,786,781	3,745,130	4,820,255	2,455,963	9,788,237	315,708	6,869,024	2,642,035	2,911,888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임업 및 어업(A)	도매및 소매업(G)	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및 음식점업(I)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J)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및 보험업(K)	부동산업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2,068,214	12,316,151	1,522,506	17,668,084	9,999,241	5,761,608	2,622,558	6,524,111	83,694	2,576,264	27,197,992	2,460,361	759,012	-	88,976	109,357	4,413,243
비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3	0.18	0.19	0.12	0.15	0.23	0.16	0.11	0.10	0.17	0.16	0.13	0.16	0.13	0.26	0.16	0.21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임업 및 어업(A)	도매및 소매업(G)	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및 음식점업(I)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J)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및 보험업(K)	부동산업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0.06	0.21	0.17	0.11	0.12	0.09	0.20	0.25	0.14	0.11	0.15	0.16	0.24	-	0.20	0.12	0.0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제3장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사회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편익)창출의 성과는 경제적성과 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를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기업은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2010년부터는 목적 유형별로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자[3], ② 고령자, ③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가정폭력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⑨ 결혼이민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범죄구조피해자, ⑫ 그 밖의 취약계층 등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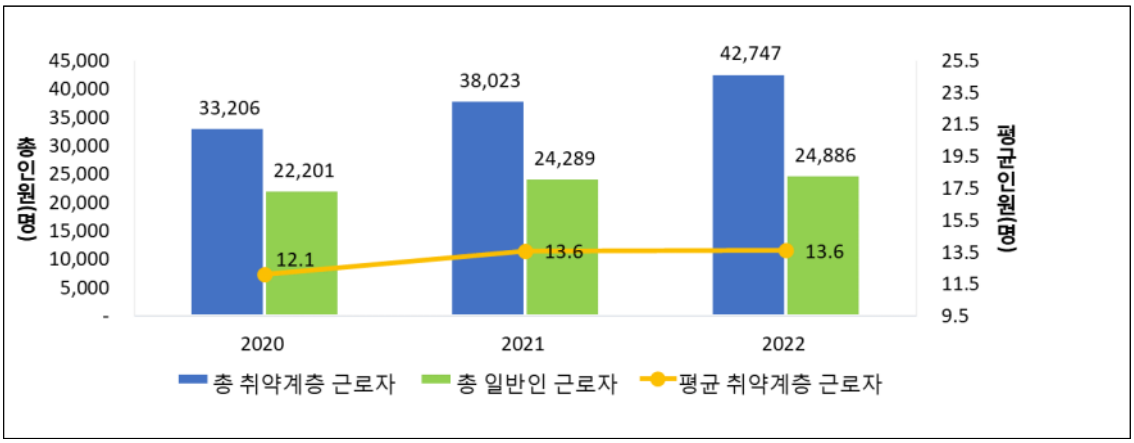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0~2022년 취약계층 근로자 및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42,747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 수 67,633명의 63.2%를 차지하

3)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총 취약계층 근로자는 2021년 38,023명 대비 4,724명(약 12.4%) 증가하였고, 총 일반근로자는 24,886명으로 2021년 대비 597명(약 2.5%)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3.6명으로 2021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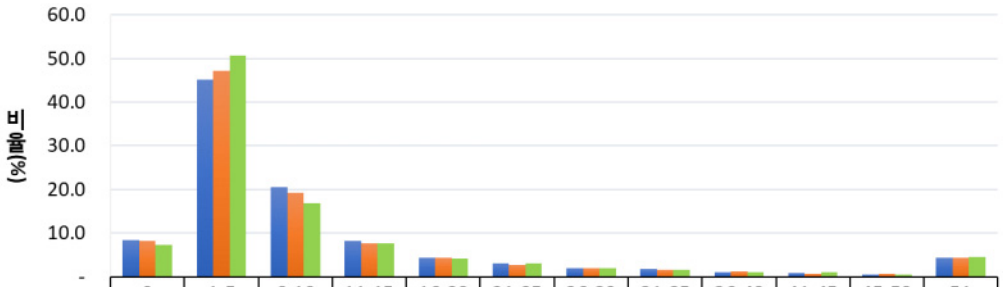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규모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 근로자 10인 이하 채용 기업의 비중이 약 75%에 달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회적기업이 약 57.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인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단위 : %)



	0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5-50	51
2020	8.5	45.1	20.6	8.2	4.3	3.1	1.9	1.8	1.0	0.8	0.5	4.3
2021	8.3	47.2	19.2	7.7	4.3	2.7	2.0	1.5	1.3	0.7	0.8	4.3
2022	7.3	50.6	16.8	7.6	4.1	3.0	1.9	1.6	1.0	1.0	0.5	4.5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1>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2년 취약계층 근로자 중 약 50.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회문제 수요도 크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약 34.9%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해당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

(단위 :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서울	10,036	23.5	412,409	16.8
부산	1,593	3.7	227,066	9.3
대구	847	2.0	148,146	6.0
인천	2,540	5.9	166,083	6.8
광주	1,092	2.6	94,137	3.8
대전	1,237	2.9	75,140	3.1
울산	1,048	2.5	41,510	1.7
세종	882	2.1	8,165	0.3
경기	11,625	27.2	443,985	18.1
강원	2,092	4.9	85,681	3.5
충북	1,211	2.8	78,709	3.2
충남	1,292	3.0	88,800	3.6
전북	1,590	3.7	128,522	5.2
전남	977	2.3	104,064	4.2
경북	2,032	4.8	147,353	6.0
경남	1,863	4.4	168,197	6.9
제주	790	1.8	33,491	1.4
전체	42,747	100.0	2,451,458	100.0

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재구성.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보건복지부(2022)

<표 3-2>와 [그림 3-3]은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규모의 경우 전체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고용 평균은 2021년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년 인증기업의 평균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38.3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7년 33.2명, 2008년 2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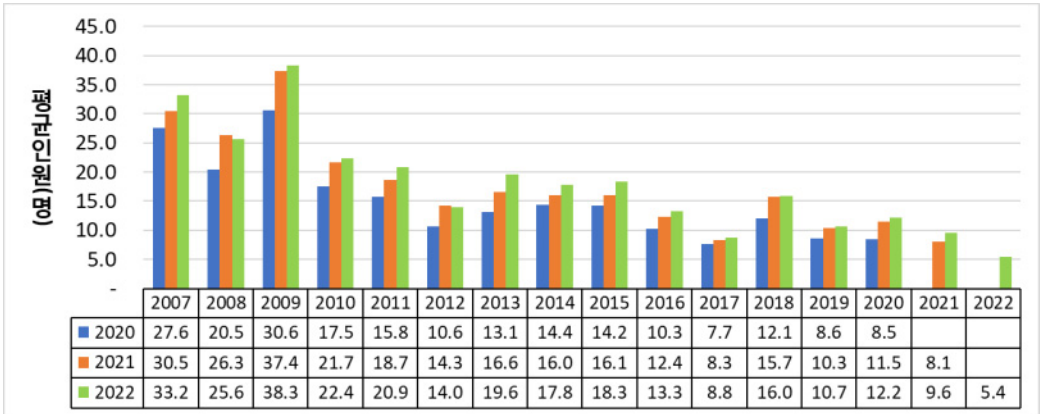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2007	967	27.6	975	30.5	1,029	33.2
2008	2,074	20.5	2,187	26.3	2,329	25.6
2009	1,591	30.6	1,496	37.4	1,646	38.3
2010	2,315	17.5	2,257	21.7	2,421	22.4
2011	1,632	15.8	1,607	18.7	1,710	20.9
2012	1,183	10.6	1,330	14.3	1,361	14.0
2013	2,585	13.1	2,816	16.6	3,170	19.7
2014	2,894	14.4	2,847	16.0	3,130	17.8
2015	3,266	14.2	3,183	16.1	3,411	18.3
2016	2,364	10.3	2,348	12.4	2,504	13.3
2017	1,827	7.7	1,678	8.3	1,708	8.8
2018	3,554	12.1	3,837	15.7	3,909	16.0
2019	3,341	8.6	3,392	10.3	3,361	10.7
2020	3,613	8.5	4,386	11.5	4,586	12.2
2021	-	-	3,684	8.1	4,383	9.6
2022	-	-	-	-	2,089	5.4
계	33,206	12.1	38,023	13.6	42,747	13.6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한편 [그림 3-3]에서는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이 최근 인증받은 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고용 경험이 누적될수록 취약계층 고용을 점차 늘려나간 결과일 수도 있고, 인증연도별 시장 및 정책 환경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규모 자체에 편차가 달랐던 결과일 수도 있기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27.6	20.5	30.6	17.5	15.8	10.6	13.1	14.4	14.2	10.3	7.7	12.1	8.6	8.5		
2021	30.5	26.3	37.4	21.7	18.7	14.3	16.6	16.0	16.1	12.4	8.3	15.7	10.3	11.5	8.1	
2022	33.2	25.6	38.3	22.4	20.9	14.0	19.6	17.8	18.3	13.3	8.8	16.0	10.7	12.2	9.6	5.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표 3-3>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제시한 결과이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평균수를 보면,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22년 기준으로는 혼합형이 평균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제공형이 평균 15.5명,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평균 1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34,7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에 취약계층 고용이 집중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고용 비율이 각각 30%, 20%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고용한 절대적 수는 적지만 매년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취약계층 평균 유급 근로자 수가 2022년 3.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은 취약계층 평균 근로자 수가 2022년 4.7명으로 인증유형 중 두 번째로 적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도 1,169명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

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혁신적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일자리제공형	27,114	15.0	31,033	15.6	34,700	15.5
사회서비스제공형	1,946	11.1	2,422	14.7	2,787	13.7
혼합형	2,532	12.9	2,831	15.5	3,105	16.3
기타(창의・혁신)형	939	2.7	948	4.1	1,169	4.7
지역사회공헌형	675	3.2	789	3.6	986	3.7
전체	33,206	12.1	38,023	13.6	42,747	13.6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4>는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약 31.7명으로 가장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법상법인(18.6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15.4명), 일반/사회적협동조합(14.4명), 상법상회사(12.8명), 비영리민간단체(5.0명), 영농조합법인(4.4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형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현재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의 약 63.5%인 27,12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민법상법인	3,991	14.3	4,615	15.0	5,024	18.6
비영리민간단체	256	3.6	355	6.6	222	5.0
사회복지법인	2,180	28.7	2,230	31.0	2,343	31.7
상법상회사	21,258	11.8	23,573	12.9	27,122	1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0	13.0	182	16.5	169	15.4
영농조합법인	404	4.1	416	4.6	499	4.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987	12.7	6,557	15.8	7,368	14.4
기타	-	-	95	23.8	-	-
전체	33,206	12.1	38,023	13.6	42,747	13.6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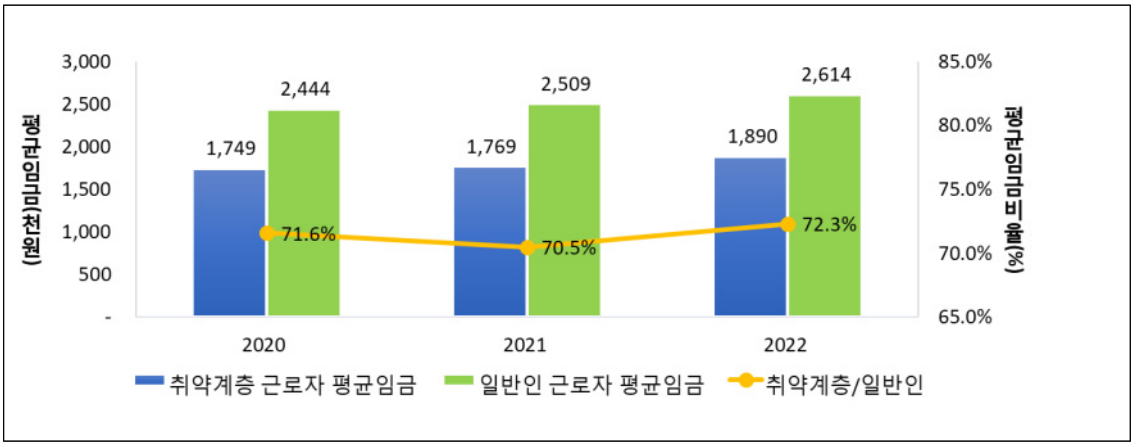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앞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성과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면, 이는 개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통합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3-4]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2020~2022년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하지만, 2022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1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하여 일반인 근로자보다 임금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단위 : 천 원,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의 <표 3-5>는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과 임금 격차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강원이 26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246만 5천 원), 전남(196만 7천 원), 대전(195만 5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160만 7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경우 강원이 303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303만 1천 원), 경기(277만 5천 원), 대전(266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이 204만 2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을 상회하고 있다. 일반인과 취약계층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90만 1천 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광주(85만 원), 경기(82만 9천 원), 충북(71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격차는 2021년 74만

원에서 2022년 72만 4천 원으로 소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 임금

(단위 : 천 원)

구분	취약계층 평균임금		일반인 평균임금		일반인-취약계층 임금격차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서울	1,688	13	2,589	6	901	1
부산	1,607	17	2,200	15	593	8
대구	1,705	12	2,052	16	347	17
인천	1,670	15	2,259	14	589	9
광주	1,659	16	2,509	9	850	2
대전	1,955	4	2,660	4	705	5
울산	1,823	10	2,269	13	446	12
세종	1,683	14	2,042	17	359	16
경기	1,946	5	2,775	3	829	3
강원	2,640	1	3,032	1	392	15
충북	1,888	9	2,604	5	717	4
충남	1,931	7	2,327	12	396	14
전북	1,942	6	2,574	7	631	7
전남	1,967	3	2,547	8	580	10
경북	2,465	2	3,031	2	566	11
경남	1,920	8	2,337	11	417	13
제주	1,823	11	2,503	10	680	6
전체	1,890		2,614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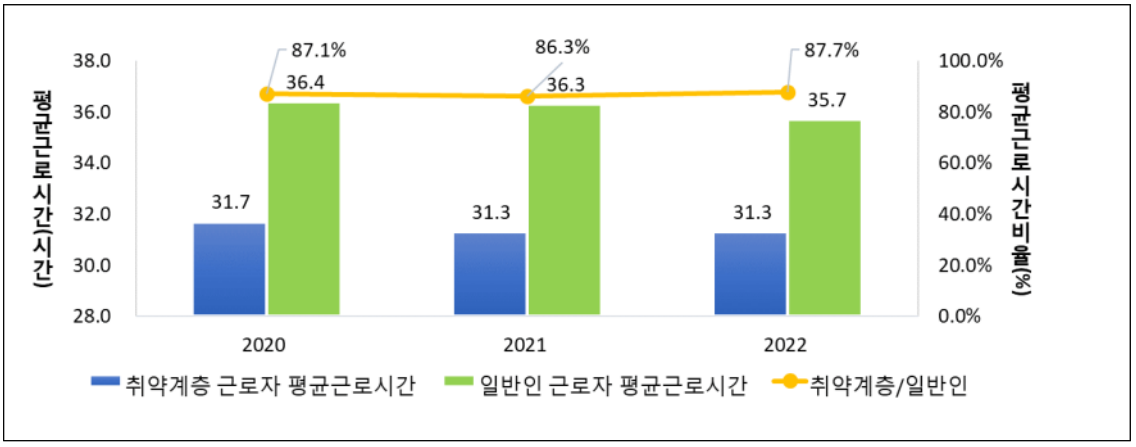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2022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1.3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35.7시간을 일하는 일반인 근로자보다 4.4시간가량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3년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는 2020년 36.4시간에서 2021년 36.3시간, 2022년 35.7시간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20년 31.7시간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31.3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시간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최근 3년간 86~8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지역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3-6>은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은 강원에서 35.3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29.3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 근로시간은 경북과 강원이 37.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충남이 33.3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과 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6.8시간)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충북과 부산(6.0시간), 서울(5.8시간), 제주(5.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		일반인 평균 근로시간		일반인-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서울	29.3	17	35.1	13	5.8	4
부산	29.9	14	35.9	8	6.0	3
대구	31.1	13	35.5	10	4.5	8
인천	31.7	7	35.4	11	3.7	11
광주	29.5	16	36.4	5	6.8	1
대전	34.9	2	37.0	4	2.1	15
울산	32.3	5	34.2	15	1.9	16
세종	31.3	11	33.4	16	2.2	14
경기	31.4	9	35.2	12	3.8	10
강원	35.3	1	37.8	2	2.5	13
충북	29.6	15	35.6	9	6.0	2
충남	32.3	6	33.3	17	1.0	17
전북	31.4	10	36.3	6	4.9	6
전남	33.0	4	37.6	3	4.5	7
경북	33.9	3	37.8	1	3.9	9
경남	31.6	8	34.8	14	3.3	12
제주	31.1	12	36.1	7	5.0	5
전체	31.3		35.7		4.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인증연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2022년의 경우 2015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이 약 238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2013년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약 157만 2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5년 인증기업의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이 34.4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9년 인증기업의 경우 28.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소폭 감소한 후 2022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구분	2020		2021		2022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2007	1,669	32.3	1,701	31.3	1,958	30.7
2008	1,445	28.9	1,500	28.7	1,606	28.4
2009	1,481	26.9	1,604	29.2	1,670	28.2
2010	1,845	32.9	2,027	33.6	2,273	31.9
2011	1,636	33.4	1,626	32.3	1,779	32.0
2012	1,678	30.9	1,726	30.8	1,896	31.7
2013	1,430	28.9	1,496	28.8	1,572	28.3
2014	1,533	30.0	1,577	28.7	1,751	30.0
2015	2,338	35.3	2,297	34.9	2,386	34.4
2016	1,716	32.5	1,726	32.0	1,831	31.8
2017	1,887	34.0	1,897	32.5	1,960	31.8
2018	1,713	31.3	1,712	30.5	1,829	30.9
2019	1,649	30.6	1,673	29.9	1,829	30.7
2020	2,028	33.9	1,956	33.1	2,103	32.9
2021	-	-	1,728	32.3	1,779	31.9
2022	-	-	-	-	1,853	32.5
계	1,749	31.7	1,769	31.3	1,890	31.3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인증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3-8>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인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기타(창의・혁신)형에서 217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209만 5천 원), 일자리제공형(192만 4천 원), 사회서비스제공형(163만 7천 원), 혼합형(15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34.4시간), 기타(창의・혁신)형과 일자리제공형(31.9시간), 사회서비스제공형(27.1시간), 혼합형(26.3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소폭 감소한 후 2022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구분	2020		2021		2022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1,789	32.2	1,800	31.9	1,924	31.9
사회서비스제공형	1,471	28.0	1,525	27.6	1,637	27.1
혼합형	1,419	27.2	1,499	27.0	1,560	26.3
기타(창의・혁신)형	1,869	32.8	1,937	32.7	2,177	31.9
지역사회공헌형	2,008	36.8	2,070	36.2	2,095	34.4
전체	1,749	31.7	1,769	31.3	1,890	31.3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마지막으로 <표 3-9>의 조직형태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본다. 2022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평균임금이 217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법상회사(206만 2천 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166만 2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21년 37.3시간으로 가장 길었던 영농조합법인이 2022년에도 36.9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26.3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소폭 감소한 후 2022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구분	2020		2021		2022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민법상법인	1,454	29.4	1,472	29.0	1,582	28.5
비영리민간단체	1,374	26.7	1,367	25.6	1,450	26.3
사회복지법인	1,208	29.9	1,369	30.4	1,385	30.2
상법상회사	1,916	32.8	1,929	32.5	2,062	3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21	33.2	1,587	31.8	1,662	31.2
영농조합법인	1,948	36.7	2,100	37.3	2,172	36.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20	29.7	1,553	29.2	1,626	28.4
기타	-	-	1,202	20.9	-	-
전체	1,749	31.7	1,769	31.3	1,890	31.3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 역시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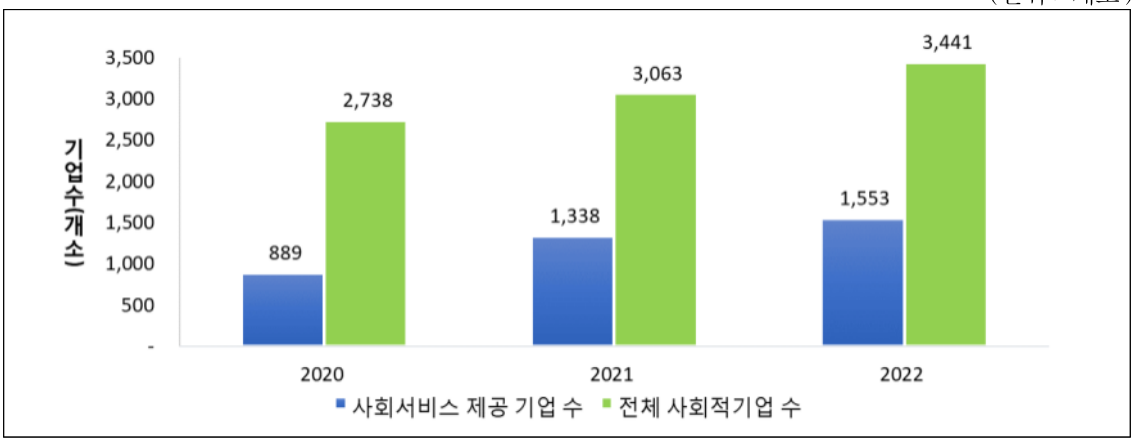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3조에서 정의하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간병·가사, 문화재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업보고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지고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요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 [그림 3-6]에는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 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2022년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1,553개소로 전년 대비 215개소(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에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비율은 2020년 32.5%에서 2021년 43.7%로 증가하였고, 2022년 4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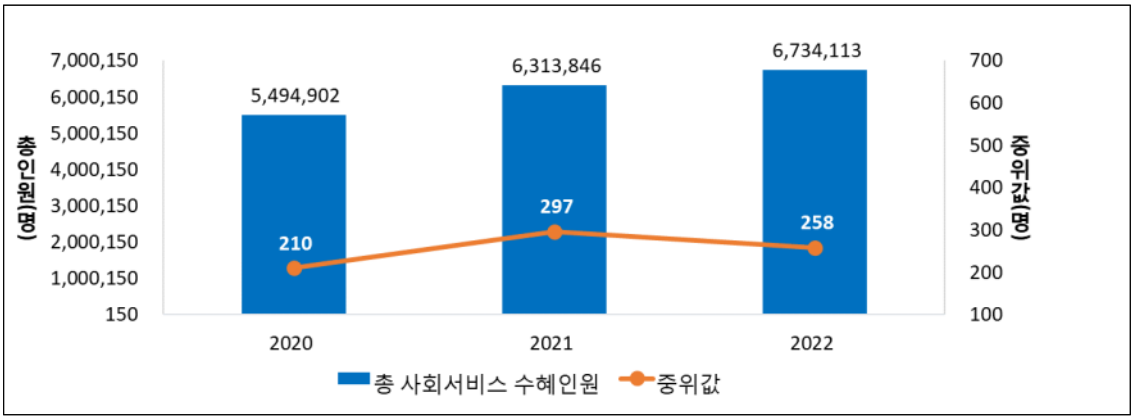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 [그림 3-7]은 최근 3년간의 전체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수 및 중위값을 제시한 것이다. 2022년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은 약 673만 명으로 2019~2020년의 약 549만~약 631만 명 수준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의 중위값은 2020년 210명에서 2021년 29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25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총 수혜 인원의 기업 간 격차가 커진다기보다는, 앞서 설명한 대로 실적 보고 의무가 없어서 실적이 많은 상위 몇 개 기업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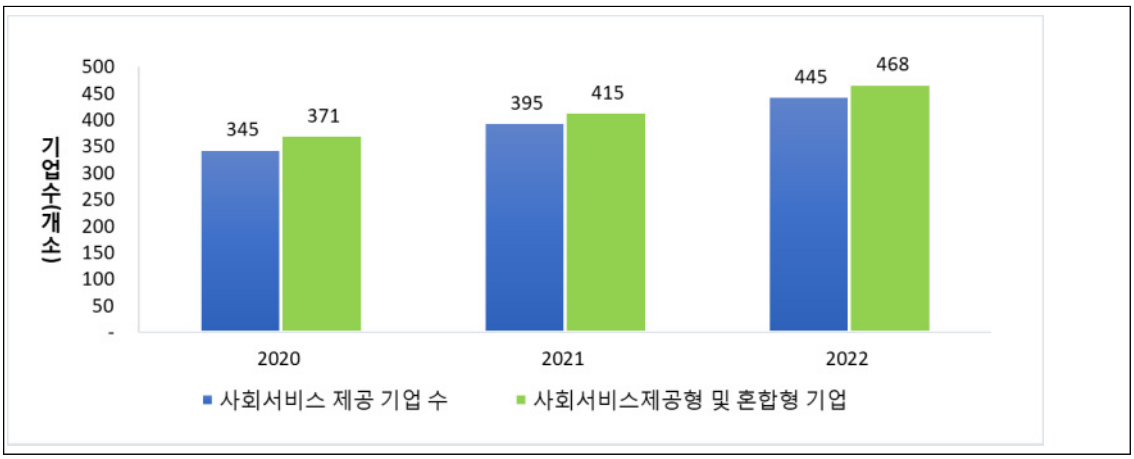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이처럼 인증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작성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8]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2020년 345개소에서 2021년 395개소, 2022년 445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약 90.0% 이상(2020년 93.0%, 2021년 95.2%, 2022년 95.1%)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주 :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는 사회서비스제공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형, 혼합형만 포함.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의 <표 3-10>은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서울이 77개소(17.3%)로 가장 많았고, 경기 74개소(16.6%), 전북 35개소(7.9%) 순으로 나타났다. 총 445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중 33.9%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의 경우 1개소(0.2%)와 제주의 경우 9개소(2.0%)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기업 수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77	17.3	1	13.3	8
부산	31	7.0	4	19.5	1
대구	10	2.2	14	7.7	14
인천	22	4.9	9	11.1	11
광주	23	5.2	8	16.1	6
대전	20	4.5	10	18.2	3
울산	20	4.5	10	17.7	5
세종	1	0.2	17	3.8	17
경기	74	16.6	2	12.1	10
강원	25	5.6	7	12.8	9
충북	27	6.1	5	18.6	2
충남	10	2.2	14	7.2	16
전북	35	7.9	3	17.8	4
전남	27	6.1	5	14.1	7
경북	17	3.8	12	7.2	15
경남	17	3.8	12	9.3	13
제주	9	2.0	16	10.8	12
전체	445	100.0	-	12.9	-

주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은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비율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한편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율 순위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 충북, 대전, 전북, 울산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의 비율이 각각 19.5%, 18.6%, 18.2%, 17.8%, 1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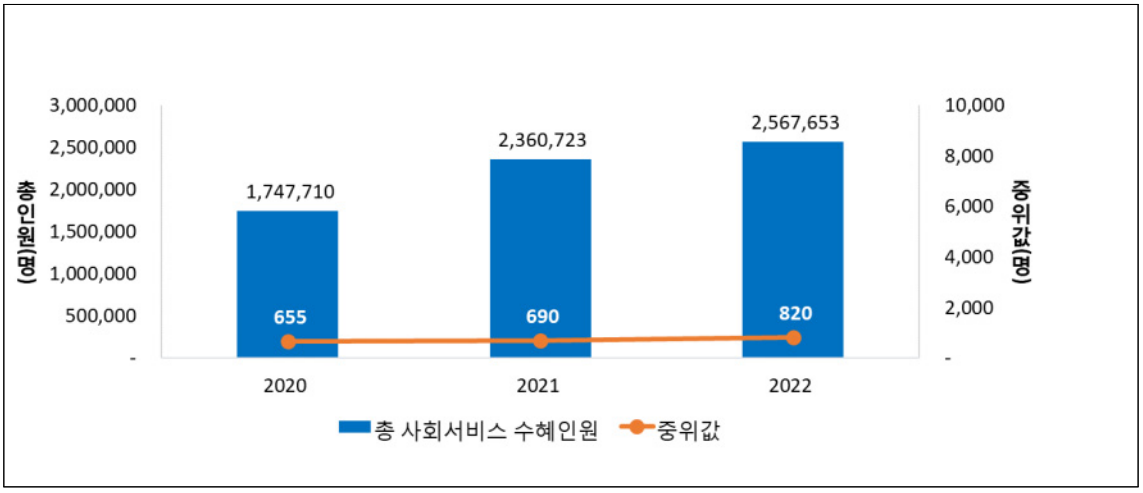
이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사회서비스 [그림 3-9]는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추이를 보여준다.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은 2020년 약 174만 8천 명, 2021년 약 236만 명, 2022년 약 256만 7천 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 또한 2020년 655명, 2021년 690명, 2022년 82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의 변동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수혜자를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수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개략적인 인원수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또는 과소 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향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명)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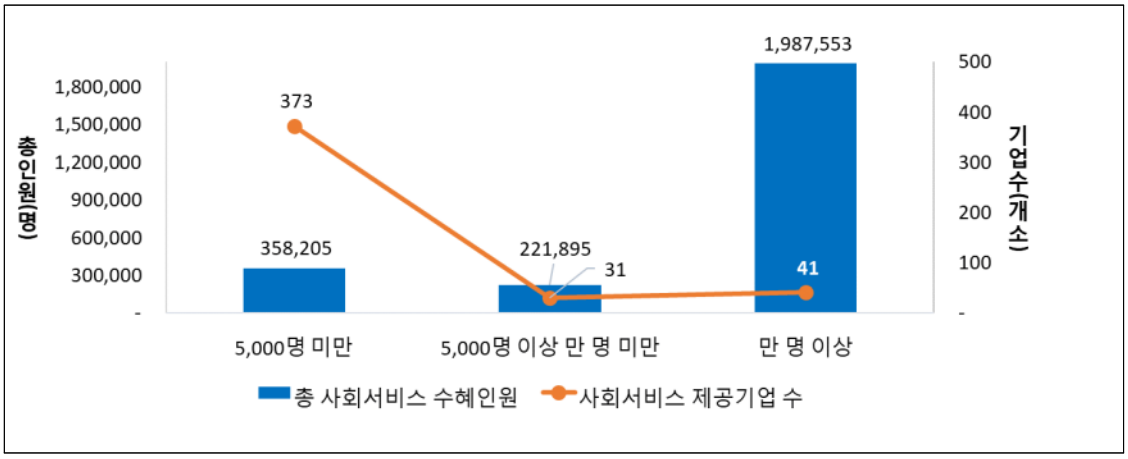
다음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서비스제공 기업과 수혜 인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3-10]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사회적기업의 수와 총 수혜 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2년 5천 명 미만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373개소로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83.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 인원은 전체 수혜 인원의 1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명 이상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1개소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혜 인원의 약 77.5% 정도가 만 명 이상 제공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수의 사회적기업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을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3- 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전체 수혜 인원의 17.9%가 속한 서울이 약 45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울산(14.0%), 경기(12.3%)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은 전체 수혜 인원의 0.1%인 약 1백 명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이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남(0.5%), 제주(0.8%), 경북(1.2%), 인천(1.6%), 충북(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총인구가 사회서비스 수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수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별 인구수 비율보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울산, 전북, 대구, 충남, 대전, 광주, 강원, 전남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비율 대비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및 지역 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명, %)

구분	사회서비스 수혜자			2023 인구주택총조사		
	인원	비율	순위	인원	비율	순위
서울	458,782	17.9	1	9,417,469	18.2	2
부산	143,539	5.6	7	3,295,760	6.4	3
대구	226,443	8.8	5	2,366,852	4.6	7
인천	41,112	1.6	13	2,989,125	5.8	5
광주	125,136	4.9	9	1,468,972	2.8	14
대전	136,091	5.3	8	1,473,662	2.9	13
울산	359,298	14.0	2	1,110,516	2.1	15
세종	100	0.0	17	382,589	0.7	17
경기	316,931	12.3	3	13,717,827	26.5	1
강원	123,577	4.8	10	1,528,037	3.0	12
충북	43,806	1.7	12	1,624,993	3.1	11
충남	149,568	5.8	6	2,193,214	4.2	8
전북	263,684	10.3	4	1,774,248	3.4	9
전남	113,586	4.4	11	1,771,431	3.4	10
경북	30,707	1.2	14	2,620,373	5.1	6
경남	13,919	0.5	16	3,280,829	6.3	4
제주	21,374	0.8	15	676,375	1.3	16
전체	2,567,653	100.0		51,692,272	100.0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통계청(2023) 2022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표 3-12>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2022년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 기업은 2021년 인증기업이 64개소, 2022년 인증기업이 58개소, 2020년 인증기업이 41개소, 2008년 인증기업이 40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 인원 중위값은 2013년이 1,433명으로 가장 높았고, 2015년(1,408명), 2011년(1,39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수혜 인원이 적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20~2022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0		2021		2022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2007	13	2,600	14	1,704	14	780
2008	41	1,536	41	1,764	40	1,039
2009	16	839	14	995	15	363
2010	15	250	15	288	15	408
2011	12	952	10	1,616	9	1,396
2012	15	270	14	450	15	672
2013	21	1,134	22	985	21	1,433
2014	9	339	8	465	9	480
2015	31	487	30	1,150	28	1,408
2016	38	539	34	573	35	727
2017	24	795	26	999	20	396
2018	27	655	26	720	26	819
2019	40	346	37	570	35	591
2020	43	498	43	540	41	540
2021	-	-	61	601	64	1,037
2022	-	-	-	-	58	698
전체	345	655	395	690	445	820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13>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은 258개소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1,080명으로 전체 중위값 820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187개소의 기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476명으로 전체 중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20~2022년 사회서비스제공형의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은 증가하고 있으며, 혼합형의 경우 제공기업 수는 소폭 증가하나 수혜 인원 중위값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0		2021		2022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일자리제공형	-	-	-	-	-	-
사회서비스제공형	164	747	212	880	258	1,080
혼합형	181	556	183	487	187	476
기타(창의・혁신)형	-	-	-	-	-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전체	345	655	395	690	445	820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14>는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상법상회사가 26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99개), 민법상법인(5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 인원 중위값은 제공기업이 1개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민법상법인이 1,267명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1,204명), 비영리민간단체(1,20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2022년 동안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회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증감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인원 중위값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민법상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증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0		2021		2022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민법상법인	55	1,526	63	935	56	1,267
비영리민간단체	19	342	20	740	17	1,140
사회복지법인	6	1,067	4	1,333	5	363
상법상회사	200	528	228	534	264	57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6,815	1	6,902	1	7,563
영농조합법인	3	464	3	650	3	37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1	1,097	76	976	99	1,204
기타	-	-	-	-	-	-
전체	345	655	395	690	445	820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마지막으로 <표 3-15>에는 2020~2022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의 기초분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각 연도의 모든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별로 분석대상이 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0~2021년 3개년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하고,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2,477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객관적 기준보다는 기업 나름의 임의적 기준으로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0		2021		2022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인증연도	2007	13	2,600	14	1,704	14	780
	2008	41	1,536	41	1,764	40	1,039
	2009	14	823	14	995	14	467
	2010	14	312	15	288	15	408
	2011	11	903	10	1,616	9	1,396
	2012	14	422	14	450	14	717
	2013	20	1,126	22	985	21	1,433
	2014	8	370	8	465	8	440
	2015	30	487	30	1,150	27	1,400
	2016	35	559	34	573	34	994
	2017	23	669	24	545	19	380
	2018	26	639	26	720	26	819
	2019	35	294	35	570	34	537
	2020	40	530	41	540	40	559
인증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154	709	157	1,020	151	1,128
	혼합형	170	543	171	482	164	485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49	1,572	49	1,239	48	1,490
	비영리민간단체	18	348	19	520	17	1,140
	사회복지법인	4	932	4	1,333	4	31,737
	상법상회사	191	528	195	528	183	5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6,815	1	6,902	1	7,563
	영농조합법인	3	464	3	650	3	37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8	1,093	57	1,296	59	1,302
	기타	-	-	-	-	-	-
전체		324	652	328	781	315	807

주 : 2020-2022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477개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만 포함함.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2020년 324개소에서 2021년 328개소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315개소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2020년 652명에서 2021년 781명, 2022년 807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연도별로는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20~2022년 동안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 2009년, 2017년 인증기업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9년 인증기업은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유지되거나 소폭 증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법상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중위값이 증감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외 조직형태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대상층에 주로 제공되었는지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인증유형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혼합형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가 취약계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 지역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시 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국민의 복지욕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need)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림 3-11]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22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41개소였고,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238개소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배 정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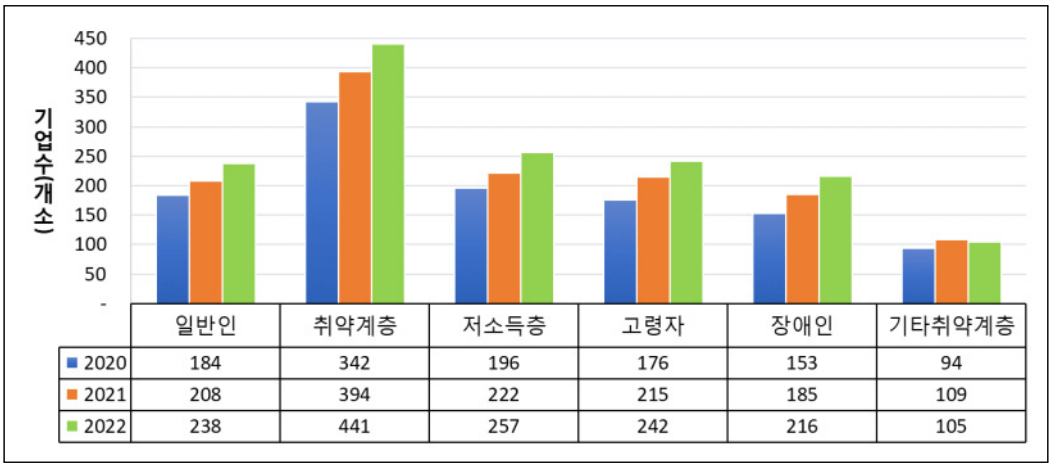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우선 대상은 그 수요(need)가 더 큰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각각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0%(24개소)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4.4%(30개소)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1년에 전년 대비 15.2%(52개소)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2.0%(47개소) 증가하였다.

취약계층은 다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기타취약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이 257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령자 대상 242개소, 장애인 대상이 216개소, 기타 취약계층 대상이 105개소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일반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취약계층
2020	184	342	196	176	153	94
2021	208	394	222	215	185	109
2022	238	441	257	242	216	105

주1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주2 : 기타취약계층 –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장기실업자, 범죄구조피해기타,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중독자, 선천성 혹은 희귀병치료자, 여성가장 등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16>은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같거나 더 많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나타나고 있었다.

2022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는 서울이 77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이 74개소, 전북 지역이 35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 46개소, 경기 지역에 29개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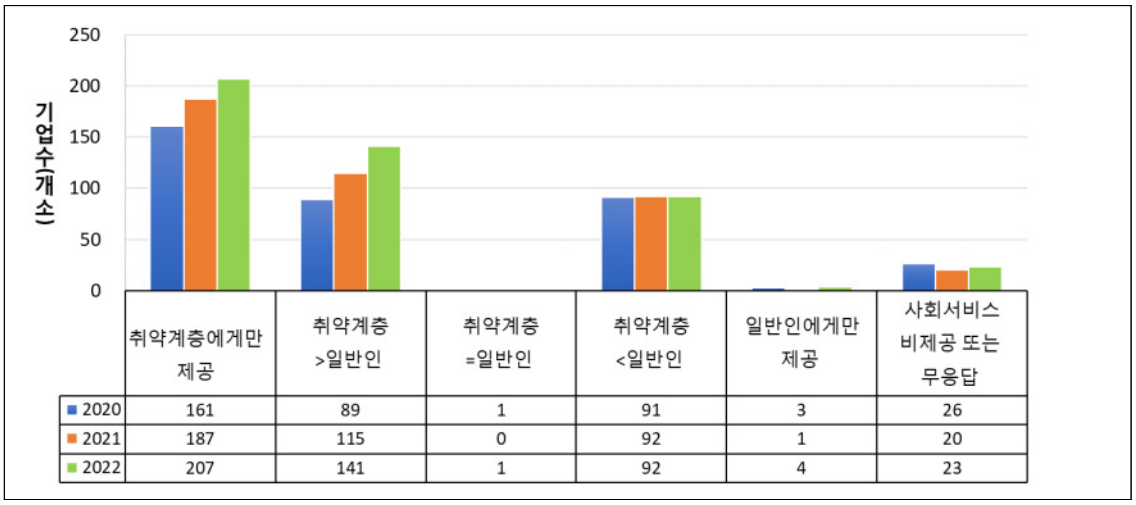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	일반인 서비스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수	순위	기업 수	순위
서울	77	46	1	77	1
부산	31	24	3	31	4
대구	10	10	10	10	14
인천	22	7	13	21	9
광주	23	17	4	23	8
대전	20	15	6	19	11
울산	20	16	5	20	10
세종	1	1	17	0	17
경기	74	29	2	74	2
강원	25	14	7	25	7
충북	27	10	10	27	5
충남	10	9	12	10	14
전북	35	12	8	35	3
전남	27	12	8	26	6
경북	17	6	15	17	12
경남	17	3	16	17	12
제주	9	7	13	9	16
전체	445	238	-	441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그림 3-12]는 일반인과 취약계층 중 누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대부분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207개소), 취약계층에게 주로 제공하는 곳(141소)이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207개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반인에게 주로 제공하는 곳(92개소)은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추세임이 나타났다.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취약계층에게만 제공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일반인에게만 제공	사회서비스 비제공 또는 무응답
2020	161	89	1	91	3	26
2021	187	115	0	92	1	20
2022	207	141	1	92	4	23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17>은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유사하게 울산, 세종,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구분	취약계층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만 제공 포함)	일반인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제공(일반인만 제공 포함)
서울	58	19
부산	17	14
대구	7	3
인천	19	3
광주	19	4
대전	15	4
울산	6	14
세종	0	1
경기	64	10
강원	22	3
충북	24	3
충남	4	6
전북	31	4
전남	23	4
경북	17	0
경남	16	1
제주	6	3
전체	348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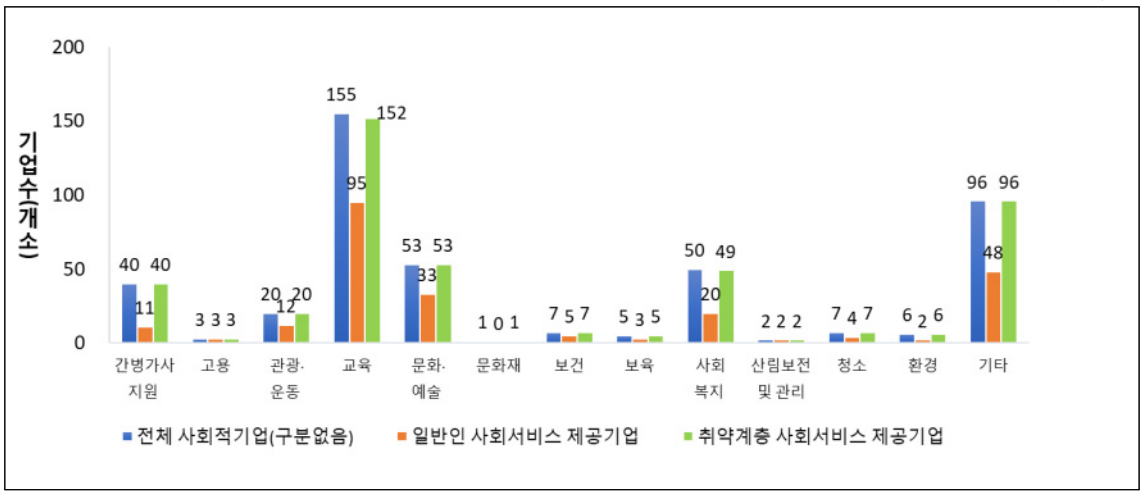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그림 3-13]과 [그림 3-14]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에게(혹은 위주로), 취약계층에게(혹은 위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치를 분류・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교육(155개소)이었으며, 기타(96개소), 문화·예술(53개소), 사회복지(50개소), 간병가사지원(40개소) 순으로 높았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 역시 전체적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교육(152개소)이었으며, 기타(96개소), 문화·예술(53개소), 사회복지(49개소), 간병가사지원(40개소) 순으로 높았다.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교육(95개소), 기타(48개소), 문화・예술(33개소), 관광·운동(12개소)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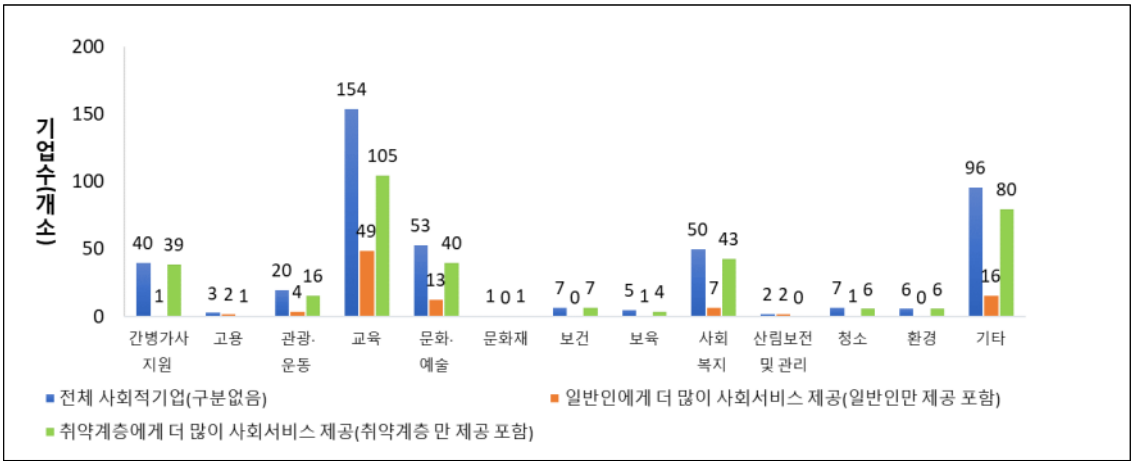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그림 3-14]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는 교육이 105개소로 가장 많았고, 기타 80개소, 사회복지 43개소, 문화·예술 40개소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또한 교육이 49개소로 가장 많았고, 기타 16개소, 문화・예술 13개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주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일반인과 취약계층 수혜자 수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마지막으로 <표 3-18>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셀의 값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의 비율(%)이므로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10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 전년대비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전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약 50%와 약 3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제공기업 수가 1개 기업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100% 미만의 비율이 나타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가분석 3-1>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표 부가분석 3-2>는 지역과 표준산업분류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2,567,653명 중,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수혜자 비중이 41.3%(1,060,0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773,691명), 제조업11.1%(285,048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6%(219,5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1,712,811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8.6%(660,800명)로 가장 높았고, 교육 서비스업이 29.1%(497,6442명) 제조업 15.0%(257,312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일반인 수혜자 854,842명의 분포 비중은 교육 서비스업 65.8%(562,45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2%(112,8912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7%(74,08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일반인제공/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인증연도	2007	38.5	8.3	42.9	7.7	57.1	16.7
	2008	24.4	2.5	34.1	5.1	33.3	14.3
	2009	37.5	-	50.0	7.7	33.3	7.1
	2010	53.3	15.4	60.0	25.0	60.0	15.4
	2011	58.3	71.4	60.0	11.1	44.4	-
	2012	73.3	66.7	57.1	40.0	53.3	7.1
	2013	60.0	75.0	57.1	83.3	52.4	50.0
	2014	33.3	33.3	50.0	60.0	22.2	12.5
	2015	61.3	63.2	53.3	50.0	64.3	55.6
	2016	55.3	26.7	38.2	21.4	40.0	34.6
	2017	62.5	100.0	57.7	52.9	52.6	53.8
	2018	57.7	68.8	65.4	62.5	46.2	30.0
	2019	57.5	37.9	59.5	37.0	60.0	29.6
	2020	61.9	48.3	48.8	26.5	65.0	51.9
	2021	-	-	60.7	29.8	63.5	25.5
	2022	-	-	-	-	56.9	21.3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57.1	34.4	53.3	30.1	57.6	27.1
	혼합형	49.2	40.6	51.6	31.7	46.8	28.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6.4	48.6	65.1	53.7	55.4	27.3
	비영리민간단체	52.6	26.7	55.0	25.0	58.8	21.4
	사회복지법인	-	-	-	-	40.0	66.7
	상법상회사	49.0	36.3	49.3	31.0	49.8	2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0	-	100.0	-	100.0	-
	영농조합법인	100.0	50.0	33.3	50.0	33.3	5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5.6	41.9	53.9	18.8	60.2	25.6
	기타	-	-	-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0, 2021, 2022)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명)

항목			2020	2021	2022
전체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747,710	2,360,723	2,567,653
	인증 연도	2007	132,778	177,057	160,761
		2008	804,372	678,036	518,647
		2009	91,994	80,643	70,258
		2010	16,227	18,453	18,890
		2011	23,730	84,886	144,063
		2012	160,219	224,775	249,505
		2013	88,447	113,904	179,316
		2014	40,841	66,555	59,819
		2015	57,492	114,533	148,494
		2016	61,672	117,630	204,005
		2017	66,523	256,694	213,894
		2018	91,798	149,220	132,009
		2019	52,692	43,470	60,675
		2020	58,925	96,344	127,981
		2021	-	138,523	165,893
		2022	-	-	113,44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826,405	1,359,707	1,472,648
		혼합형	921,305	1,001,016	1,095,005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13,815	657,786	781,786
		비영리민간단체	26,819	66,183	36,737
		사회복지법인	12,805	5,610	142,721
		상법상회사	912,224	908,671	977,1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815	6,902	7,563
		영농조합법인	1,452	2,175	13,17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73,780	713,396	608,563
		기타	-	-	-

항목			2020	2021	2022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363,474	1,716,054	1,712,811
	인증 연도	2007	105,530	137,734	127,212
		2008	730,256	546,282	428,116
		2009	87,111	76,135	66,956
		2010	14,670	14,120	16,565
		2011	13,722	73,909	139,123
		2012	129,976	157,915	173,294
		2013	37,235	45,327	64,806
		2014	11,837	18,350	16,298
		2015	29,876	66,689	65,184
		2016	49,021	105,010	132,389
		2017	22,155	200,270	96,195
		2018	62,015	76,628	48,328
		2019	29,725	31,016	44,809
		2020	40,345	63,424	79,984
		2021	-	103,245	135,986
		2022	-	-	77,566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625,228	968,701	959,667
		혼합형	738,246	747,353	753,144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75,693	335,595	407,198
		비영리민간단체	21,433	45,846	32,102
		사회복지법인	12,805	5,610	142,363
		상법상회사	810,795	796,987	724,3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12	3,582	3,862
		영농조합법인	690	1,273	1,17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38,446	527,161	401,784
		기타	-	-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384,236	644,669	854,842
	인증 연도	2007	27,248	39,323	33,549
		2008	74,116	131,754	90,531
		2009	4,883	4,508	3,302
		2010	1,557	4,333	2,325
		2011	10,008	10,977	4,940
		2012	30,243	66,860	76,211
		2013	51,212	68,577	114,510

항목			2020	2021	2022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인증연도	2014	29,004	48,205	43,521
		2015	27,616	47,844	83,310
		2016	12,651	12,620	71,616
		2017	44,368	56,424	117,699
		2018	29,783	72,592	83,681
		2019	22,967	12,454	15,866
		2020	18,580	32,920	47,997
		2021	-	35,278	29,907
		2022	-	-	35,87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201,177	391,006	512,981
		혼합형	183,059	253,663	341,861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38,122	322,191	374,588
		비영리민간단체	5,386	20,337	4,635
		사회복지법인	-	-	358
		상법상회사	101,429	111,684	252,78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03	3,320	3,701
		영농조합법인	762	902	12,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35,334	186,235	206,779
		기타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2)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명)

전체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8,782	143,539	226,443	41,112	125,136	136,091	359,298	100	316,931	123,577	43,806	149,568	263,684	113,586	30,707	13,919	21,374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임업및어업(A)	도매및소매업(G)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및음식점업(I)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R)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D)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J)	협회및단체,수리및개인서비스업(S)	금융및보험업(K)	부동산업및임대업(L)	운수업(H)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E)
		5,535	1,060,097	9,485	130,237	773,691	11,242	13	219,574	1,101	7,639	285,048	57,358	4,003	-	-	2,630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3,525	99,234	112,308	38,354	70,290	67,775	133,226	-	221,723	104,603	35,894	63,704	210,715	107,505	26,125	12,853	4,977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임업및어업(A)	도매및소매업(G)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및음식점업(I)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R)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D)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J)	협회및단체,수리및개인서비스업(S)	금융및보험업(K)	부동산업및임대업(L)	운수업(H)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E)
		5,076	497,644	4,947	66,892	660,800	8,614	13	145,488	278	4,487	257,312	55,999	3,861	-	-	1,400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5,257	44,305	114,135	2,758	54,846	68,316	226,072	100	95,208	18,974	7,912	85,864	52,969	6,081	4,582	1,066	16,397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임업및어업(A)	도매및소매업(G)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및음식점업(I)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R)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D)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J)	협회및단체,수리및개인서비스업(S)	금융및보험업(K)	부동산업및임대업(L)	운수업(H)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E)
		459	562,453	4,538	63,345	112,891	2,628	-	74,086	823	3,152	27,736	1,359	142	-	-	1,230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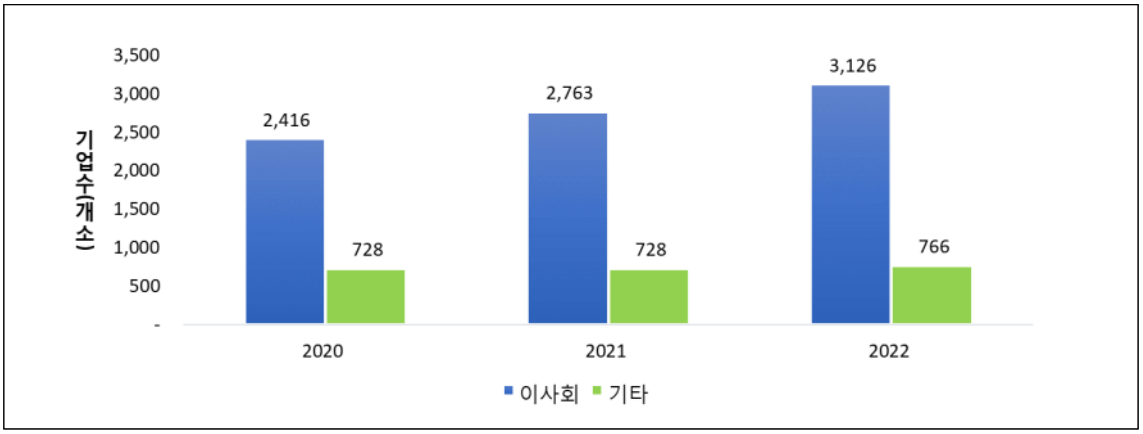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해보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해보면, 인증요건 중 하나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사업보고서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와 추가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그림 3-15]는 2020~2022년 사회적기업이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회의체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있으나, 2020~2022년 공통으로 절반 이상 이사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의 경우 이사회만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회와 기타(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의사결정기구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음 [그림 3-15]와 같다. 이사회를 활용한 기업은 2020년 2,416개소, 2021년 2,763개소, 2022년 3,126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외 기타 회의체는 2020년 728개소, 2021년 728개소, 2023년 766개소로 유지되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단위 : 개소)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단위 : 회, 개소)

지역	구분	이사회	기타
서울	평균	2.8	2.4
	기업 수	533	145
부산	평균	3.0	3.1
	기업 수	135	25
대구	평균	3.3	3.2
	기업 수	105	25
인천	평균	2.8	2.5
	기업 수	182	51
광주	평균	2.9	2.7
	기업 수	134	29
대전	평균	2.9	2.1
	기업 수	96	36
울산	평균	2.5	3.3
	기업 수	101	11
세종	평균	2.9	1.6
	기업 수	25	5
경기	평균	3.4	3.1
	기업 수	567	100
강원	평균	2.9	2.3
	기업 수	177	57
충북	평균	2.6	5.0
	기업 수	132	12
충남	평균	2.9	2.3
	기업 수	126	65
전북	평균	3.1	2.3
	기업 수	185	88
전남	평균	3.0	2.0
	기업 수	180	39
경북	평균	3.0	3.1
	기업 수	214	37
경남	평균	3.0	4.6
	기업 수	163	20
제주	평균	2.8	2.1
	기업 수	71	21
계	평균	3.0	2.6
	기업 수	3,126	766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3-19>는 의사결정기구 활용 평균 개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표다. 먼저, 이사회 개최 건수의 전체 평균은 연간 3.0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기타 회의체(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평균 개최 건수도 연간 2.6회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사회 개최는 지역별로는 경기가 평균 3.4회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평균 2.5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기타 회의체 개최 건수는 경남이 평균 5.0회로 가장 많고 세종이 평균 1.6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단위 : 개소, 회)

구분		이사회		기타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26	3.2	17	4.2
	2008	73	3.4	44	3.2
	2009	39	2.8	20	2.3
	2010	97	3.0	47	3.0
	2011	66	2.9	44	3.1
	2012	89	3.4	37	2.6
	2013	141	3.3	55	2.5
	2014	151	3.4	59	2.4
	2015	194	3.1	41	2.4
	2016	200	3.2	46	2.3
	2017	205	2.9	44	2.5
	2018	263	3.1	42	2.2
	2019	339	3.1	54	2.3
	2020	385	2.9	73	2.7
	2021	462	2.8	69	2.3
	2022	396	2.6	74	2.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80	2.9	462	2.6
	사회서비스제공형	251	3.2	61	2.7
	혼합형	177	2.9	60	2.7
	기타(창의・혁신)형	350	2.9	96	2.6
	지역사회공헌형	268	3.2	87	2.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56	2.9	107	2.4
	비영리민간단체	28	2.8	39	3.3
	사회복지법인	25	3.5	67	3.8
	상법상회사	2,201	2.8	240	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7.3	7	2.7
	영농조합법인	112	3.4	23	1.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94	3.5	283	2.6
	기타	-	-	-	-
계		3,126	3.0	766	2.6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기타 회의체의 평균 개최 건수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위의 <표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사회의 경우 인증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3.0회 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는 2.2회부터 약 4.2회로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지역사회공헌형에서 평균 3.2회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회의체는 유형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는 기업 수가 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사회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가 적었고, 기타 회의체의 경우에도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표 3-21>과 <표 3-22>에는 2020~2022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의 추이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응답 역시 기업별로 임의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0~2022년 3개년 사업보고서 원자료에 모두 포함된 동일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변화 추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3-21>에 따르면, 2020~2022년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2,477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 2,217개, 2021년 2,240개, 2022년 2,224개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회의 개최 건수는 3.1회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를 제시한 <표 3-22>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678개의 기업이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였는데 2021년 634개, 2022년 611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평균 개최 건수 역시 2020년 2.7회에서 2021년과 2022년 2.6회로 감소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데, 조직형태 중 영농조합법인에서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단위 : 개소, 회)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평균개최	기업수	평균개최	기업수	평균개최
인증연도	2007	22	3.7	22	3.9	25	3.3
	2008	72	3.4	72	3.6	71	3.5
	2009	36	2.8	35	3.0	37	2.8
	2010	94	2.8	88	2.7	95	3.0
	2011	66	2.9	65	3.0	66	2.9
	2012	86	3.6	86	3.5	86	3.3
	2013	145	3.1	147	3.1	141	3.3
	2014	142	3.2	150	3.2	147	3.4
	2015	193	3.2	196	3.0	191	3.1
	2016	199	3.3	198	3.2	198	3.2
	2017	197	3.2	201	3.1	200	2.9
	2018	257	3.3	257	3.2	257	3.1
	2019	324	3.0	328	3.0	332	3.1
	2020	384	2.7	375	2.8	378	2.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452	3.0	1,466	3.0	1,466	3.1
	사회서비스제공형	149	3.5	148	3.5	147	3.5
	혼합형	159	3.2	154	3.2	154	3.0
	기타(창의・혁신)형	283	3.0	282	3.1	284	3.1
	지역사회공헌형	174	3.3	170	3.3	173	3.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09	2.9	201	2.9	208	3.0
	비영리민간단체	32	2.6	31	2.5	25	2.8
	사회복지법인	20	3.4	20	3.5	23	3.7
	상법상회사	1,558	2.9	1,564	2.9	1,554	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4.9	9	4.3	8	6.1
	영농조합법인	80	3.8	81	3.7	83	3.5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310	3.7	314	3.7	323	3.6
	기타	-	-	-	-	-	-
전체		2,217	3.1	2,220	3.1	2,224	3.1

주 : 평균 개최 건수는 이사회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20, 2021, 2022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477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단위 : 개소, 회)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평균개최	기업수	평균개최	기업수	평균개최
인증연도	2007	18	3.5	19	4.1	17	4.2
	2008	41	3.1	43	3.2	43	3.1
	2009	20	2.6	22	2.5	20	2.3
	2010	57	3.2	53	2.8	45	3.0
	2011	49	3.1	47	3.1	43	3.1
	2012	42	3.5	39	3.0	36	2.6
	2013	65	2.3	57	2.4	54	2.5
	2014	64	2.5	58	2.2	58	2.4
	2015	47	2.0	45	2.1	40	2.4
	2016	54	2.4	45	2.3	46	2.3
	2017	48	2.6	46	2.4	44	2.5
	2018	45	2.2	40	2.4	41	2.2
	2019	70	2.7	55	2.0	52	2.2
	2020	58	2.9	65	2.8	72	2.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31	2.7	380	2.6	367	2.7
	사회서비스제공형	40	2.9	38	2.9	43	3.1
	혼합형	55	2.6	63	2.8	57	2.8
	기타(창의・혁신)형	87	2.2	91	2.1	83	2.2
	지역사회공헌형	65	3.3	62	2.9	61	2.5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06	2.7	104	2.5	96	2.5
	비영리민간단체	38	2.5	42	2.9	37	3.4
	사회복지법인	67	3.8	67	3.7	65	3.8
	상법상회사	253	2.5	209	2.4	203	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2.7	7	2.0	6	2.0
	영농조합법인	20	3.1	13	1.9	17	1.8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88	2.6	192	2.5	187	2.5
	기타	-	-	-	-	-	-
전체		678	2.7	634	2.6	6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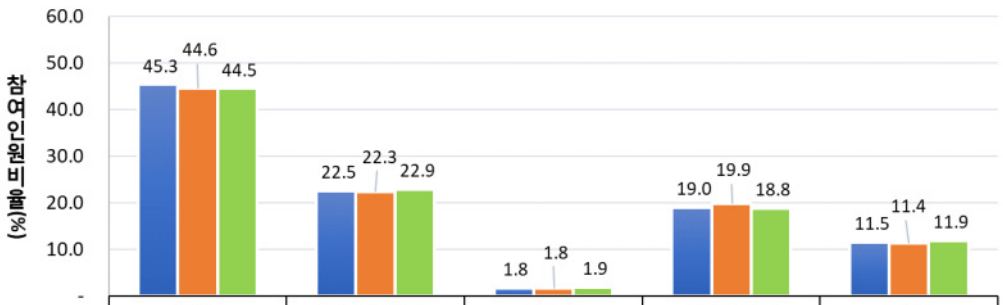
주 : 평균 개최 건수는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20, 2021, 2022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477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한편, 아래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는 각 사회적기업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을 평균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이사회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사내 이해관계자로 임원, 근로자대표가 있고, 사외 이해관계자로는 수혜자, 지역사회참여자, 기타 참여 인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원이 이사회의 약 40%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참여자가 각각 약 20% 내외로 이사회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근 3년 동안 모든 참여 인원 비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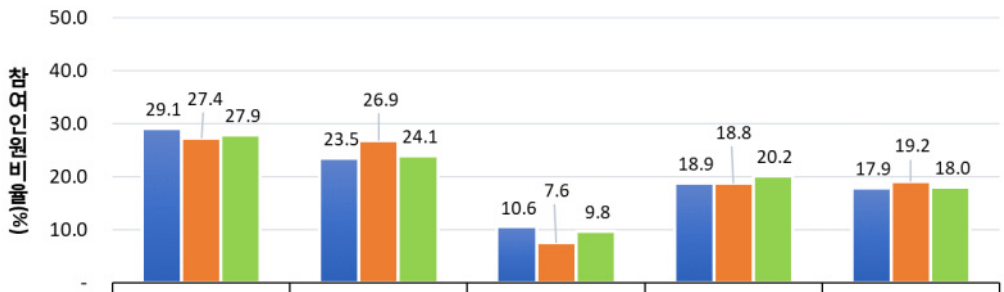
	임원	근로자대표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2020	45.3	22.5	1.8	19.0	11.5
2021	44.6	22.3	1.8	19.9	11.4
2022	44.5	22.9	1.9	18.8	11.9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 참여 인원 비율은 다음 [그림 3-17]과 같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약 27.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참여자, 수혜자가 사회적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 수혜자, 지역사회의 기타 회의체 참여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반면 근로자대표 및 기타는 소폭 줄어들었다.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 인원 비율

(단위 : %)



	임원	근로자대표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2020	29.1	23.5	10.6	18.9	17.9
2021	27.4	26.9	7.6	18.8	19.2
2022	27.9	24.1	9.8	20.2	18.0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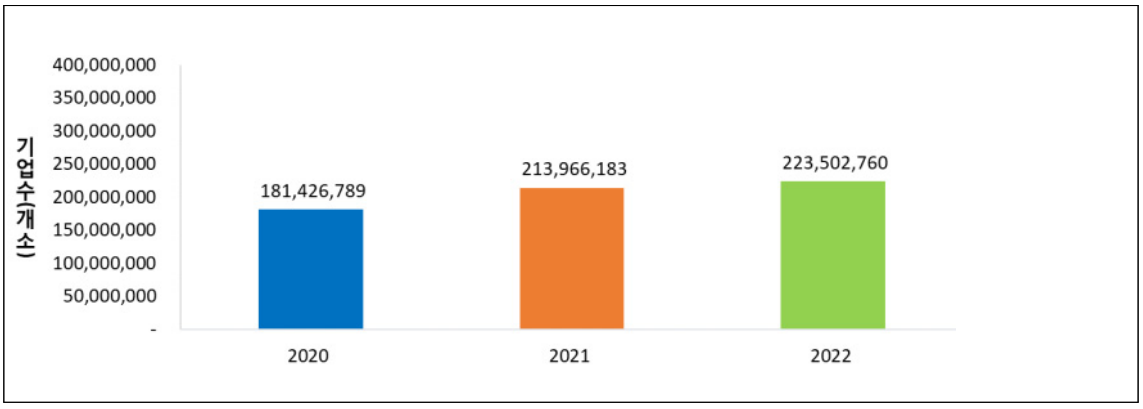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제4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3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동법 제8조 7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의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 3-18]과 같다. 2020년 약 1천 814억 3천만 원에서 2021년 약 2천 139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9% 증가했고, 2022년에는 약 2천 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나타났다.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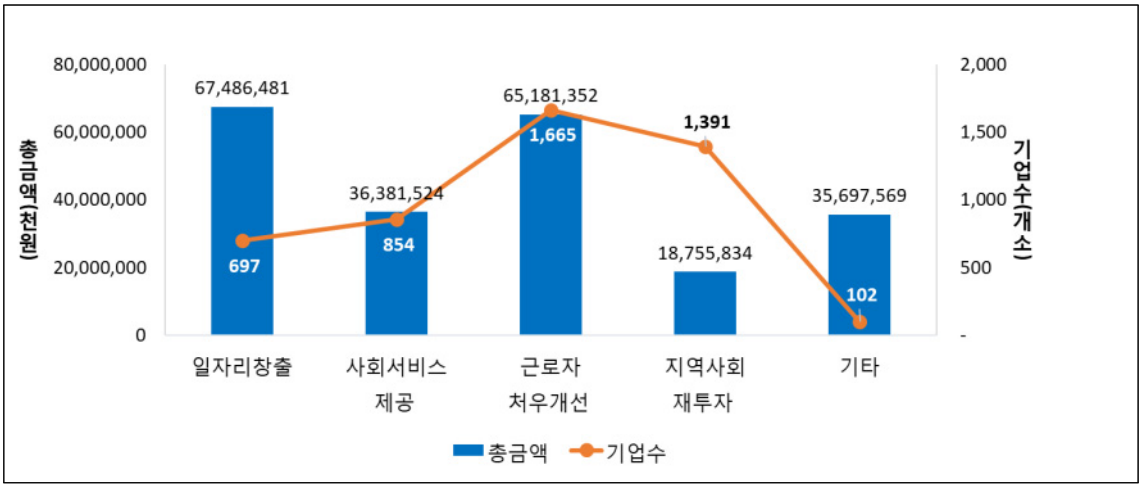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3-19]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를 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금액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투자유형은 크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2년 재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 기업은 697개소, 약 674억 8천만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665개 사회적기업이 약 651억 8천만 원을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854개 기업이 약 363억 8천만 원을, 지역사회 재투자의 경우 1,391개 기업이 약 187억 5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단위 : 개소, 천 원)



주 :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3-23>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액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22년에는 총 2,380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약 2,235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 전년도에 총 2,124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약 2,140억 원을 재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20222년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금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많은 금액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였다. 경기는 540개 사회적기업이 약 757억 원을, 서울은 269개 사회적기업이 약 551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였다. 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185개 기업이 약 224억 원을 재투자하여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재투자 금액은 많았다.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단위 : 개소, 천 원)

지역	사회적목적 재투자			총 재투자금액		
	기업 수	총수 대비 %	순위	금액	총금액 대비 %	순위
서울	269	11.3	2	55,112,545	24.7	2
부산	105	4.4	11	5,859,323	2.6	10
대구	89	3.7	12	2,737,653	1.2	13
인천	149	6.3	6	6,412,259	2.9	8
광주	130	5.5	7	9,695,020	4.3	5
대전	32	1.3	16	1,208,968	0.5	15
울산	38	1.6	15	1,075,701	0.5	16
세종	7	0.3	17	211,178	0.1	17
경기	540	22.7	1	75,727,809	33.9	1
강원	185	7.8	4	22,474,303	10.1	3
충북	120	5.0	8	8,979,838	4.0	6
충남	87	3.7	13	4,134,529	1.8	12
전북	120	5.0	8	6,355,043	2.8	9
전남	110	4.6	10	5,279,191	2.4	11
경북	199	8.4	3	9,721,107	4.3	4
경남	158	6.6	5	7,185,762	3.2	7
제주	42	1.8	14	1,332,532	0.6	14
계	2,380	100.0	-	223,502,760	100.0	-

주 :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한편, 아래 <표 3-2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 금액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인증기업의 전체 재투자 금액이 약 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07년 인증기업(약 2억 2천 6백만 원), 2013년 인증기업(약 2억 2천 4백만 원) 순이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별로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09년 인증기업 9개소가 평균 약 4억 8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근로자 처우개선은 2007년 인증기업 5개소와 13개소가 각각 약 4억 7천만 원, 약 7천 9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재투자와 기타 재투자는 2013년 인증받은 49개소와 4개소가 각각 약 7천 7백만 원, 약 26억 8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인증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1,652개소로 기업 수가 가장 많아서 사회적기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재투자 금액은 약 8천 7백만 원으로 인증유형들 중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1억 8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민법상법인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재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반면, 영농조합법인의 재투자 금액은 약 5천 7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3-25>는 2020~2022년 기간 동안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금액 추이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의 경우도 기업이 나름의 기준으로 임의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20~2022년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에 모두 포함된 2,47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실시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0년 1,610개에서 2021년 1,701개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1,692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평균금액은 2020년 약 1억 9백만 원에서 2021년 약 1억 6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약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 금액

(단위 : 개소, 천 원)

구분		전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8	226,400	6	94,349	5	469,621	13	79,424	8	15,663	1	3,173
	2008	51	92,221	17	31,436	13	77,047	37	57,359	33	11,841	3	218,058
	2009	24	240,656	9	487,373	9	76,808	13	45,643	16	6,548	-	-
	2010	66	121,497	13	235,394	24	54,044	50	62,978	45	9,780	2	36,298
	2011	46	191,378	8	91,891	12	391,772	33	69,640	26	28,003	7	48,685
	2012	61	72,162	15	66,356	15	25,448	45	45,970	36	10,611	2	287,084
	2013	107	224,405	31	166,243	34	16,688	75	50,004	49	77,217	4	2,689,129
	2014	111	87,250	27	118,465	26	39,760	75	45,550	72	8,700	7	202,080
	2015	141	98,966	34	121,819	41	25,681	107	65,459	84	18,022	3	80,525
	2016	152	98,126	43	127,826	53	47,278	113	41,649	94	10,907	6	196,896
	2017	149	107,688	31	67,202	47	25,801	98	24,420	90	10,114	7	1,349,453
	2018	193	93,220	56	116,165	62	13,297	133	44,770	112	11,087	8	433,216
	2019	258	78,934	68	93,460	95	27,273	184	36,888	146	11,416	18	164,692
	2020	299	97,073	93	117,116	111	34,209	226	42,651	182	12,055	9	277,873
	2021	379	59,928	129	63,161	164	40,844	253	20,884	221	8,835	15	42,025
	2022	325	58,508	117	44,747	143	39,699	210	23,728	177	9,426	10	145,14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652	87,732	525	109,139	489	23,224	1,187	44,420	1,019	10,215	68	193,298
	사회서비스제공형	178	70,277	32	74,100	112	54,546	125	24,352	71	10,805	8	27,215
	혼합형	119	109,359	29	36,464	74	126,659	75	30,205	61	3,837	3	28,012
	기타(창의·혁신)형	218	186,320	57	67,376	95	58,744	140	33,809	109	45,489	18	1,194,735
	지역사회공헌형	213	58,348	54	54,053	84	47,169	138	17,480	131	18,227	5	149,32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27	155,962	42	160,110	39	182,423	82	34,180	49	13,188	6	419,842
	비영리민간단체	23	47,733	4	20,689	11	31,167	18	18,109	9	38,477	-	-
	사회복지법인	34	81,414	11	69,546	4	84,319	21	73,382	7	16,381	1	10,127
	상법상회사	1,709	91,596	498	90,970	599	32,733	1,209	44,038	1,090	14,291	81	291,35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122,384	2	198,999	1	1,000	7	61,952	5	29,307	-	-
	영농조합법인	92	57,917	26	83,420	26	33,517	57	17,627	70	11,900	6	75,04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87	95,567	114	105,651	174	46,595	271	21,271	221	8,822	8	1,139,771
계		2,389	93,999	697	96,824	854	42,601	1,655	39,148	1,391	13,484	102	349,976

주 :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 금액 추이

(단위 : 개소, 천 원)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평균금액	기업수	평균금액	기업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4	144,776	17	246,366	18	282,650
	2008	50	105,214	50	117,199	51	96,318
	2009	23	63,606	28	158,685	26	229,415
	2010	68	116,451	64	107,253	65	141,159
	2011	49	664,552	53	332,830	45	362,309
	2012	57	81,696	56	102,884	61	80,168
	2013	96	205,935	102	227,329	110	225,733
	2014	108	79,329	114	120,780	116	93,011
	2015	125	134,193	144	143,714	143	113,564
	2016	145	74,091	149	56,076	151	108,393
	2017	150	46,499	148	65,555	154	116,960
	2018	199	105,043	201	83,229	195	101,909
	2019	260	80,301	277	76,526	260	89,369
	2020	266	66,314	298	73,641	297	115,83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099	112,641	1,178	100,092	1,164	116,565
	사회서비스제공형	96	85,037	101	100,132	105	86,041
	혼합형	111	103,661	105	115,459	111	159,796
	기타(창의・혁신)형	177	140,086	183	177,670	177	220,387
	지역사회공헌형	127	62,066	134	57,307	135	63,85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09	161,232	107	196,439	106	233,932
	비영리민간단체	21	35,454	20	58,941	21	59,231
	사회복지법인	26	79,730	36	115,205	33	77,661
	상법상회사	1,160	115,768	1,204	106,291	1,210	119,98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101,727	6	183,422	6	274,161
	영농조합법인	65	54,165	70	69,385	68	56,393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22	77,585	258	77,755	248	124,292
	기타	-	-	-	-	-	-
전체		1,610	109,404	1,701	106,018	1,692	124,163

주: 평균금액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2020, 2021, 2022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477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성과, 지출 구조,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일반인 고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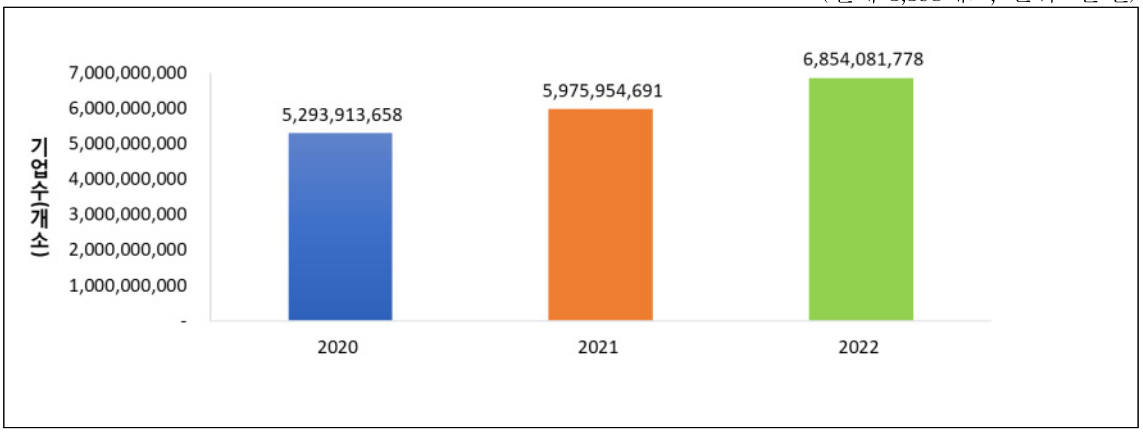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매출액

먼저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 총액은 다음 [그림 4-1]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22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6조 8천 5백억 원의 매출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8,78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0~2021년 사이의 약 6,820억 원의 매출 총액 증가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4-1] 매출 총액

(전체 3,398개소,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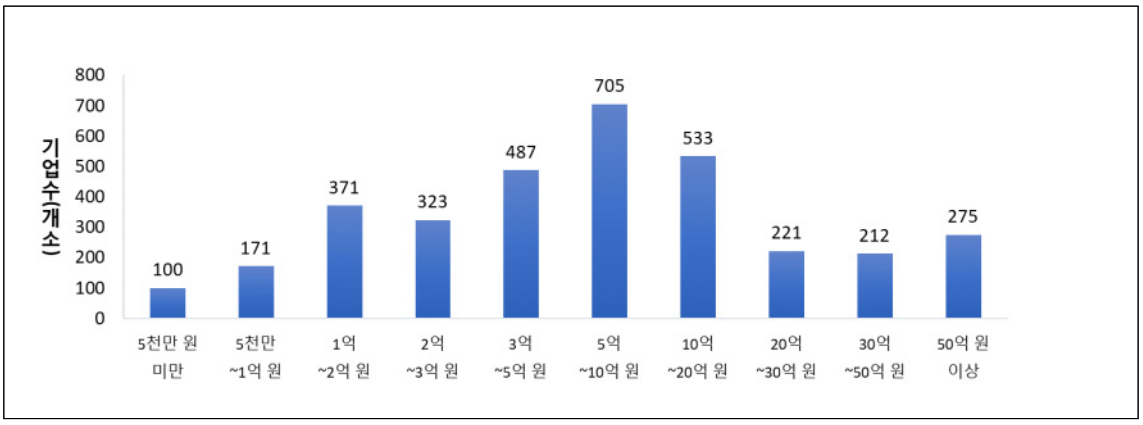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2]는 202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분포 및 매출액에 따른 기업 수이다. 전체 3,398개의 매출액이 있는 사회적기업 중 5억~10억 원 사이의 매출액을 달성한 곳이 705개소(2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억~20억 원 사이가 533개소(15.7%), 3억~5억 원 사이가 487개소(14.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2]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398개소,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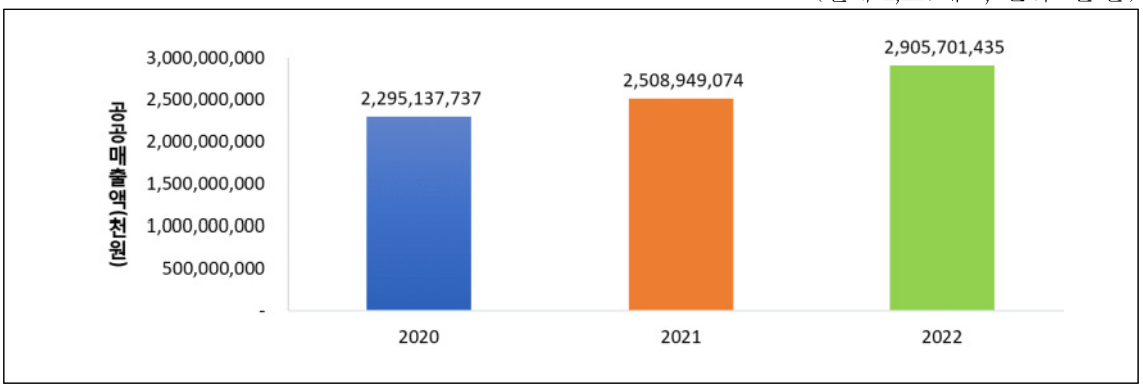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그림 4-3]~[그림 4-6]은 앞서 보고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3]과 같이, 2022년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227개소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 규모는 약 2조 9천 50억 원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4]를 통해 살펴보면,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72개소(16.7%)로 가장 많았고, 3억~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77개소(12.4%),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75개소(12.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3] 공공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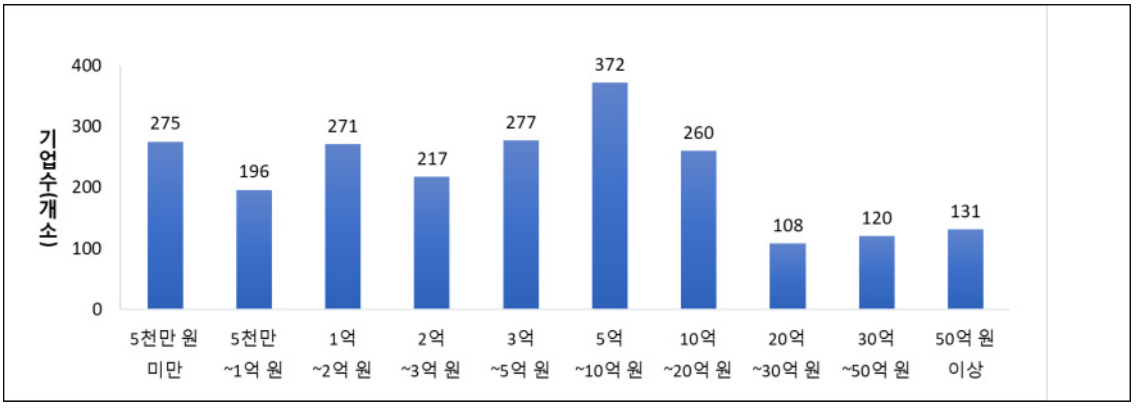
(전체 2,227개소, 단위 : 천 원)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4]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227개소,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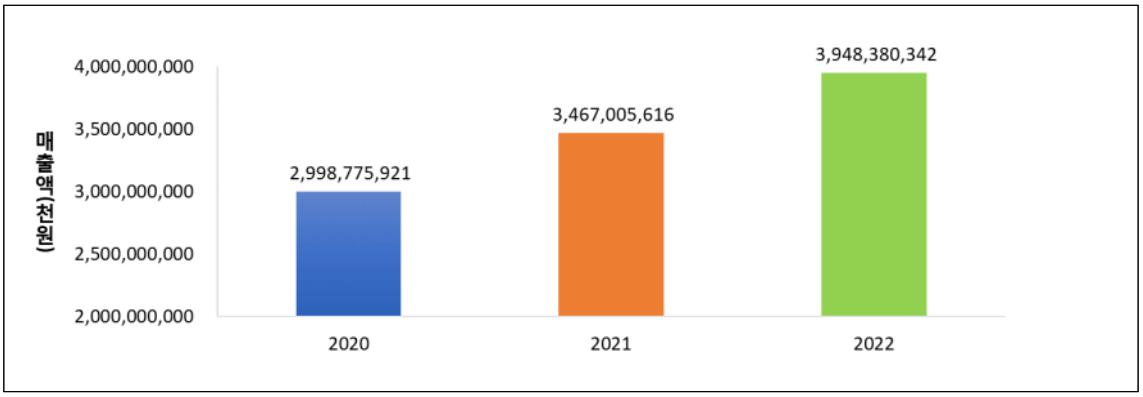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그림 4-5]와 같이, 민간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918개소이며 민간매출 총액의 평균은 약 3조 9천 4백 80억 원으로 공공매출에 비해 매출 규모가 더 컸고, 민간매출 역시 공공매출과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6]을 통해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는 1억~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474개소(1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442개소(15.2%), 3억~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92개소(13.4%),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45개소(11.8%)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4-5] 민간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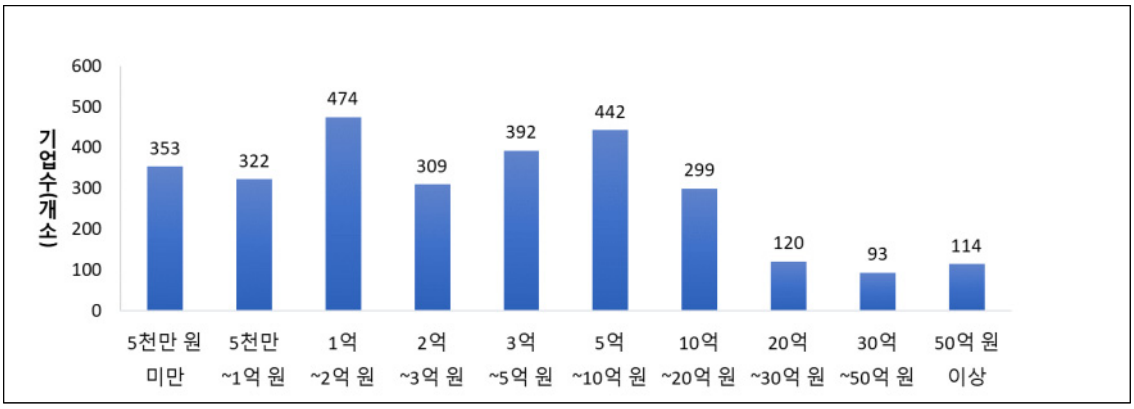
(전체 2,918개소, 단위 : 천 원)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6]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918개소, 단위 : 개소)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한편, 다음의 <표 4-1>과 [그림 4-7]은 2020~2022년도에 걸쳐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분포와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연도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매출액 분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5~10억 원, 30억~50억 원,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1억~2억 원 사이 매출 규모의 사회적기업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표 4-1> 연도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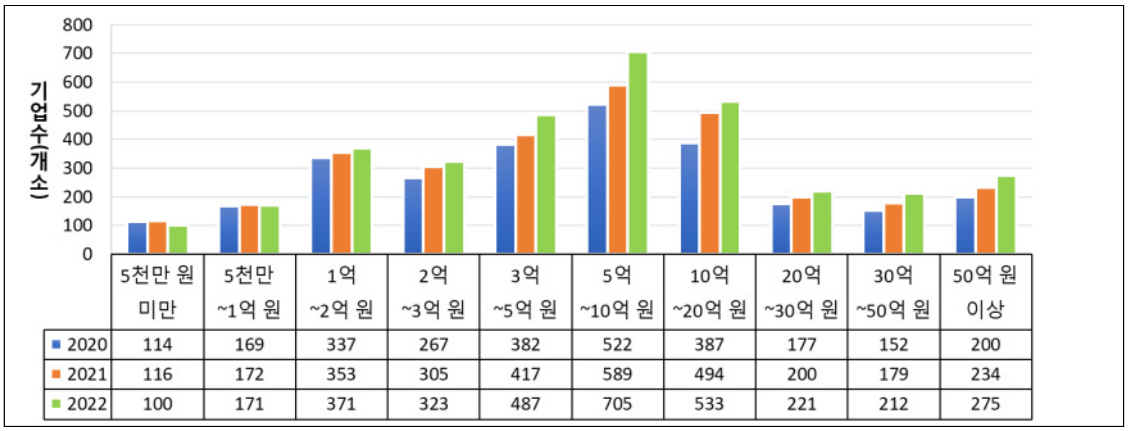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114	4.2	116	3.8	100	2.9
5천만 ~ 1억 원	169	6.2	172	5.6	171	5.0
1억 ~ 2억 원	337	12.4	353	11.5	371	10.9
2억 ~ 3억 원	267	9.9	305	10.1	323	9.5
3억 ~ 5억 원	382	14.1	417	13.6	487	14.3
5 ~ 10억 원	522	19.3	589	19.3	705	20.7
10억 ~ 20억 원	387	14.3	494	16.1	533	15.7
20억 ~ 30억 원	177	6.5	200	6.5	221	6.5
30억 ~ 50억 원	152	5.6	179	5.9	212	6.2
50 억원 이상	200	7.4	234	7.6	275	8.1
합계	2,707	100.0	3,059	100.0	3,398	100.0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7] 연도 및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리고 <표 4-2>와 [그림 4-8]의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추이와 유사하게 큰 변동은 없으나, 대체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표 4-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에서 5억~10억 원, 2억~3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2> 연도별 공공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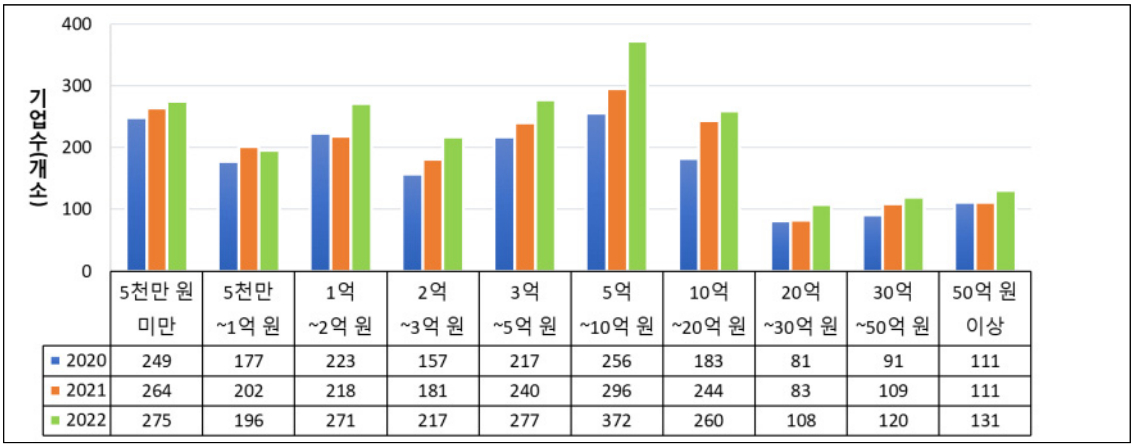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249	14.3	264	13.6	275	12.3
5천만 ~ 1억 원	177	10.1	202	10.4	196	8.8
1억 ~ 2억 원	223	12.8	218	11.2	271	12.2
2억 ~ 3억 원	157	9.0	181	9.3	217	9.7
3억 ~ 5억 원	217	12.4	240	12.3	277	12.4
5억~ 10억 원	256	14.7	296	15.2	372	16.7
10억 ~ 20억 원	183	10.5	244	12.5	260	11.7
20억 ~ 30억 원	81	4.6	83	4.3	108	4.8
30억 ~ 50억 원	91	5.2	109	5.6	120	5.4
50억 원 이상	111	6.4	111	5.6	131	5.9
합계	1,745	100.0	1,948	100.0	2,227	100.0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8]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한편, <표 4-3>과 [그림 4-9]의 연도별 민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그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을 보면, 50억 원 이상, 30억~50억 원, 3억~5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1억~2억 원, 5억~10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4-3> 연도별 민간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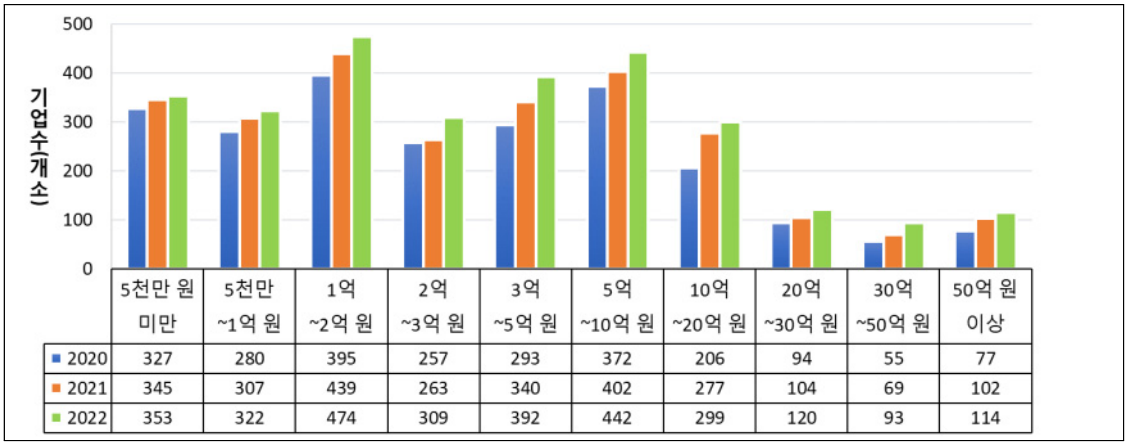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327	13.9	345	13.0	353	12.1
5천만 ~ 1억 원	280	11.9	307	11.6	322	11.0
1억 ~ 2억 원	395	16.8	439	16.6	474	16.2
2억 ~ 3억 원	257	10.9	263	9.9	309	10.6
3억 ~ 5억 원	293	12.4	340	12.8	392	13.4
5 ~ 10억 원	372	15.8	402	15.2	442	15.1
10억 ~ 20억 원	206	8.7	277	10.5	299	10.2
20억 ~ 30억 원	94	4.0	104	3.9	120	4.1
30억 ~ 50억 원	55	2.3	69	2.6	93	3.2
50억 원 이상	77	3.3	102	3.9	114	3.9
합계	2,356	100.0	2,648	100.0	2,918	100.0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9]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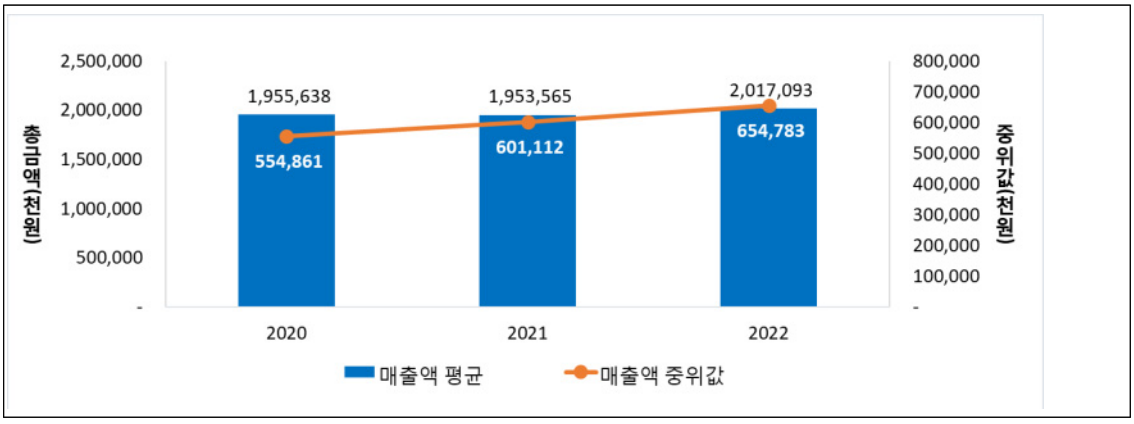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10]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매출액 평균은 근소하게 증감이 있었다. 2020년(약 19억 5천 5백만 원)에 비해 2021년(약 19억 5천 3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0.1%의 하락률을 보였으나, 2022년(약 20억 1천 7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3.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면서 매출액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중위값은 2021년에 약 8.3%의 상승률을, 2022년에는 약 8.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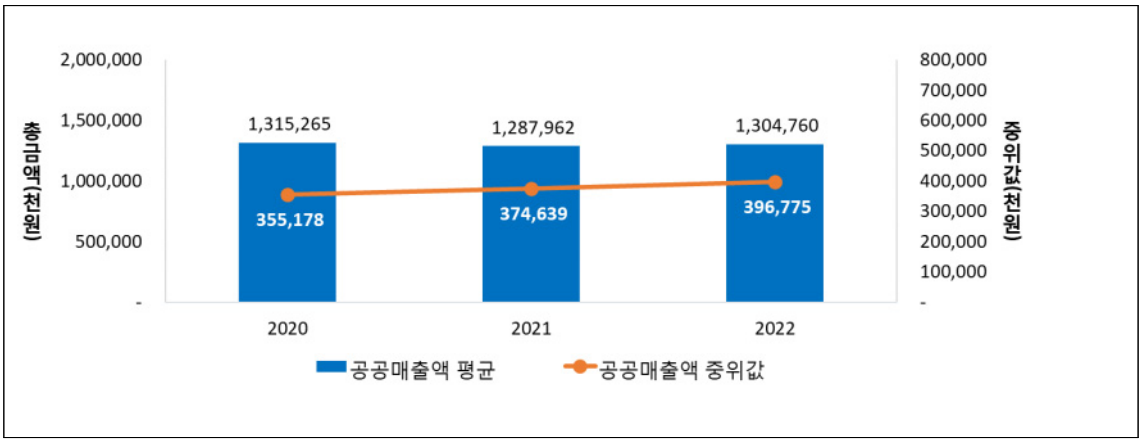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11]과 [그림 4-12]는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매출액의 평균은 2021년 약 13억 2천만 원에서 2021년 약 12억 8천만 원(전년 대비 -2.1%)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13억 5천만 원(전년 대비 1.3%)으로 증가하였다. 중위값은 2020년 약 3억 6천만 원에서 2021년 약 3억 7천만 원(전년 대비 5.5% 증가)으로, 2022년에는 3억 9천만 원(전년 대비 5.9% 증가) 계속 증가하였다. 민간매출액의 평균 또한 2020년 약 12억 7천만 원에서 2021년 약 13억 1천만 원(전년 대비 2.9% 증가)으로, 2022년에는 13억 5천만 원(전년 대비 3.4% 증가)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민간매출액의 중위값은 2020년 약 2억 6천만 원에서 2021년 약 2억 8천만 원(전년 대비 1.6% 증가), 2022년에는 3억 원(전년 대비 5.9% 증가)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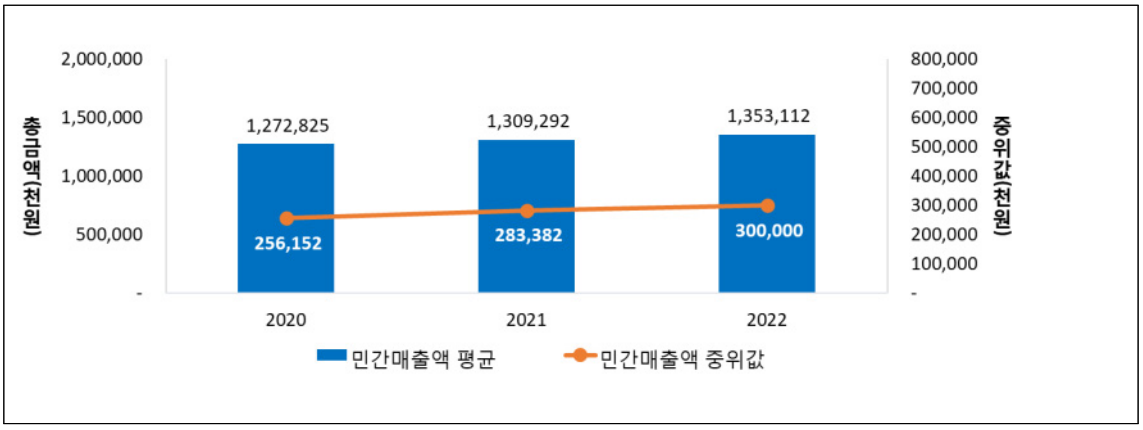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그림 4-12]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으로 아래 <표 4-4>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 평균과 중위값을 총매출액과 공공/민간시장매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고 총매출액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년과 같이 서울(약 40억 6천만 원, 573개소)이었고, 다음으로 경기(약 23억 2천만 원, 604개소), 경북(약 20억 2천만 원, 233개소), 충북(약 17억 2천만 원, 14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9억 9천만 원), 전북(약 7억 5천만 원), 서울(약 7억 1천만 원), 울산(약 6억 8천만 원) 순이었다. 세종을 제외하면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20억 원, 390개소)이었고, 경기(약 18억 1천만 원, 441개소), 강원(약 13억 9천만 원, 111개소)과 광주(약 13억 9천만 원, 84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민간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31억 1천만 원, 495개소)이었고, 경북(약 16억 8천만 원, 213개소), 경기(약 12억 6천만 원, 484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장매출 평균이 민간시장매출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이었으며, 반대로 민간시장매출 평균이 공공시장매출 평균보다 더 큰 지역은 서울, 대전,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기업의 분포 및 특성,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공공기관들의 입지 등 여러 요인의 지역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 지역별 매출액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	4,065,416	573	713,511
	공공시장매출	2,021,545	390	380,941
	민간시장매출	3,113,294	495	348,665
부산	매출	994,516	157	480,052
	공공시장매출	860,360	99	329,452
	민간시장매출	521,789	136	205,146
대구	매출	930,651	127	507,296
	공공시장매출	622,866	89	270,533
	민간시장매출	570,523	110	235,385
인천	매출	1,438,057	199	635,993
	공공시장매출	1,024,235	131	332,020
	민간시장매출	873,555	174	268,329
광주	매출	1,440,549	140	602,849
	공공시장매출	1,394,603	84	406,202
	민간시장매출	676,242	125	325,603
대전	매출	1,304,063	110	456,801
	공공시장매출	664,158	69	239,501
	민간시장매출	1,038,511	94	245,611
울산	매출	1,104,058	113	685,892
	공공시장매출	686,051	72	334,243
	민간시장매출	704,325	107	309,456

<표 4-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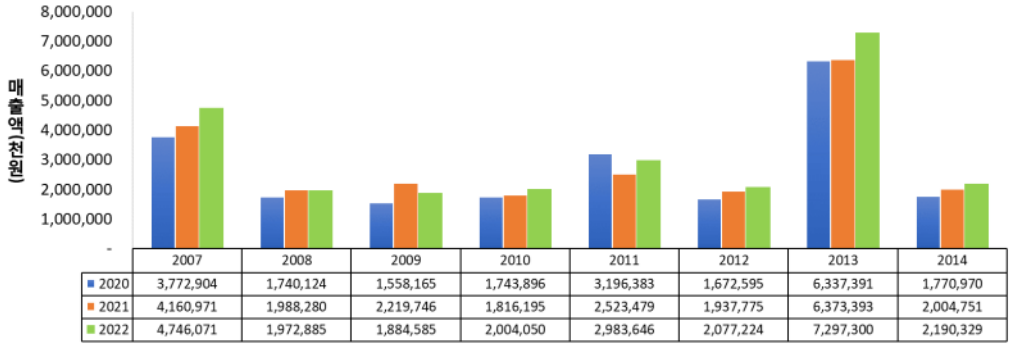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세종	매출	1,724,625	26	790,249
	공공시장매출	1,222,172	20	552,265
	민간시장매출	886,818	23	99,726
경기	매출	2,328,925	604	991,424
	공공시장매출	1,801,407	441	720,937
	민간시장매출	1,264,980	484	359,371
강원	매출	1,388,765	190	424,502
	공공시장매출	1,392,652	111	264,240
	민간시장매출	674,574	162	241,826
충북	매출	1,720,301	140	667,966
	공공시장매출	1,116,638	99	522,329
	민간시장매출	1,142,938	114	243,507
충남	매출	1,414,333	139	594,591
	공공시장매출	1,012,771	97	452,897
	민간시장매출	793,173	124	241,738
전북	매출	1,503,643	195	750,069
	공공시장매출	940,329	145	423,319
	민간시장매출	933,707	168	254,638
전남	매출	1,167,588	190	442,890
	공공시장매출	829,018	96	269,182
	민간시장매출	894,692	159	280,094
경북	매출	2,020,110	233	662,143
	공공시장매출	858,347	131	316,982
	민간시장매출	1,681,888	213	327,248
경남	매출	1,430,731	179	475,030
	공공시장매출	882,489	106	357,318
	민간시장매출	1,042,032	156	251,043
제주	매출	1,199,538	83	678,507
	공공시장매출	552,954	47	320,102
	민간시장매출	994,227	74	374,093
전체	매출	2,017,093	3,398	654,783
	공공시장매출	1,304,760	2,227	396,775
	민간시장매출	1,353,112	2,918	300,000

주 : 매출액, 공공매출액,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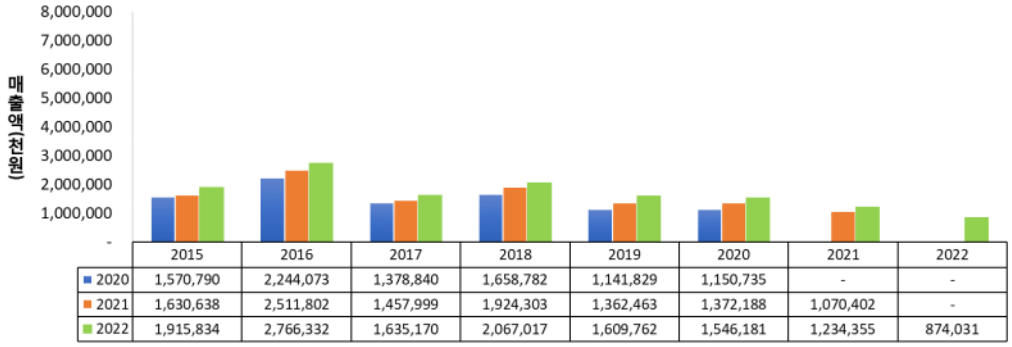
다음 [그림 4-13]은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이 2020~2022년 동안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균값은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2013년 인증기업이 모두 고르게 높은 매출액을 보고한다기보다는 2013년에 인증받은 특정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다른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2020~2022년에 걸쳐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22년 평균 매출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약 72억 원), 2007년(약 47억 원), 2011년(약 29억 원), 2016년(약 27억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4-13]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20	3,772,904	1,740,124	1,558,165	1,743,896	3,196,383	1,672,595	6,337,391	1,770,970
2021	4,160,971	1,988,280	2,219,746	1,816,195	2,523,479	1,937,775	6,373,393	2,004,751
2022	4,746,071	1,972,885	1,884,585	2,004,050	2,983,646	2,077,224	7,297,300	2,19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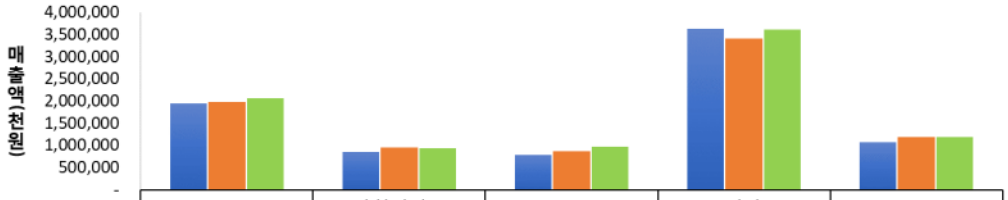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1,570,790	2,244,073	1,378,840	1,658,782	1,141,829	1,150,735	-	-
2021	1,630,638	2,511,802	1,457,999	1,924,303	1,362,463	1,372,188	1,070,402	-
2022	1,915,834	2,766,332	1,635,170	2,067,017	1,609,762	1,546,181	1,234,355	874,031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인증유형별로 살펴본 분석 내용은 [그림 4-14]와 같다.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부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합형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자리 제공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은 평균 매출액이 2021년에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 원)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0	1,960,273	858,433	807,726	3,640,469	1,090,883
2021	1,987,844	969,848	884,720	3,427,056	1,210,649
2022	2,073,889	944,124	977,025	3,621,021	1,198,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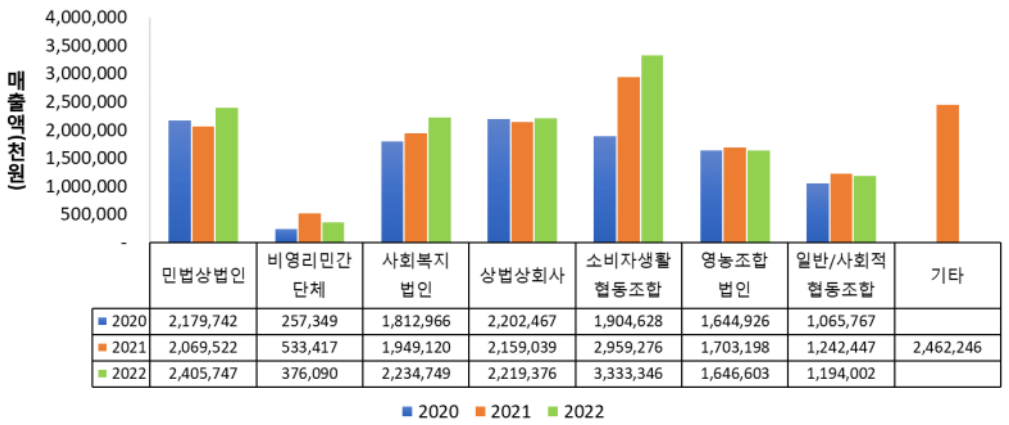
2020 2021 2022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연도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내용을 아래 [그림 4-15]에서 제시하였다. 사회복지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민법상법인과 상법상회사는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21년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림 4-15]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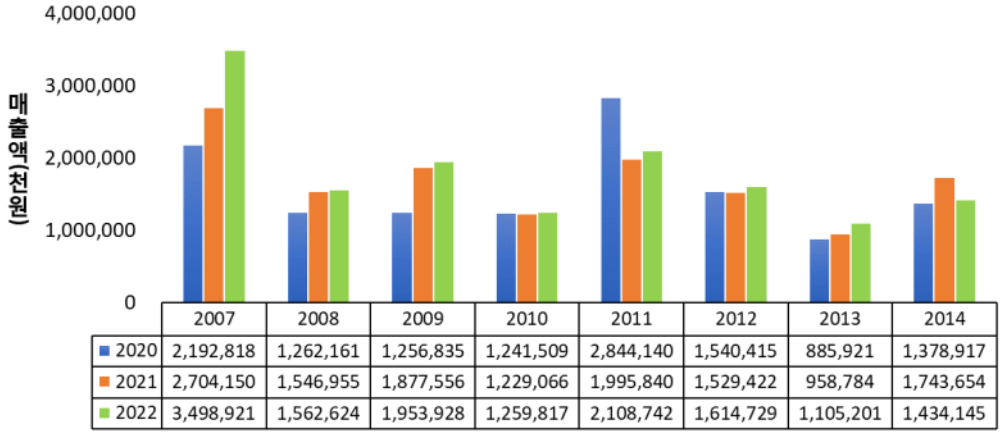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기타
2020	2,179,742	257,349	1,812,966	2,202,467	1,904,628	1,644,926	1,065,767	
2021	2,069,522	533,417	1,949,120	2,159,039	2,959,276	1,703,198	1,242,447	2,462,246
2022	2,405,747	376,090	2,234,749	2,219,376	3,333,346	1,646,603	1,194,002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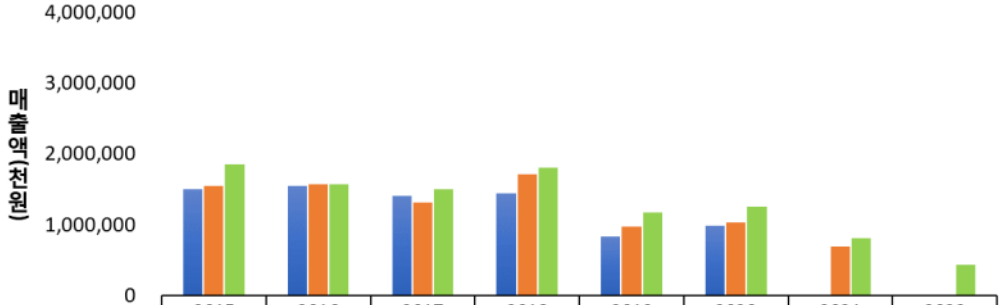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 4-16]는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공공매출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2020~2022년 기간 중 2007년과 2011년 인증기업이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2010년, 2011년, 2017년 인증기업은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2014년 인증기업은 2021년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외 연도의 인증기업은 지속적으로 공공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공공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2007년(약 34억 원) 인증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2013년(약 10억 1천만 원)과 2021년(8억 2천만 원), 2022년(약 4억 4천만 원) 인증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 천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20	2,192,818	1,262,161	1,256,835	1,241,509	2,844,140	1,540,415	885,921	1,378,917
2021	2,704,150	1,546,955	1,877,556	1,229,066	1,995,840	1,529,422	958,784	1,743,654
2022	3,498,921	1,562,624	1,953,928	1,259,817	2,108,742	1,614,729	1,105,201	1,43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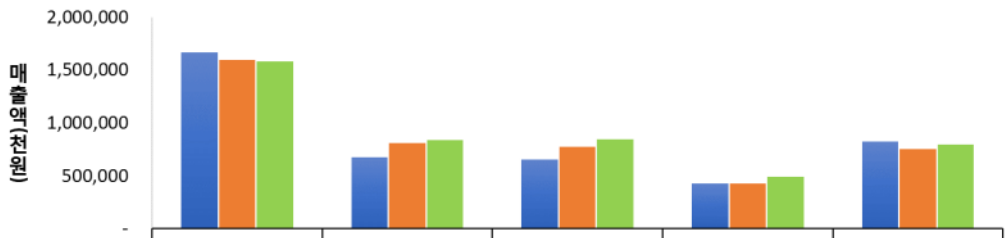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1,510,769	1,556,334	1,423,794	1,450,198	843,946	995,723	0	0
2021	1,563,757	1,580,581	1,327,518	1,724,021	983,457	1,049,701	698,954	0
2022	1,869,427	1,583,253	1,511,373	1,820,054	1,186,579	1,262,324	820,166	442,329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인증유형별로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를 아래 [그림 4-17]을 통해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대로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공공매출액 평균이 가장 낮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 2021년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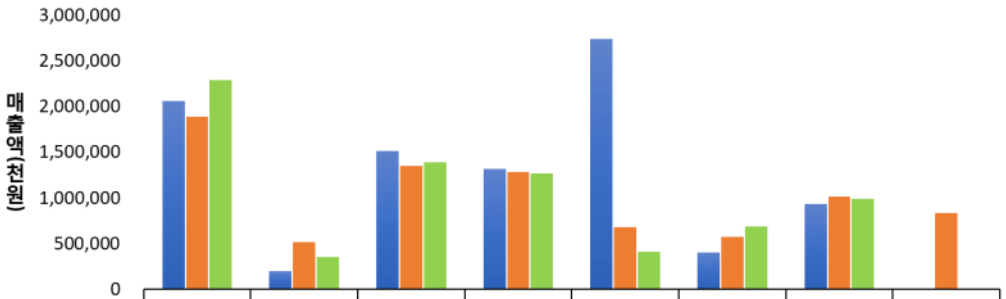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지역사회 공헌형
2020	1,672,054	680,801	660,788	435,607	829,083
2021	1,599,609	814,479	782,877	437,715	759,115
2022	1,591,060	848,321	852,247	499,717	799,082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리고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는 [그림 4-18]에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직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 유일했으며, 반대로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민법상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2021년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비영리민간단체와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8]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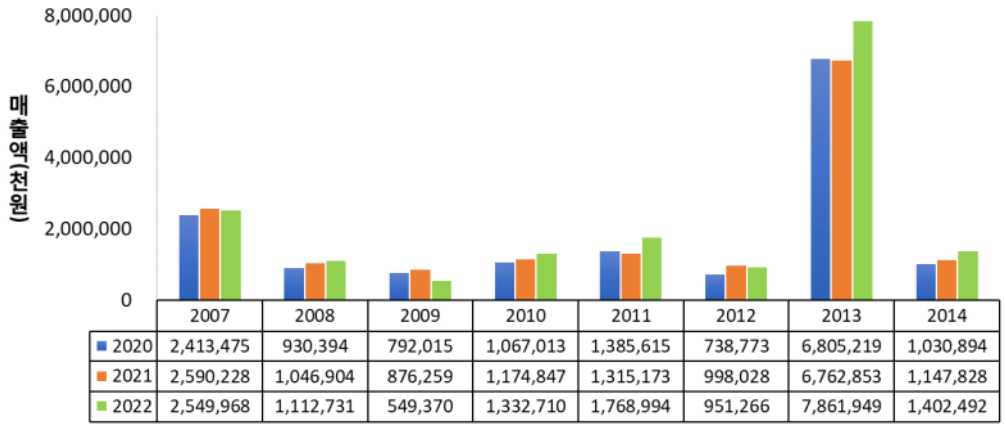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상법상 회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2020	2,066,328	201,723	1,518,031	1,325,763	2,746,654	406,046	940,117	0
2021	1,898,761	519,766	1,356,654	1,288,470	686,790	580,335	1,021,779	840,874
2022	2,299,743	357,704	1,395,132	1,276,939	419,530	695,841	998,280	0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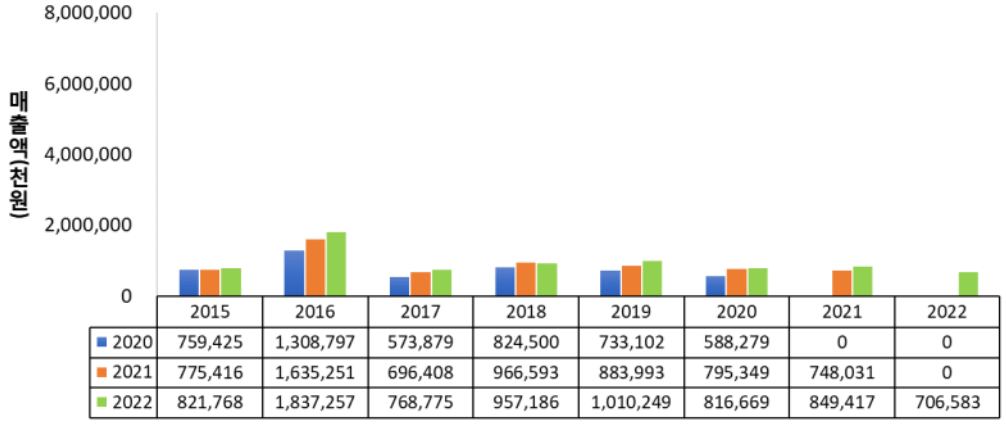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민간매출액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 4-19]에서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인다. 2013년 인증기업의 민간매출액 평균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큰 특정기업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외 인증연도의 사회적기업의 민간매출액은 2009년 인증기업(약 5억 4천만 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10억 원 안팎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 천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20	2,413,475	930,394	792,015	1,067,013	1,385,615	738,773	6,805,219	1,030,894
2021	2,590,228	1,046,904	876,259	1,174,847	1,315,173	998,028	6,762,853	1,147,828
2022	2,549,968	1,112,731	549,370	1,332,710	1,768,994	951,266	7,861,949	1,402,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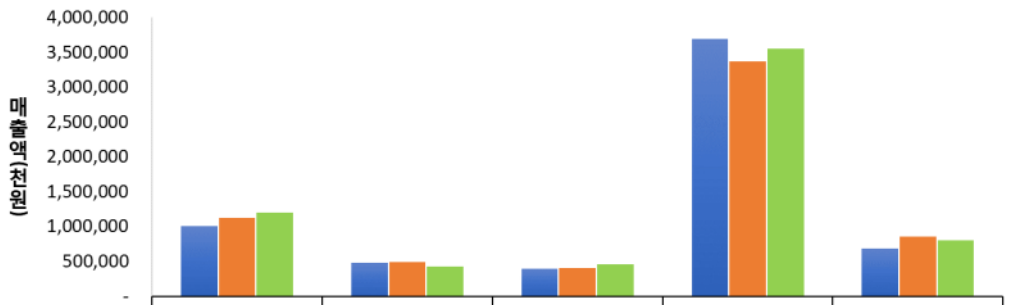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759,425	1,308,797	573,879	824,500	733,102	588,279	0	0
2021	775,416	1,635,251	696,408	966,593	883,993	795,349	748,031	0
2022	821,768	1,837,257	768,775	957,186	1,010,249	816,669	849,417	706,583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인증유형별로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0]과 같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평균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민간매출액 규모가 월등히 큰 특정 사회적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인증되어있어 극단값이 유형별 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은 2021년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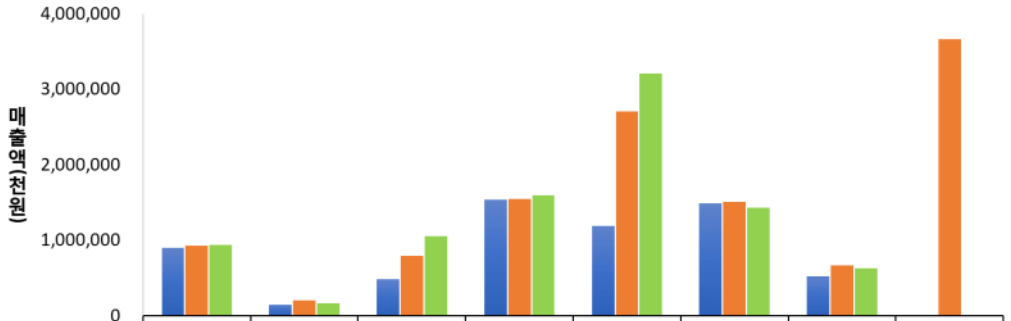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0	1,014,515	485,565	404,149	3,706,270	689,522
2021	1,130,718	504,697	416,137	3,382,944	860,974
2022	1,209,738	439,280	468,666	3,557,683	815,569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21]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의 민간매출액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상법상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소폭 감소 이후 2021년 소폭 상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급속도의 증가를 보였다. 그 외 민법상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역시 2020년까지 감소하다 2021년 소폭 상승을 이루었다.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 천 원)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2020	910,224	156,603	487,531	1,546,466	1,200,702	1,500,122	529,620	0
2021	938,990	207,454	803,202	1,551,286	2,709,535	1,514,223	671,843	3,663,181
2022	941,348	169,642	1,062,214	1,600,589	3,218,929	1,436,199	633,549	0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2. 영업이익(손실)

다음으로 2022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회계처리 기준 변화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2016년 이전 인증사회적기업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제17장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지원 항목인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참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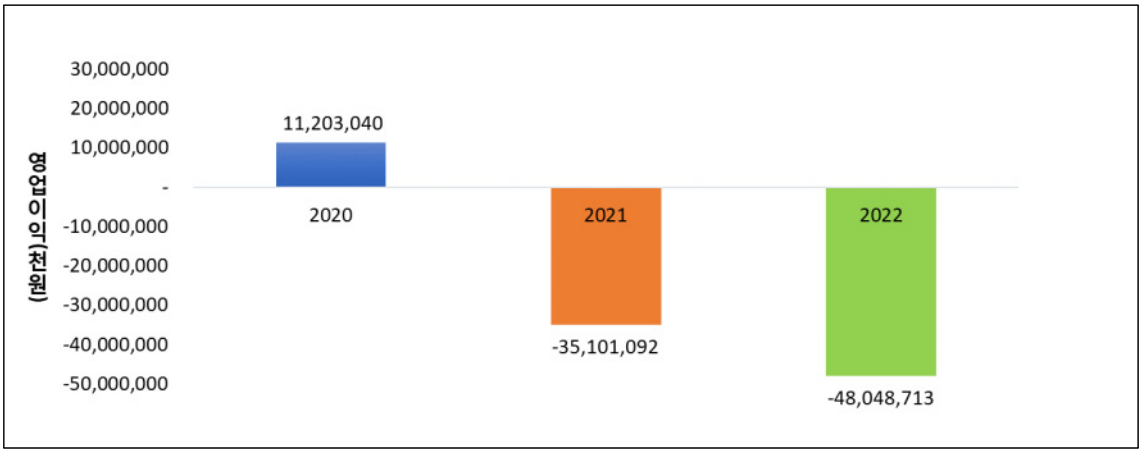
(제17장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 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 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다음의 [그림 4-22]는 2020~2022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20년 약 112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약 35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129억 원이 감소하여 48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손실 및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가계경제 악화, 수출 제한 등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연도별 변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외부 경영환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후 사업보고서 제출 및 집계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2]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전체 3,403개소,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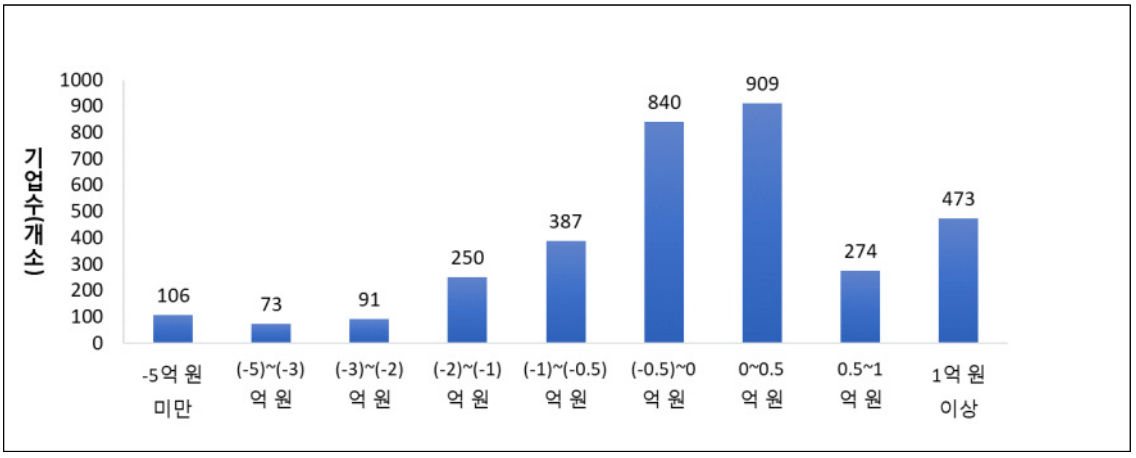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그림 4-2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도에는 전체 3,403개의 사회적기업 중 48.7%인 1,656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51.3%인 1,747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0~5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회적기업이 26.7%(909개소)로 가장 많았고,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24.7%(840개소)로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5천만 원~1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8.1%(274개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13.9%(473개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11.4%(387개소)로 나타났고, -3억 원~-2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2.7(91개소), -5억 원~-3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2.1(73개소), -5억 원 미만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도 3.1%(106개소)에 달했다.

[그림 4-23]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403개소, 단위 : 개소)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으로 <표 4-5>와 [그림 4-24]는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의 규모는 최근 3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표 4-5>를 보면 2022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1,656개소였으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수 또한 1,747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원 미만, -2억 원~1억 원, -1억 원~-5천만 원 구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5억 원~-3억 원 구간은 2021년 증가하였다가 2022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3억 원~-2억 원 구간은 2021년 감소했다가 2022년 증가하는 추세를, -2억 원~1억 원 구간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2021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4-5>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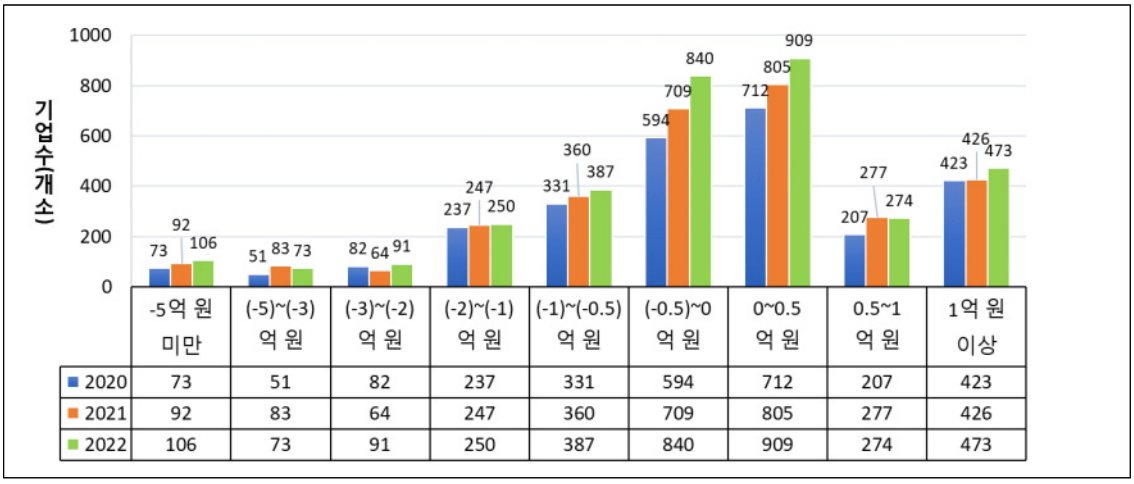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억원 미만	73	2.7	92	3.0	106	3.1
-5억원 ~ -3억원	51	1.9	83	2.7	73	2.1
-3억원 ~ -2억원	82	3.0	64	2.1	91	2.7
-2억원 ~ -1억원	237	8.7	247	8.1	250	7.3
-1억원 ~ -5천만원	331	12.2	360	11.8	387	11.4
-5천만원 ~ 0원	594	21.9	709	23.1	840	24.7
0원 ~ 5천만원	712	26.3	805	26.3	909	26.7
5천만원 ~ 1억원	207	7.6	277	9.0	274	8.1
1억원 이상	423	15.6	426	13.9	473	13.9
합계	2,710	100.0	3,063	100.0	3,403	100.0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24]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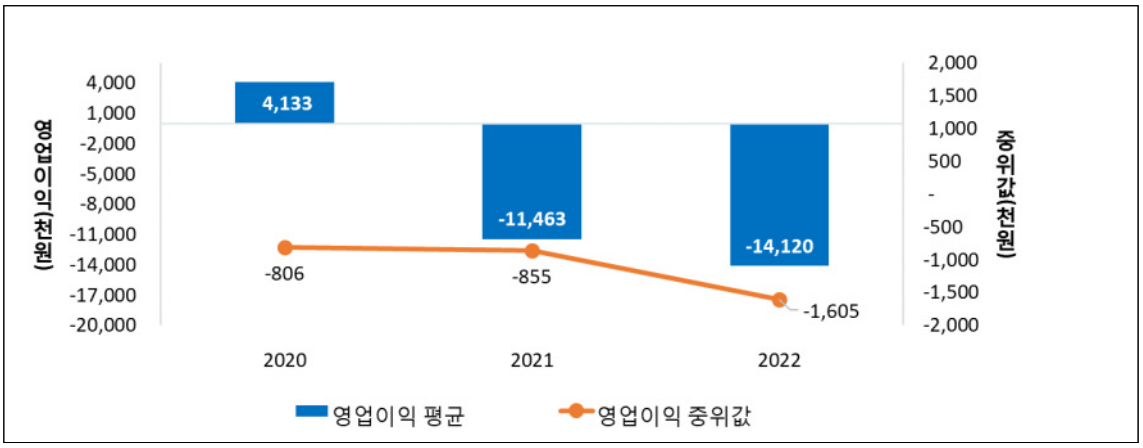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앞서 영업이익 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영업이익 평균과 중위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25]와 같이, 평균 영업이익은 2020년 약 4백 10만 원에서 2021년 약 마이너스 1천 1백 50만 원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2022년에는 약 -1천 4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 또한 2020년에 약 마이너스 8십만 원에서, 2021년 약 마이너스 8백 6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백 6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25]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한편, <표 4-6>는 영업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지역별로 영업이익(손실)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1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분포된 세종을 제외하면, 평균 영업이익이 0원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남이 약 3천 9백만 원(180개소)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1천 7백만 원(190개소), 광주 약 1천 1백만 원(140개소), 경북 9백만 원(234개소), 충남 4백만 원(139개소)로 총 5개 지역만이 0보다 큰 평균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영업손실이 나타난 지역은 서울이 약 -5천 8백만 원(576개소), 제주 약 -5천 1백만 원(83개소), 대전 약 -3천 7백만 원(109개소), 강원 약 -3천 6백만 원(191개소)의 순으로 총 12개 지역에서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은 평균 영업이익이 0원보다 높았던 경남, 전남, 광주, 경북, 충남과 인천이 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영업손실의 중위값을 보고하였다.

<표 4-6>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58,281	576	-12,157
부산	-15,467	157	-7,944
대구	-13,717	127	-3,304
인천	-1,636	199	535
광주	10,595	140	15,347
대전	-37,234	109	-12,989
울산	-10,457	113	-5,311
세종	-4,323	26	-15,158
경기	-5,166	605	2,427
강원	-36,722	191	-14,632
충북	-27,827	140	2,805
충남	4,475	139	609
전북	-4,861	194	-428
전남	16,726	190	2,957
경북	9,471	234	3,031
경남	39,380	180	2,398
제주	-51,086	83	-22,704
전체	-14,120	3,403	-1,605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그림 4-26]은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손실)이다. 전반적으로 2007~2012년과 같이 초창기에 인증받은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2013년, 2018년, 2020년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2013과 2018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2020~2022년 최근 3년간 약 1천만 원~ 6천만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2013년에 인증을 받은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4-26]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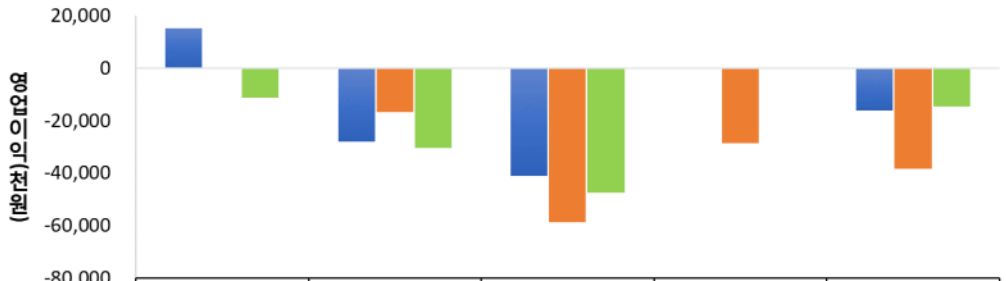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27]은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2022년 기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년 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전년 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일자리제공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 외 인증유형들은 2021년도에 평균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가 2022년도에 다시 증감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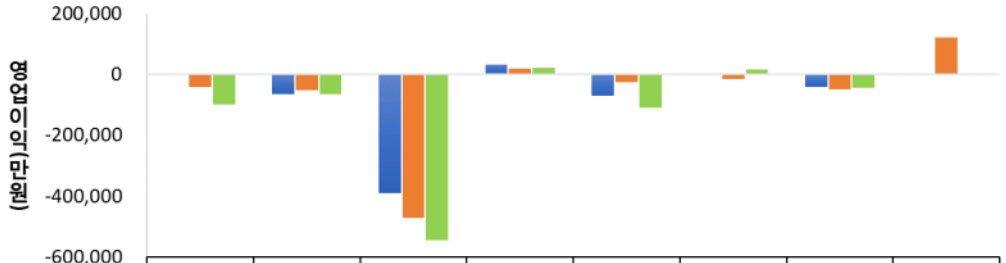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0	15,463	-28,389	-41,287	-442	-16,462
2021	85	-17,203	-59,093	-28,872	-38,617
2022	-11,542	-30,759	-47,761	368	-15,049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28]은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상법상회사와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영업손실은 대체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2020년 약 3천 5백만 원, 2021년 약 2천 2백만 원, 2022년 2천 3백만 원으로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20년 약 3백만 원, 2021년 약 -1천 8백만 원, 2022년에는 1천 9백만 원으로 2022년에 들어 영업이익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에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가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 천 원)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기타
2020	3,483	-68,637	-391,887	34,762	-72,929	2,963	-43,594	0
2021	-44,367	-54,152	-473,244	22,014	-29,265	-17,589	-51,812	123,836
2022	-101,872	-69,306	-548,775	23,198	-112,732	19,151	-48,45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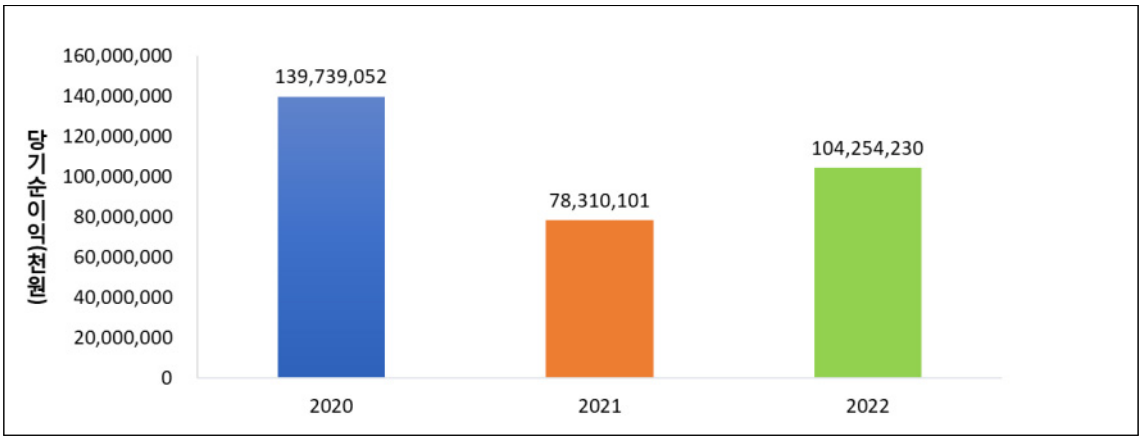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3. 당기순이익(손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29]는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2022년 사회적기업은 전년 대비 약 33.1% 증가한 1천 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29]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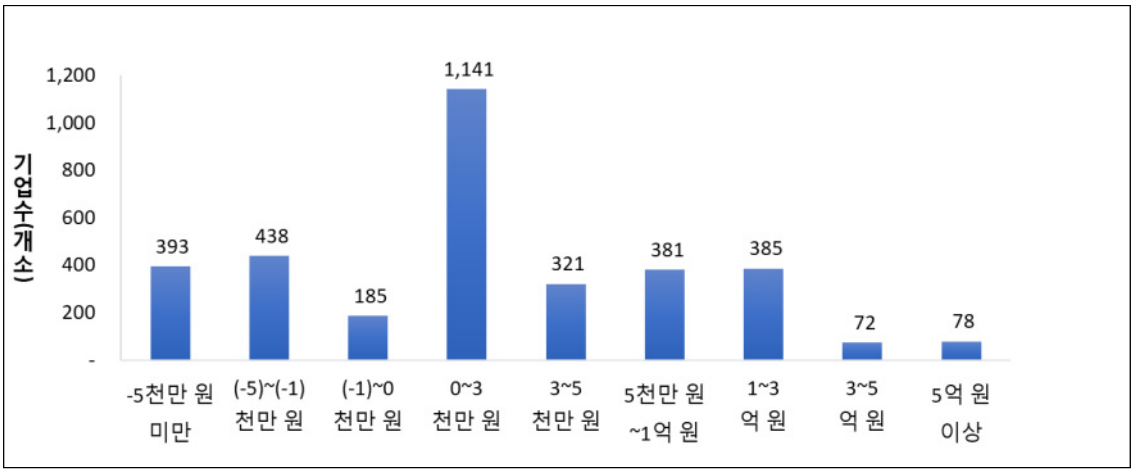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30]은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394개소 중 0~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33.6%(1,141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천만 원~1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12.9%(483개소), 5천만 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11.6%(393개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2.1%(72개소), 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2.3%(78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4-30]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394개소, 단위 : 개소)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4-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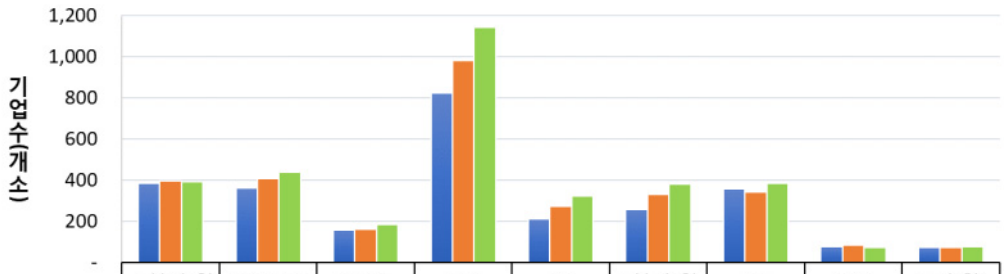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천만원 미만	383	14.2	395	12.9	393	11.6
-5천만원 ~ -1천만원	362	13.4	407	13.3	438	12.9
-1천만원 ~ 0원	159	5.9	162	5.3	185	5.5
0원 ~ 3천만원	822	30.4	979	32.4	1141	33.6
3천만원 ~ 5천만원	212	7.8	274	8.9	321	9.5
5천만원 ~ 1억원	257	9.5	332	10.8	381	11.2
1억원 ~ 3억원	359	13.3	344	11.2	385	11.3
3억원 ~ 5억원	75	2.8	85	2.8	72	2.1
5억원 이상	73	2.7	72	2.4	78	2.3
합계	2,702	100.0	3,050	100.0	3,394	100.0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손실)의 기업별 분포의 변화를 다음 [그림 4-3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는 유사한 패턴으로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가장 많은 분포구간인 0~3천만 원 구간은 2020년부터 지속 증가하여 2022년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별 기업 수 또한 구간별로 대체로 증가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에서의 이익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3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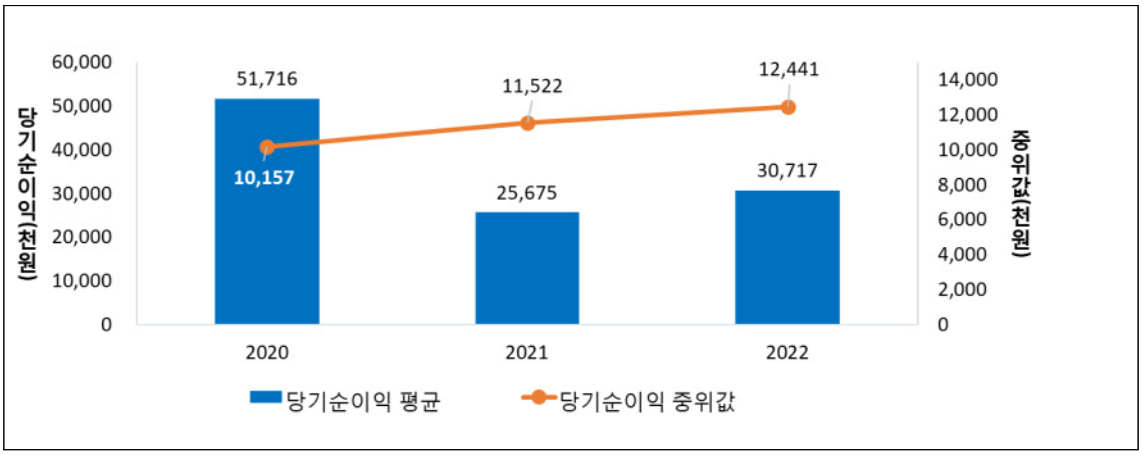
	-5천만 원 미만	(-5)~(-1) 천만 원	(-1)~0 천만 원	0~3 천만 원	3~5 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1~3 억 원	3~5 억 원	5억 원 이상
2020	383	362	159	822	212	257	359	75	73
2021	395	407	162	979	274	332	344	85	72
2022	393	438	185	1,141	321	381	385	72	78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 [그림 4-32]은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 및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은 2020년 약 5천 2백만 원에서 2021년 2천 6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약 3천 1백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손실)의 중위값은 2020년 약 1천만 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1천 2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3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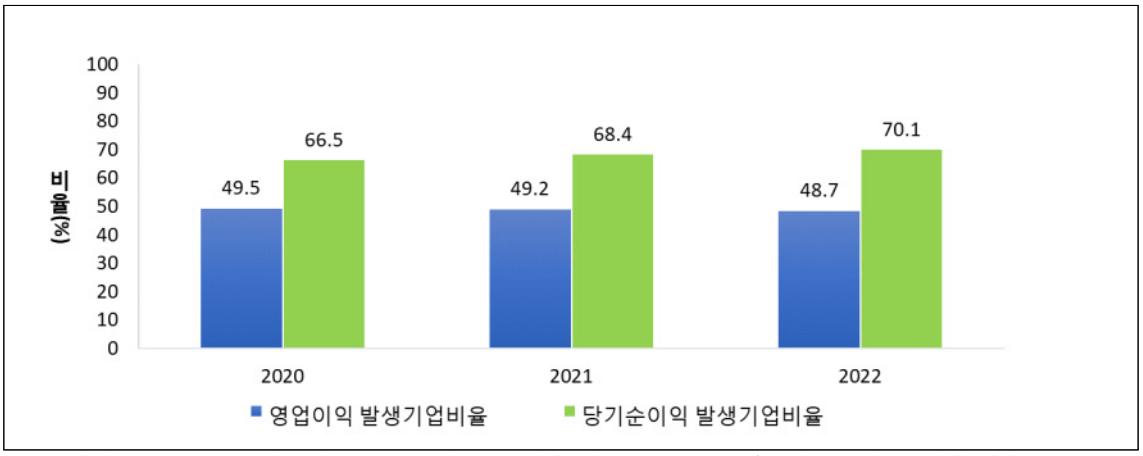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 [그림 4-3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당기순이익(손실)의 발생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2020년 49.5%에서 2021년 49.2%, 2022년 48.7%로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당기순이익 발생기업 비율은 2020년 66.5%에서 2021년 68.4%, 2022년 70.1%로 소폭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환경 및 성과의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3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단위 : %)



주 : 영업이익(손실) 및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 <표 4-8>은 2022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로, 경남(약 5천 1백만 원), 제주(약 5천만 원) 순으로 당기순이익(손실)이 높았으며, 서울(약 2백만 원), 대구(약 7백만 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위값으로 살펴보면, 광주(약 1천 9백만 원), 전남(약 1천 8백만 원)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에 대구(약 7백만 원)가 중위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2,366	576	10,167
부산	32,109	156	7,341
대구	6,993	127	7,054
인천	37,094	197	17,488
광주	46,706	139	19,760
대전	32,938	109	7,443
울산	19,987	112	12,593
세종	20,028	26	9,342
경기	49,079	604	17,468
강원	15,770	190	7,341
충북	29,598	140	12,787
충남	28,665	139	9,745
전북	39,351	193	17,521
전남	40,778	191	18,510
경북	31,523	233	16,195
경남	51,070	179	12,445
제주	50,688	83	9,612
전체	30,717	3,394	12,441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아래 [그림 4-34]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인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인증연도에 따른 추세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인증기업들은 2021년에 평균이 약 -6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다시 약 6백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손실)이 증가한 반면, 2019년 인증기업은 당기순이익(손실)이 2021년 약 1천 5백만 원에서 2022년 약 -7백만 원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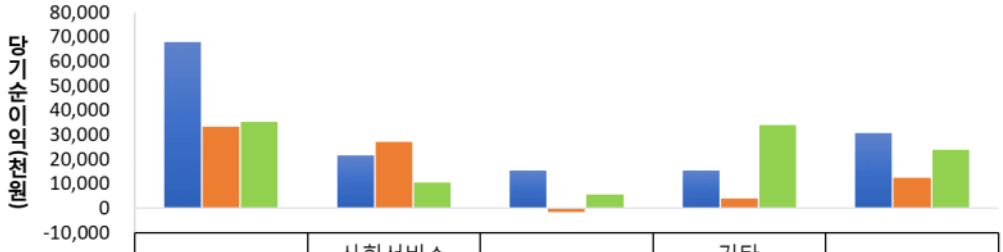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 [그림 4-35]는 최근 3년간의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을 보고하였고, 3개년 모두 일자리제공형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최근 3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전년 대비 2022년 당기순이익(손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타(창의·혁신)형은 전년 대비 2022년 당기순이익(손실)이 증가하였다.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 천 원)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0	67,990	21,789	15,513	15,571	30,833
2021	33,497	27,350	-1,867	4,108	12,831
2022	35,494	10,709	5,848	34,072	24,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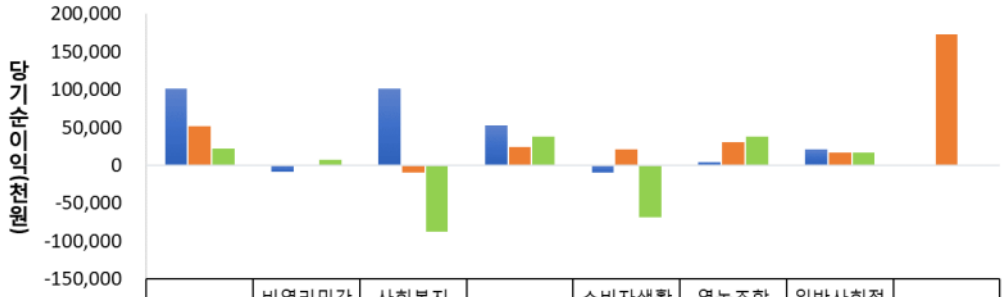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 [그림 4-36]은 최근 3년간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3년간 꾸준하게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2020년에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였다가 2021년부터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회복지 법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2022년 당기순손실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1>과 <표 부가분석 4-2>에서는 앞서 정리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총액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 천 원)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기타
2020	102,082	-9,847	102,732	53,714	-11,078	5,201	21,947	0
2021	52,397	755	-10,383	24,698	21,707	31,711	17,396	173,710
2022	22,892	8,304	-89,205	39,359	-69,901	38,491	17,706	0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재정성과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0, 2021, 2022)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천 원)

항목			2019	2020	2021
매출액	전체총액		5,293,913,658	5,975,954,691	6,854,081,778
	인증연도	2007	132,051,652	137,312,057	151,874,286
		2008	174,012,416	186,898,295	185,451,232
		2009	77,908,227	99,888,557	84,806,327
		2010	230,194,278	221,575,732	242,490,014
		2011	319,638,345	229,636,549	271,511,754
		2012	183,985,494	203,466,364	216,031,339
		2013	1,229,453,795	1,185,451,022	1,277,027,585
		2014	352,423,127	378,897,908	400,830,149
		2015	354,998,629	353,848,342	386,998,418
		2016	502,672,422	545,061,022	572,630,697
		2017	321,269,611	322,217,781	351,561,507
		2018	484,364,310	527,259,006	562,228,646
		2019	443,029,661	490,486,785	563,416,813
		2020	487,911,692	569,458,199	624,657,108
		2021	-	524,497,071	593,724,697
		2022	-	-	368,841,204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503,007,762	4,041,287,528	4,695,283,872
		사회서비스제공형	148,508,848	214,336,488	249,248,672
		혼합형	155,891,030	171,635,687	194,428,060
		기타형	1,259,602,359	1,250,875,303	1,361,503,770
		지역사회공헌형	226,903,660	297,819,684	353,617,40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601,608,669	703,637,605	716,912,751
		비영리민간단체	17,757,059	39,472,838	22,941,489
		사회복지법인	137,785,381	140,336,665	165,371,443
		상법상회사	3,942,416,613	4,300,806,456	5,046,861,05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046,278	32,552,040	36,666,808
		영농조합법인	162,847,705	170,319,820	194,299,14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12,451,954	578,980,284	671,029,083
		기타	-	9,848,983	-

항목			2020	2021	2022
공공 매출	전체총액		2,295,137,737	2,508,949,074	2,905,701,435
	인증 연도	2007	54,820,457	62,195,460	80,475,179
		2008	92,137,760	102,099,061	95,320,036
		2009	41,475,543	65,714,467	64,479,636
		2010	104,286,775	95,867,123	93,226,494
		2011	199,089,812	125,737,915	137,068,227
		2012	109,369,461	111,647,770	127,563,609
		2013	113,397,934	123,683,147	137,044,944
		2014	170,985,699	191,801,975	177,833,960
		2015	219,061,559	218,925,936	257,980,861
		2016	247,457,065	221,281,398	232,738,184
		2017	200,755,006	188,507,541	208,569,435
		2018	279,888,251	306,875,758	343,990,297
		2019	191,575,814	208,492,980	256,300,973
		2020	270,836,601	285,518,697	342,089,733
		2021	-	200,599,847	238,668,224
		2022	-	-	112,351,64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934,567,030	2,079,491,746	2,378,634,913
		사회서비스제공형	81,015,354	122,986,378	155,242,654
		혼합형	89,206,370	102,556,939	113,348,883
		기타형	95,833,530	100,674,409	123,430,204
		지역사회공헌형	94,515,452	103,239,603	135,044,78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405,000,226	459,500,189	501,344,037
		비영리민간단체	8,674,089	25,988,325	13,950,474
		사회복지법인	101,708,103	84,112,550	92,078,701
		상법상회사	1,520,650,396	1,601,568,236	1,893,700,6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239,961	2,747,159	1,258,591
		영농조합법인	15,835,786	24,954,423	32,008,66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35,029,177	307,555,572	371,360,307
		기타	-	2,522,621	-
민간 매출	전체총액		2,998,775,921	3,467,005,616	3,948,380,342
	인증 연도	2007	77,231,195	75,116,598	71,399,107
		2008	81,874,656	84,799,235	90,131,196
		2009	36,432,684	34,174,090	20,326,691
		2010	125,907,503	125,708,609	149,263,520
		2011	120,548,534	103,898,634	134,443,528
		2012	74,616,033	91,818,595	88,467,730
		2013	1,116,055,861	1,061,767,874	1,139,982,641
		2014	181,437,428	187,095,932	222,996,188

항목			2020	2021	2022
민간 매출	인증 연도	2015	135,937,070	134,922,406	129,017,557
		2016	255,215,357	323,779,624	339,892,513
		2017	120,514,605	133,710,240	142,992,072
		2018	204,476,059	220,383,248	218,238,349
		2019	251,453,847	281,993,805	307,115,840
		2020	217,075,090	283,939,503	282,567,375
		2021	-	323,897,224	355,056,473
		2022	-	-	256,489,56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568,440,732	1,961,795,782	2,316,648,959
		사회서비스제공형	67,493,493	91,350,110	94,006,019
		혼합형	66,684,659	69,078,748	81,079,177
		기타형	1,163,768,829	1,150,200,894	1,238,073,565
		지역사회공헌형	132,388,208	194,580,082	218,572,622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96,608,443	244,137,416	215,568,714
		비영리민간단체	9,082,970	13,484,513	8,991,015
		사회복지법인	36,077,278	56,224,115	73,292,742
		상법상회사	2,421,766,217	2,699,238,220	3,153,160,3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806,317	29,804,881	35,408,218
		영농조합법인	147,011,920	145,365,397	162,290,48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7,422,777	271,424,712	299,668,776
		기타	-	7,326,362	-
영업 이익	전체총액		11,203,041	-35,101,092	-48,048,714
	인증 연도	2007	-2,200,312	-3,656,806	1,468,543
		2008	-8,851,424	-9,845,804	-13,942,147
		2009	-3,757,256	-1,297,855	-3,783,918
		2010	-4,937,551	-5,354,492	-6,653,204
		2011	-1,081,588	-10,876,717	-8,291,970
		2012	-4,824,093	-5,426,890	-7,423,171
		2013	7,879,141	4,971,460	3,305,798
		2014	-6,183,125	-4,781,425	-1,098,851
		2015	-828,911	-101,758	2,803,948
		2016	1,000,177	-1,274,697	-705,570
		2017	10,467,426	-2,911,011	-4,111,456
		2018	18,059,302	13,499,826	4,731,230
		2019	-2,105,841	-6,545,001	-13,927,675
		2020	8,567,096	1,269,396	6,940,170
		2021	-	-2,769,318	-3,311,160
		2022	-	-	-4,049,28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7,647,629	172,825	-26,188,057
		사회서비스제공형	-4,939,758	-3,801,779	-8,151,144
		혼합형	-7,927,072	-11,405,037	-9,408,913
		기타형	-153,671	-10,567,223	138,724
		지역사회공헌형	-3,424,087	-9,499,878	-4,439,323

항목			2019	2020	202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961,351	-15,217,931	-30,459,819
		비영리민간단체	-4,804,594	-3,953,065	-4,089,028
		사회복지법인	-29,783,448	-34,073,544	-40,060,606
		상법상회사	62,223,880	43,873,455	52,868,5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29,286	-321,911	-1,240,048
		영농조합법인	293,288	-1,758,864	2,259,82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6,958,150	-24,144,576	-27,327,565
		기타	-	495,344	-
당기 순이익	전체총액		139,739,052	78,310,101	104,254,230
	인증 연도	2007	3,423,992	2,385,319	6,566,839
		2008	8,828,673	5,537,387	2,175,174
		2009	482,678	2,350,327	2,316,359
		2010	5,556,365	4,030,742	2,195,436
		2011	9,094,236	-542,973	529,037
		2012	5,198,081	3,408,312	2,324,713
		2013	11,117,849	9,734,538	3,320,095
		2014	-3,830,273	2,984,763	5,554,032
		2015	3,267,009	50,763	7,758,511
		2016	21,422,920	-16,490,167	9,194,226
		2017	17,099,127	2,111,594	4,038,344
		2018	29,102,130	23,052,862	11,149,497
		2019	7,146,046	5,653,552	-2,521,600
		2020	21,830,218	17,035,406	20,813,190
		2021	-	17,007,676	17,259,675
		2022	-	-	11,580,70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1,227,030	68,065,956	80,359,433
		사회서비스제공형	3,747,740	5,989,546	2,805,666
		혼합형	3,009,495	-358,461	1,157,892
		기타형	5,403,186	1,495,221	12,845,201
		지역사회공헌형	6,351,602	3,117,839	7,086,03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7,868,480	17,762,492	6,775,976
		비영리민간단체	-669,566	53,600	489,915
		사회복지법인	7,396,728	-716,418	-6,333,520
		상법상회사	96,201,890	49,172,769	89,580,6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0,777	238,782	-768,916
		영농조합법인	514,893	3,171,129	4,541,89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537,405	8,106,615	9,968,212
		기타	-	521,131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2)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천 원)

매출액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39,483,294	156,139,043	118,192,670	286,173,277	201,676,922	143,446,941	124,738,511	44,840,261	1,436,670,772	263,865,391	240,842,637	196,592,327	238,210,466	221,841,720	470,685,651	256,100,792	99,561,651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27,340,380	239,291,122	1,058,287	97,866,982	1,738,496,239	517,180,336	17,058,146	554,879,923	95,069,619	167,843,547	79,377,992	12,682,080	135,476,002	2,488,022,903	127,368,350	242,721,733	37,267,513
공공 매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88,402,683	85,175,674	55,435,094	134,174,767	117,146,683	45,826,923	49,335,707	24,443,437	794,420,471	154,584,403	110,547,148	98,238,820	136,347,738	79,355,730	112,443,449	93,543,866	25,988,817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54,635,264	139,241,007	345,913	18,523,793	257,663,343	298,572,586	6,665,902	274,379,221	210,438,764	75,163,320	42,970,456	1,557,025	57,181,537	1,237,870,905	51,032,027	196,608,537	12,881,894
민간 매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41,080,611	70,963,369	62,757,576	151,998,510	84,530,229	97,620,018	75,362,804	20,396,825	612,270,301	108,280,983	130,294,999	98,353,937	136,862,708	142,255,990	358,242,212	162,556,946	73,572,835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72,705,116	100,039,115	742,375	79,343,139	1,525,832,956	218,607,739	10,422,243	280,530,702	746,680,855	92,680,286	36,407,536	11,125,655	78,294,465	1,220,152,003	76,336,323	46,113,216	24,385,619

<표 부가분석 4-2> 계속

(단위 : 천 원)

영업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369,934	-2,428,392	-1,742,033	-325,466	1,483,332	-4,058,496	-1,181,621	-112,398	-3,125,405	-7,013,893	-3,895,830	622,042	-942,997	3,177,992	2,216,126	7,038,422	-4,240,161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977,234	-13,118,749	112,913	422,356	1,996,186	-3,977,973	-220,745	-545,775	-3,716,264	-15,728,028	-13,921,669	1,109,443	1,073,405	-11,035,349	3,035,295	8,142,552	-3,623,545
당기순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82,887	5,009,065	888,074	7,207,430	6,492,150	3,530,193	2,238,535	520,718	29,643,862	2,996,285	4,143,709	3,984,449	7,594,691	7,788,571	7,344,950	9,141,538	4,207,122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5,368,410	3,907,587	114,419	3,555,581	14,524,530	9,666,036	-115,998	6,848,488	1,827,694	1,289,210	-13,395,501	998,722	3,818,536	48,442,998	6,391,443	9,424,612	1,477,49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제2절 지출 : 비용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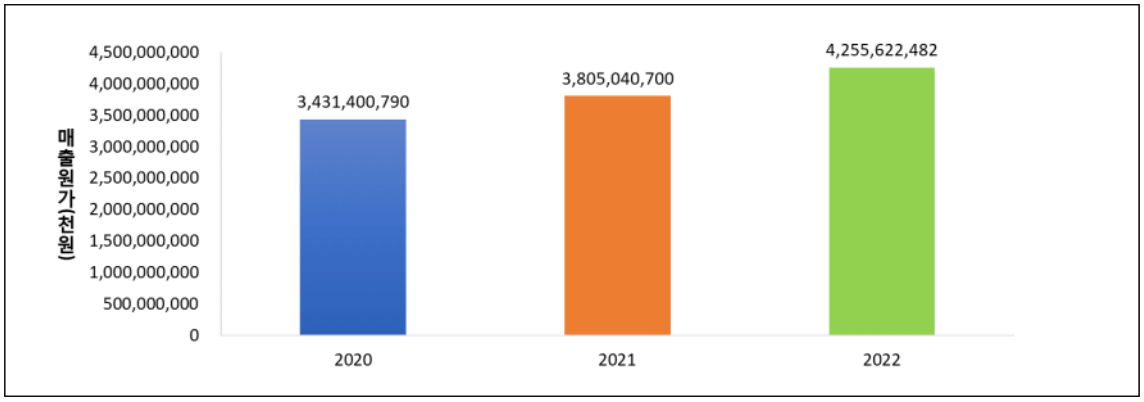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앞서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에 이어 사회적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업보고서 양식에서 비용구조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로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경비 포함), 영업외비용, 인건비(노무비 포함)가 있다.

1. 매출원가

다음 [그림4-37]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2년의 매출원가 총액은 약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폭은 2020~2021년 사이의 매출원가 증가액인 약 4천억 원보다 더 늘어나 최근 3년간 매출액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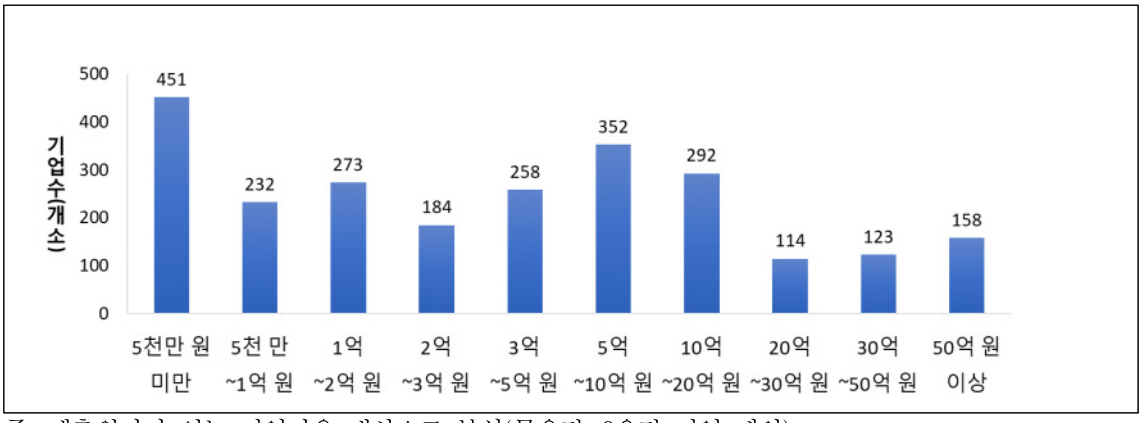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의 [그림 4-38]은 매출원가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매출원가를 보고한 전체 2,437개소 중 2022년도 매출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18.5%(451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5억~10억 원이 14.4%(352개소), 10억~20억 원이 12.0%(29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원가가 50억 원 이상인 사회적기업도 6.5(158개소)로 나타났다.

3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3억 원 미만의 매출원가를 보고한 경우는 46.8%(1,140개소)이며, 3억 원 이상이 53.2%(1,297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4-38]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4-9> 연도별 매출원가 비중 비교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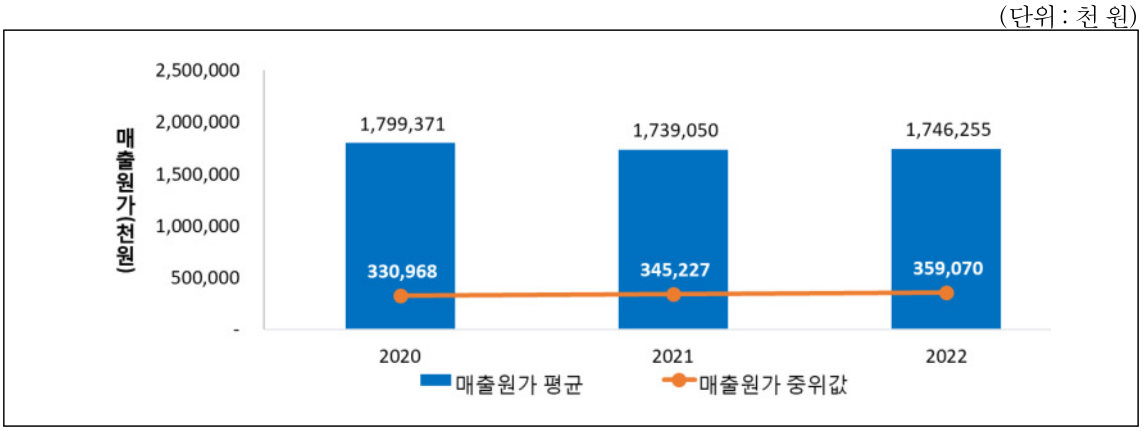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천만원 미만	366	19.2	420	19.2	451	18.5
5천만 ~ 1억원	179	9.4	198	9.0	232	9.5
1억 ~ 2억원	212	11.1	240	11.0	273	11.2
2억 ~ 3억원	166	8.7	179	8.2	184	7.6
3억 ~ 5억원	209	11.0	241	10.9	258	10.6
5억 ~ 10억원	274	14.4	297	13.6	352	14.4
10억 ~20억원	205	10.7	265	12.1	292	12.0
20억 ~30억원	102	5.3	104	4.8	114	4.7
30억 ~50억원	70	3.7	104	4.8	123	5.0
50억원 이상	124	6.5	140	6.4	158	6.5
합계	1,907	100.0	2,188	100.0	2,437	100.0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 [그림4-39]는 최근 3년간의 매출원가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매출원가 평균은 2021년 약 17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2년 다시 17억 5천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2020년부터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약 3억 6천만 원을 보고하였다.

[그림 4-39]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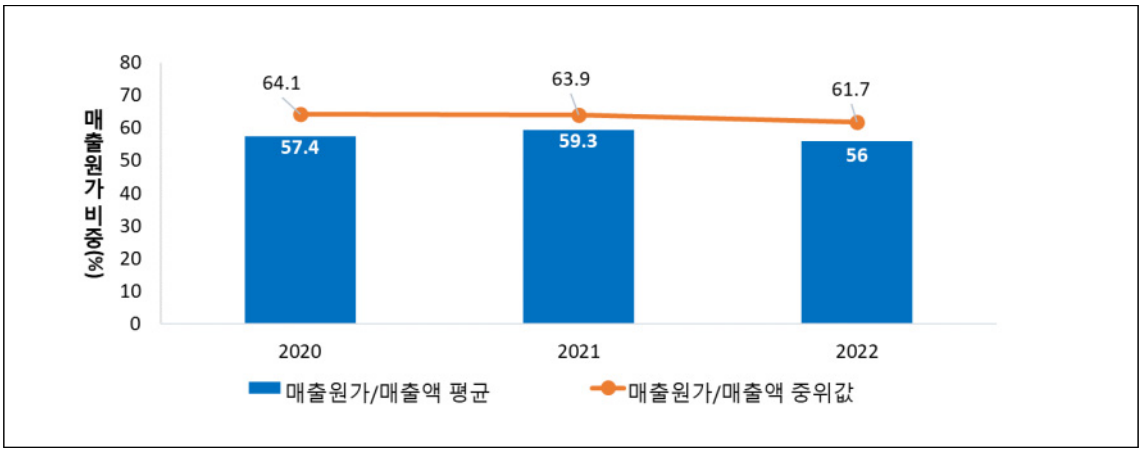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 [그림4-40]은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균 기준일 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0년 57.4%, 2021년 59.3%, 2022년 56.0%로 60%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위값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0년 64.1%, 2021년 63.9%, 2022년 61.7%로 매년 6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0]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 %)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4-10>은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 평균/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매출원가의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약 44억 8천만 원), 평균 매출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약 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출액 평균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북(62.0%)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을 제외하고 광주가 4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5억 4천만 원), 경북(약 4억 9천만 원), 전북(약 4억 4천만 원), 충북(약 4억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원(약 1억 8천만 원)은 2억 원 미만으로 낮았다.

<표 4-10>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단위 : 천 원, 개소, %)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원가	4,477,763	369	374,407
	매출원가 비중	52.2	369	54.9
부산	매출원가	731,981	99	204,860
	매출원가 비중	49.6	99	47.0
대구	매출원가	708,169	84	299,364
	매출원가 비중	55.2	84	58.9
인천	매출원가	1,103,196	146	320,059
	매출원가 비중	55.2	146	61.7
광주	매출원가	1,182,441	107	310,671
	매출원가 비중	47.7	107	53.5
대전	매출원가	619,007	73	272,181
	매출원가 비중	51.4	73	58.5
울산	매출원가	820,319	85	351,581
	매출원가 비중	58.0	85	59.2
세종	매출원가	1,123,088	19	260,046
	매출원가 비중	41.6	19	39.9
경기	매출원가	1,675,256	439	539,892
	매출원가 비중	58.9	439	66.2
강원	매출원가	1,229,956	140	184,876
	매출원가 비중	55.8	140	59.7
충북	매출원가	1,434,784	105	404,235
	매출원가 비중	58.8	105	61.0
충남	매출원가	1,140,469	102	379,550
	매출원가 비중	58.6	102	70.1
전북	매출원가	1,160,338	139	435,551
	매출원가 비중	56.2	139	67.1
전남	매출원가	905,681	160	261,623
	매출원가 비중	59.0	160	63.3
경북	매출원가	1,987,657	179	486,776
	매출원가 비중	62.0	179	68.9
경남	매출원가	1,235,525	130	327,400
	매출원가 비중	57.6	130	65.7
제주	매출원가	824,894	61	338,896
	매출원가 비중	55.8	61	60.2
전체	매출원가	1,746,255	2,437	359,067
	매출원가 비중	56.0	2,437	61.7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4-11>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인증연도가 2013년, 지역사회공헌형의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출이 큰 특정 기업의 극단값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다. 그 외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증기업의 매출원가 평균이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1년 인증기업이 2022년 55.7%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4%p)하였으나, 2016년 인증기업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15.9%p) 하였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공헌형이 2020년도 약 53억 원, 2021년 약 49억 원, 2022년 약 51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보고하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은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최근 3년간 60.6~63.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분류를 살펴보자면,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23억 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안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의 비중은 상법상회사가 최근 3년간 약 84%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2020		2021		2022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인증연도	2007	2,588,332	65.1	3,098,328	66.2	3,607,019	64.5
	2008	1,273,376	65.2	1,362,812	74.0	1,475,909	68.4
	2009	984,005	60.6	1,123,505	56.9	1,203,761	55.3
	2010	1,731,009	64.0	1,695,827	64.4	1,910,699	61.3
	2011	2,974,234	75.0	2,225,348	79.7	2,508,269	72.6
	2012	1,553,181	57.4	1,754,130	58.2	1,795,229	58.1
	2013	7,671,361	61.4	7,545,875	63.4	8,857,171	63.7
	2014	1,364,197	54.4	1,628,735	59.6	1,634,022	56.9
	2015	1,123,783	54.6	1,166,155	55.1	1,459,456	54.3
	2016	2,004,173	54.7	2,380,973	69.8	2,531,302	53.9
	2017	1,228,774	57.5	1,264,382	59.2	1,427,434	57.0
	2018	1,344,627	60.4	1,486,517	57.6	1,526,900	57.8
	2019	927,955	54.0	1,132,456	56.8	1,347,641	54.9
	2020	895,522	52.3	1,033,701	53.9	1,087,698	51.7
	2021	-	-	863,179	54.3	971,501	55.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	-	-	-	634,111	49.6
	사회서비스제공형	1,607,490	61.6	1,616,552	63.6	1,657,557	60.6
	혼합형	393,992	36.9	363,819	39.1	235,208	30.6
	기타(창의・혁신)형	408,688	51.2	430,348	56.5	424,961	45.7
	지역사회공헌형	5,255,116	39.6	4,896,559	41.0	5,056,363	39.4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874,859	56.6	944,110	55.2	906,131	54.8
	비영리민간단체	2,313,951	65.3	2,139,957	68.7	2,391,643	66.4
	사회복지법인	150,480	34.8	737,279	52.1	194,382	48.1
	상법상회사	1,656,623	85.6	1,855,233	84.1	1,972,627	84.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2,755	56.4	1,908,793	58.7	1,934,284	55.6
	영농조합법인	1,421,260	67.2	2,326,616	71.3	2,638,092	71.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355,142	68.6	1,380,024	68.6	1,293,751	68.0
	기타	749,151	48.6	806,418	48.7	771,176	45.1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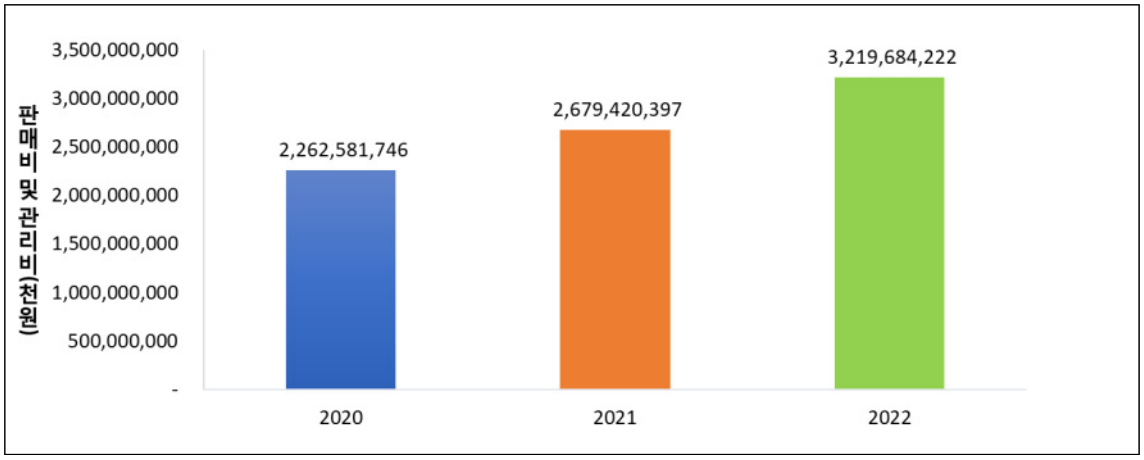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다음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증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를 포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4-41]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판매비 및 관리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2년 사회적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약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천 4십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41]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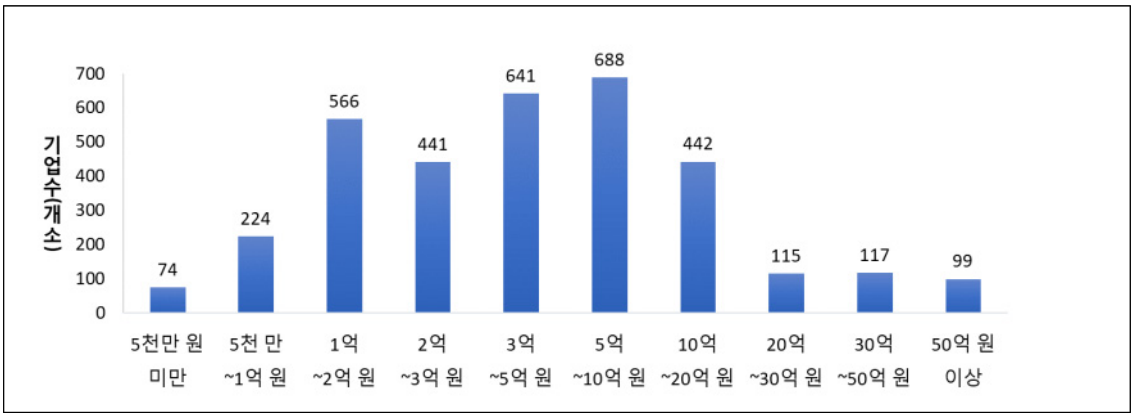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42]는 사회적기업의 2022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도와 분포별 기업 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3,407개소 중 5억~10억 원 사이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지출한 사회적기업이 20.2%, 688개소로 가장 많았고, 3억~5억 원 18.8%(641개소), 1억~2억 원 16.6%(566개소) 순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을 보고하는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42]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4-12>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비중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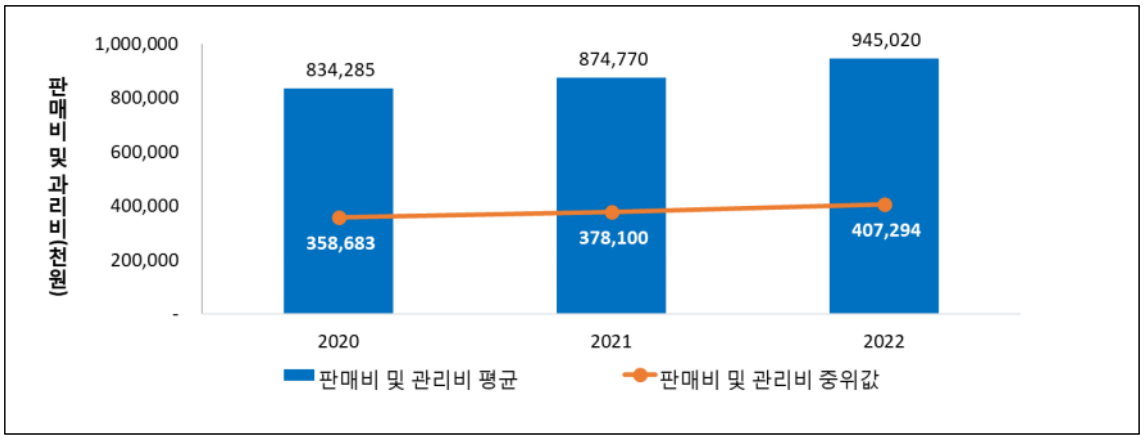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천만원 미만	79	2.9	84	2.7	74	2.2
5천만 ~ 1억원	211	7.8	224	7.3	224	6.6
1억 ~ 2억원	491	18.1	552	18.0	566	16.6
2억 ~ 3억원	407	15.0	410	13.4	441	12.9
3억 ~ 5억원	484	17.9	535	17.5	641	18.8
5억 ~ 10억원	510	18.8	599	19.6	688	20.2
10억 ~ 20억원	294	10.8	377	12.3	442	13.0
20억 ~ 30억원	87	3.2	103	3.4	115	3.4
30억 ~ 50억원	82	3.0	101	3.3	117	3.4
50억원 이상	67	2.5	78	2.5	99	2.9
합계	2,712	100.0	3,063	100.0	3,407	100.0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의 [그림 4-43]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균값은 2020년 약 8억 3천만 원, 2021년 약 8억 7천만 원, 2022년 약 9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위값은 2020년에 약 3억 6천만 원, 2021년 약 3억 8천만 원, 2022년에 약 4억 1천만 원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림 4-43]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 <표 4-13>은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약 15억 3천만 원), 경기(약 13억 1천만 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남(약 4억 9천만 원), 대구(약 5억 4천만 원), 울산(약 6억 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약 6억 2천만 원), 서울(약 5억 4천만 원)은 5억 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전남(약 2억 5천만 원)과 강원(약 3억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여 지역별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528,292	576	536,176
부산	643,381	157	344,129
대구	543,427	128	379,399
인천	738,577	199	386,920
광주	653,301	140	447,631
대전	1,013,633	110	362,577
울산	602,862	113	347,438
세종	948,695	26	612,776
경기	1,313,673	606	615,526
강원	652,635	191	301,128
충북	824,979	140	378,883
충남	683,969	139	332,962
전북	811,174	195	398,674
전남	485,468	191	251,009
경북	724,957	234	349,574
경남	629,274	180	309,352
제주	734,576	83	455,542
전체	944,743	3,408	406,078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아래 <표 4-14>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인증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2년 기준 2007년 인증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고, 2008년~2011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의 기업이 판매비 및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약 10억 원)과 기타(창의・혁신)형(약 9억 원), 사회서비스제공형(약 8억 9천만 원), 혼합형(약 8억 2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기타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이 2022년 약 13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4억 원, 영농조합법인이 약 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였다.

<표 4-14>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단위 : 천 원)

구분		2020	2021	2022
인증연도	2007	2,429,620	2,545,817	2,634,685
	2008	1,018,657	1,269,017	1,238,218
	2009	1,169,654	1,668,891	1,384,071
	2010	991,186	948,002	1,198,910
	2011	1,206,585	1,195,712	1,528,427
	2012	830,847	912,519	1,060,228
	2013	918,510	1,011,759	1,318,054
	2014	940,691	1,014,816	1,183,333
	2015	962,312	992,067	1,096,192
	2016	999,813	1,093,513	1,196,934
	2017	681,885	767,945	803,855
	2018	765,439	960,438	1,076,889
	2019	598,949	669,087	870,112
	2020	584,253	717,606	846,040
	2021	-	556,581	654,368
	2022	-	-	492,93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909,394	922,222	1,009,357
	사회서비스제공형	740,531	838,726	889,271
	혼합형	662,616	749,500	820,551
	기타(창의・혁신)형	746,154	840,828	901,167
	지역사회공헌형	574,636	663,704	641,434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184,370	1,091,802	1,441,702
	비영리민간단체	276,506	385,970	393,959
	사회복지법인	1,011,426	1,093,565	1,361,893
	상법상회사	837,624	863,115	932,5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98,422	961,274	1,047,812
	영농조합법인	453,970	499,127	494,96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35,668	884,989	828,419
	기타	-	1,138,373	-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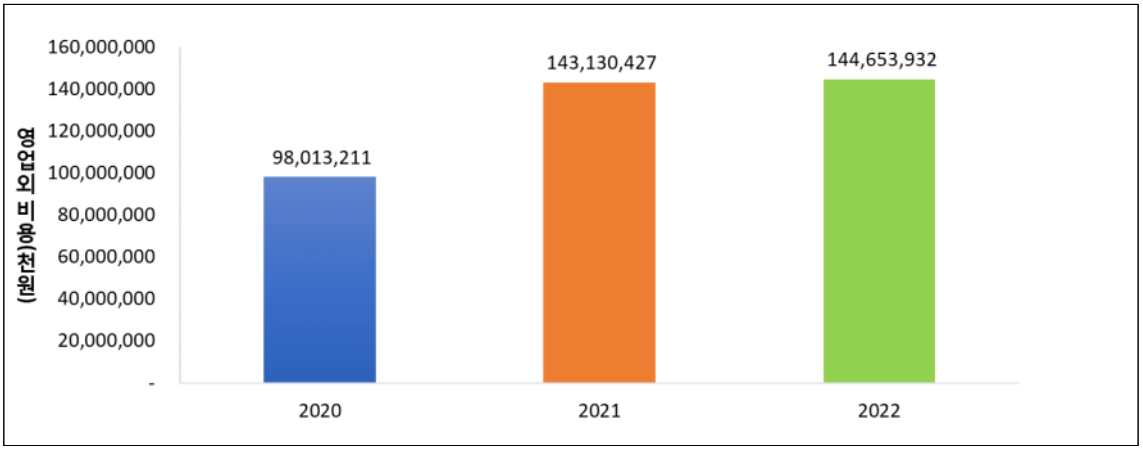
3. 영업외비용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이외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비용(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사채이자 포함), 이연자산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매출할인,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잡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www.hometax.go.kr).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영업외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그대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먼저,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변화 추이는 다음 [그림 4-44]와 같다. 2022년 영업외비용 총액은 약 1,447억 원으로, 2020년 약 980억 원, 2021년의 약 1,431억 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44] 영업외비용 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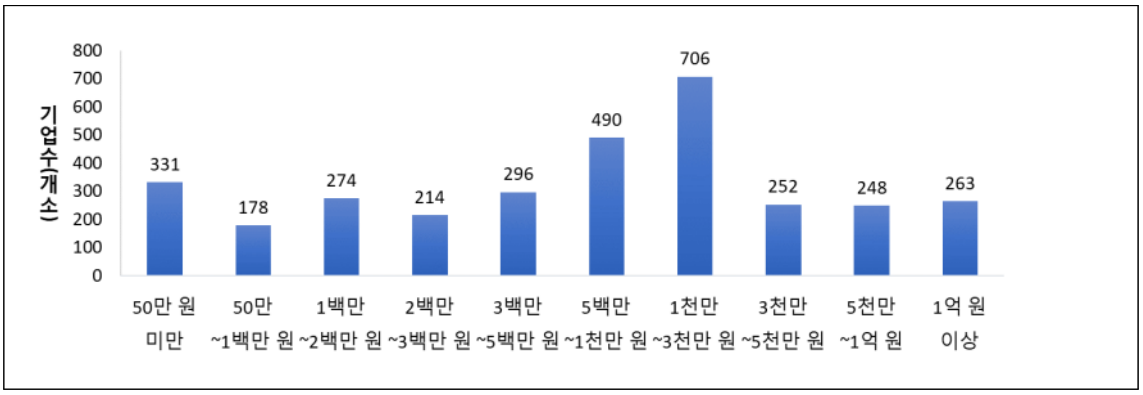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 [그림 4-45]는 영업외비용의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3,252개소의 기업이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중 2022년도 영업외비용이 1천만~3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06개소(21.7%)이며, 5백~1천만 원으로 응답한 기업이 490개소(15.1%), 50만 원 미만이 331개소(10.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5]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3,252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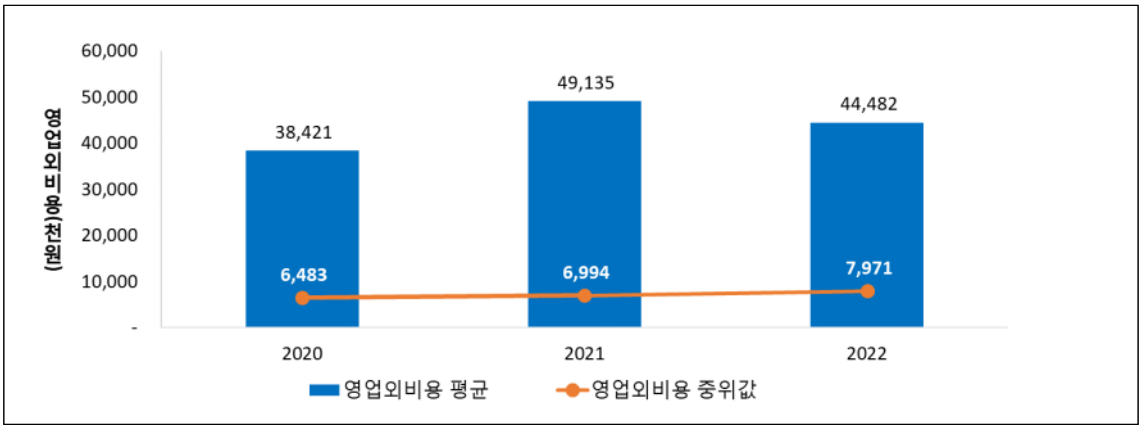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아래 [그림 4-46]은 최근 3년간의 영업외비용의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22년 영업외비용 기업별 평균은 약 4천 4백만 원이며, 2021년 약 4천 9백만원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중위값은 2020년 약 6백 4십만 원에서 2021년 약 7백만 원, 2022년 약 8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6]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영업외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15>와 같다. 평균 영업외비용의 경우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약 7천만 원), 인천(약 6천 9백만 원), 경기(약 5천 2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업외비용 평균을 보고한 지역은 대구(약 1천 9백만 원), 울산(약 2천 2백만 원), 부산(약 2천 4백만 원) 순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영업외비용이 차이가 있었다. 중위값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약 1천 3백만 원), 경북(약 1천 1백만 원), 경기(약 1천 1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약 5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5>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69,721	552	8,441
부산	23,516	146	7,768
대구	19,181	120	6,962
인천	68,889	196	7,144
광주	30,801	129	7,722
대전	44,088	106	5,813
울산	21,923	108	7,798
세종	47,757	25	7,349
경기	51,959	588	10,098
강원	25,692	182	6,806
충북	33,041	134	6,966
충남	31,191	129	6,972
전북	42,103	176	7,394
전남	34,899	180	6,880
경북	40,921	226	10,939
경남	29,389	173	6,101
제주	36,814	82	13,233
계	44,482	3,252	7,971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마지막으로 <표 4-16>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외비용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 2016년, 2011년 인증받은 기업 순으로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2년, 2017년, 2020년에 인증받은 기업 순으로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9년 및 2017년에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그 외 인증기업은 모두 전년 대비 영업외비용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2022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3개년 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2022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약 9천 2백만 원의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6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민법상법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영업외비용은 3개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외 조직 유형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단위 : 천 원)

구분		영업외비용		
		2020	2021	2022
인증연도	2007	42,308	48,835	85,932
	2008	51,518	53,996	75,715
	2009	53,067	38,649	31,454
	2010	26,357	29,279	60,981
	2011	55,091	47,096	88,531
	2012	23,391	27,004	27,949
	2013	60,682	65,449	105,122
	2014	66,202	42,684	43,833
	2015	34,674	38,628	45,264
	2016	62,119	243,343	94,692
	2017	24,921	34,916	28,666
	2018	31,756	41,221	57,863
	2019	34,996	34,219	42,998
	2020	19,132	23,948	30,289
	2021	-	16,493	24,298
	2022	-	-	14,97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0,561	48,232	42,051
	사회서비스제공형	21,225	20,043	21,483
	혼합형	19,018	124,911	71,549
	기타(창의・혁신)형	51,038	53,933	75,896
	지역사회공헌형	29,338	20,098	26,55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2,386	33,287	38,336
	비영리민간단체	7,038	11,174	6,751
	사회복지법인	46,161	35,048	92,232
	상법상회사	40,841	59,096	48,3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7,288	29,137	42,965
	영농조합법인	52,389	28,781	32,33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0,947	28,485	32,182
	기타	-	53,059	-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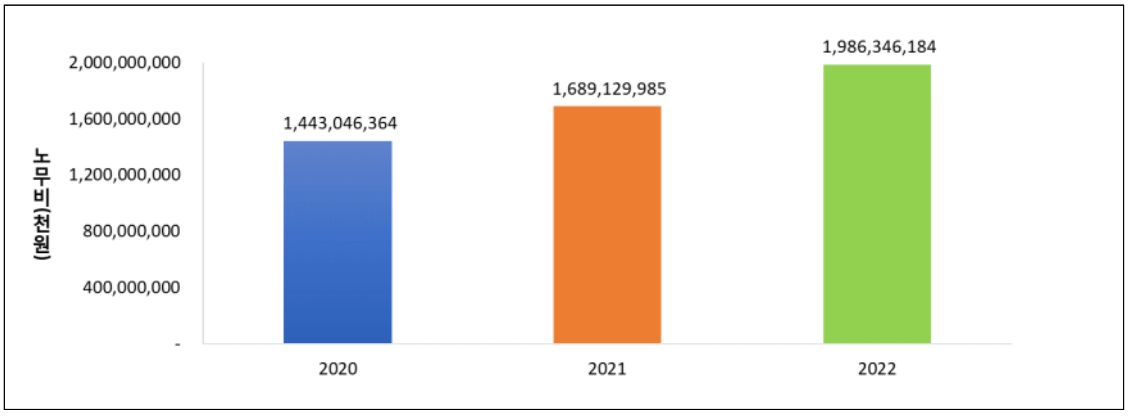
4.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지출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활용된 지표는 노무비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노무비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참고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인력비용,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성과급, 잡급(일용급여), 제수당,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며,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는 급여(임금), 상여금, 잡금(일용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47]과 같이 2020년 약 1조 4천 4백억 원, 2021년 약 1조 6천 9백억 원, 2022년 약 1조 9천 9백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47] 연도별 노무비 금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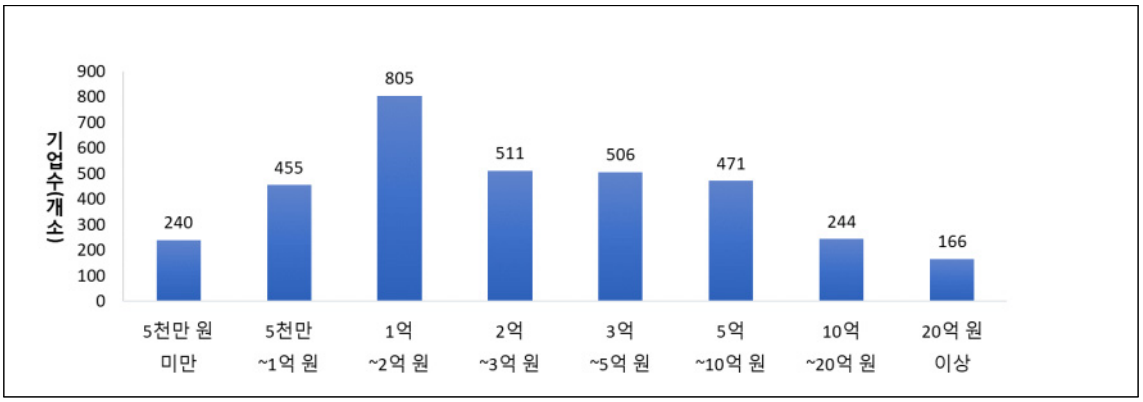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그림 4-48]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노무비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3,398개 사회적기업 중 노무비가 1억~2억 원인 경우가 805개소(2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억~3억 원(511개소, 15.0%), 3억~5억 원(506개소, 14.9%)의 순서로 많았다. 그리고 노무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240개소(7.1%)가 있었으며,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166개소(4.9%)를 차지하였다.

[그림 4-48]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2년 3,398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아래의 <표 4-17>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적인 분포의 변화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억~2억 원 및 3억~5억 원의 경우 매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7> 연도별 노무비 비중 비교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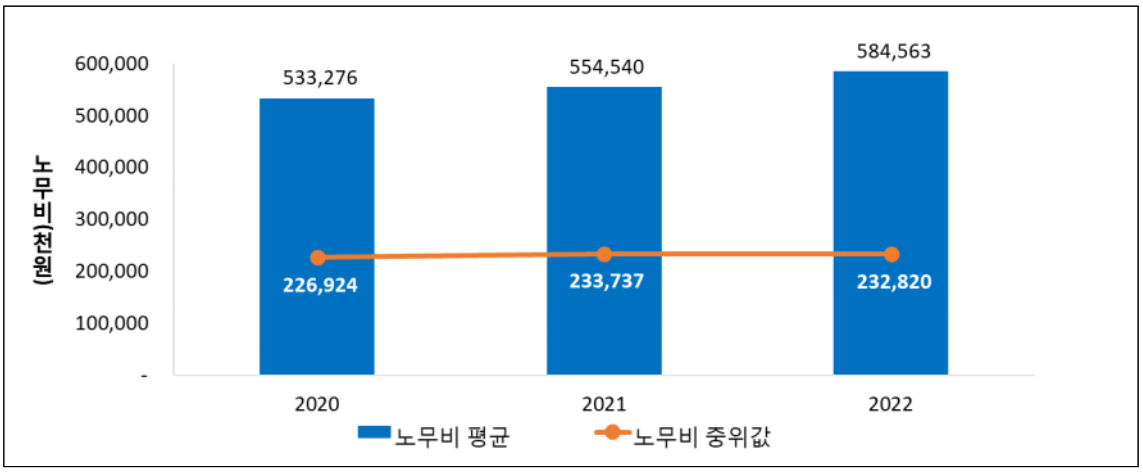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178	6.6	191	6.3	240	7.1
5천만 ~ 1억 원	350	12.9	409	13.4	455	13.4
1억 ~ 2억 원	695	25.7	731	24.0	805	23.7
2억 ~ 3억 원	408	15.1	465	15.3	511	15.0
3억 ~ 5억 원	422	15.6	468	15.4	506	14.9
5억 ~ 10억 원	340	12.6	409	13.3	471	13.9
10억 ~ 20억 원	181	6.7	221	7.3	244	7.2
20억 원 이상	132	4.9	152	5.0	166	4.9
합계	2706	100.1	3046	100	3398	100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그림 4-49]는 최근 3년간 노무비의 평균 및 중위값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노무비 평균은 2020년 약 5억 3천만 원에서 2021년 5억 5천만 원, 2022년 약 5억 8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위값을 기준으로는 2020년 약 2억 2천 7백만 원, 2021년 약 2억 3천 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2억 3천 3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4-49]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아래 <표 4-18>은 지역별로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노무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8억 6천만 원)이고, 서울(약 7억 6천만 원), 강원(약 6억 4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반면, 노무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2억 9천만 원), 대구(약 3억 원), 광주(약 3억 6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3억 4천만 원)가 가장 높았고, 전북(약 2억 7천만 원), 제주(약 2억 6천만 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노무비 수준이 높은 반면, 노무비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1억 5천만 원), 강원(약 1억 7천만 원), 충남(약 2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764,610	576	235,902
부산	511,476	155	212,562
대구	307,685	127	237,228
인천	469,805	199	226,741
광주	357,725	140	209,693
대전	508,844	109	211,213
울산	425,271	113	243,292
세종	633,168	26	267,706
경기	864,776	606	344,076
강원	642,204	190	170,603
충북	476,784	139	247,413
충남	431,903	138	203,080
전북	494,609	195	265,277
전남	293,552	190	153,692
경북	507,674	234	232,288
경남	474,130	178	208,092
제주	441,665	83	264,014
전체	584,563	3,398	232,820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4-1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 천 원)

구분		2020	2021	2022
인증연도	2007	1,406,535	1,144,874	1,792,139
	2008	725,086	888,917	923,528
	2009	754,564	845,730	961,263
	2010	812,588	665,042	937,567
	2011	718,195	796,865	976,396
	2012	511,707	593,395	608,968
	2013	583,740	669,843	781,082
	2014	542,728	652,029	700,284
	2015	750,302	837,978	845,963
	2016	490,838	557,853	607,705
	2017	379,150	407,972	421,689
	2018	499,385	603,196	715,673
	2019	369,730	396,132	467,981
	2020	403,006	489,582	561,041
	2021	-	347,680	399,090
	2022	-	-	244,06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616,236	628,694	666,580
	사회서비스제공형	432,162	553,381	507,854
	혼합형	441,882	531,662	553,568
	기타(창의·혁신)형	372,001	334,869	407,507
	지역사회공헌형	258,997	286,783	270,88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62,511	506,546	701,537
	비영리민간단체	153,870	200,077	180,140
	사회복지법인	826,609	987,474	1,127,770
	상법상회사	563,589	579,158	594,8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71,684	595,179	666,930
	영농조합법인	257,770	275,932	257,34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56,423	530,756	518,987
	기타	-	675,206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위의 <표 4-19>는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노무비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 평균 노무비를 살펴보면, 2007년도 인증기업이 약 18억 원으로 다른 연도의 인증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으며, 다음으로 2011년 인증기업이 약 9억 8천만 원, 2009년 인증기업이 약 9억 6천만 원의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 반면 2022년 인증기업은 약 2억 4천만 원, 2021년 인증기업은 약 4억 원으로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

인증유형을 기준 2022년 평균 노무비를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의 노무비 평균이 약 6억 7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노무비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노무비를 나타냈다.

조직형태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고 있는데, 2021년 약 9억 9천만 원에서 2022년 약 11억 3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3개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의 노무비 평균을 보고 하였으며 2021년 약 2억 원에서 더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1억 8천만 원을 보고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의 총액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다음의 <표 부가분석 4-3>과 <표 부가분석 4-4>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출총액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0, 2021, 2022)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천 원)

항목			2019	2020	2021
매출원가	전체총액		3,431,400,791	3,805,040,700	4,255,622,482
	인증연도	2007	56,943,299	65,064,878	72,140,380
		2008	94,229,840	89,945,608	95,934,055
		2009	27,552,128	29,211,131	31,297,779
		2010	138,480,715	125,491,185	141,391,725
		2011	220,093,315	155,774,354	165,545,755
		2012	107,169,504	122,789,078	122,075,588
		2013	1,066,319,123	1,018,693,138	1,071,717,662
		2014	203,265,354	223,136,758	217,324,947
		2015	165,196,136	164,427,825	189,729,266
		2016	336,701,137	388,098,600	397,414,355
		2017	199,061,354	203,565,532	228,389,435
		2018	286,405,644	304,736,076	322,175,922
		2019	251,475,829	288,776,250	338,257,911
		2020	278,507,414	316,312,377	330,660,251
		2021	-	309,017,912	341,968,218
		2022	-	-	189,599,23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195,831,288	2,557,385,707	2,912,328,433
		사회서비스제공형	28,761,450	36,745,759	29,165,748
		혼합형	42,094,879	43,895,519	46,745,704
		기타형	1,014,237,453	974,415,308	1,051,723,518
		지역사회공헌형	150,475,721	192,598,407	215,659,07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40,150,839	427,991,301	404,187,724
		비영리민간단체	3,310,557	18,431,973	3,693,253
		사회복지법인	106,023,841	113,169,239	124,275,523
		상법상회사	2,652,811,546	2,838,374,739	3,261,203,05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791,342	23,266,164	26,380,923
		영농조합법인	126,028,198	129,722,272	143,606,40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90,284,468	249,183,227	292,275,598
		기타	-	4,901,784	-

항목			2020	2021	2022
판관비	전체총액		2,262,581,746	2,679,420,397	3,219,684,222
	인증연도	2007	85,036,692	84,011,962	86,944,617
		2008	101,865,680	119,287,611	118,868,917
		2009	59,652,349	75,100,083	62,283,208
		2010	130,836,534	116,604,281	145,068,166
		2011	121,865,047	110,005,485	139,086,842
		2012	91,393,216	95,814,479	110,263,660
		2013	179,109,492	188,187,231	230,659,458
		2014	187,197,591	191,800,239	217,733,325
		2015	217,482,566	216,270,565	223,623,093
		2016	224,957,843	237,292,218	247,765,340
		2017	159,561,009	170,483,872	173,632,784
		2018	223,508,217	263,159,934	293,990,732
		2019	232,392,206	240,871,235	304,539,033
		2020	247,723,298	297,806,550	341,800,017
		2021	-	272,724,651	315,405,574
		2022	-	-	208,019,45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625,995,955	1,877,644,679	2,290,232,062
		사회서비스제공형	128,852,308	185,358,499	235,656,765
		혼합형	128,547,491	145,403,027	163,289,711
		기타형	259,661,652	307,742,951	340,641,307
		지역사회공헌형	119,524,338	163,271,240	189,864,37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28,070,552	374,487,997	432,510,477
		비영리민간단체	19,355,445	28,561,794	24,031,500
		사회복지법인	76,868,372	78,736,688	100,780,111
		상법상회사	1,500,185,106	1,720,188,696	2,125,202,1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984,222	10,574,016	11,525,933
		영농조합법인	44,943,056	49,912,687	58,405,92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86,174,990	412,405,026	467,228,153
		기타	-	4,553,491	-
노무비	전체총액		1,443,046,364	1,689,129,985	1,986,346,184
	인증연도	2007	49,228,753	37,780,857	59,140,586
		2008	72,508,630	81,780,385	87,735,192
		2009	38,482,789	38,057,871	43,256,840
		2010	105,636,529	81,135,127	112,508,091
		2011	71,819,592	72,514,718	88,852,014
		2012	56,287,786	61,713,055	63,332,630
		2013	113,829,466	123,251,082	136,689,297
		2014	108,002,940	121,929,468	128,152,059
		2015	168,817,995	181,003,319	170,884,617
		2016	110,438,612	121,054,142	125,794,909
		2017	88,342,162	90,161,917	90,241,357
		2018	145,321,078	164,069,355	193,947,432
		2019	143,455,268	142,607,638	163,793,432
		2020	170,874,759	201,707,691	226,660,369
		2021	-	170,363,362	192,361,600
		2022	-	-	102,995,759

항목			2020	2021	2022
노무비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099,982,900	1,273,105,221	1,510,469,831
		사회서비스제공형	75,196,222	121,743,725	133,565,573
		혼합형	85,283,411	102,079,013	108,499,378
		기타형	128,712,372	122,227,084	153,630,173
		지역사회공헌형	53,871,457	69,974,943	80,181,22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55,253,199	172,225,567	210,461,152
		비영리민간단체	10,770,947	14,605,649	10,988,520
		사회복지법인	61,995,741	70,110,679	83,454,945
		상법상회사	1,007,697,979	1,149,628,383	1,352,582,6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716,848	6,546,969	7,336,231
		영농조합법인	25,519,272	27,041,318	29,852,26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7,092,375	246,270,596	291,670,462
		기타	-	2,700,824	-
영업외비용	전체총액		98,013,211	143,130,427	144,653,932
	인증연도	2007	1,269,242	1,367,373	2,749,811
		2008	4,533,580	4,481,697	6,435,773
		2009	2,334,945	1,430,017	1,321,064
		2010	3,110,163	3,220,651	6,646,906
		2011	4,958,145	3,720,606	6,993,980
		2012	2,198,730	2,592,400	2,655,132
		2013	11,408,141	11,584,415	17,345,081
		2014	12,181,199	7,725,802	7,626,886
		2015	7,350,793	7,995,955	8,645,473
		2016	13,169,292	51,101,982	18,938,498
		2017	5,682,061	7,541,862	5,962,463
		2018	9,240,880	11,129,781	15,565,201
		2019	12,808,645	11,873,838	14,318,369
		2020	7,767,390	9,579,374	11,964,243
		2021	-	7,784,672	11,420,082
		2022	-	-	6,064,96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69,196,940	94,342,738	92,048,550
		사회서비스제공형	3,353,595	4,168,894	5,220,471
		혼합형	3,176,052	21,484,649	12,950,439
		기타형	16,536,327	18,391,014	26,867,219
		지역사회공헌형	5,750,295	4,743,132	7,567,254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7,740,184	10,452,087	10,389,029
		비영리민간단체	365,981	603,400	297,024
		사회복지법인	2,631,184	1,927,638	5,533,948
		상법상회사	70,492,070	114,114,092	106,895,8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72,883	320,512	472,610
		영농조합법인	5,029,389	2,820,538	3,751,32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1,481,518	12,732,984	17,314,100
		기타	-	159,176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2)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천 원)

매출 원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32,294,385	72,466,038	59,466,177	161,036,586	126,521,227	45,187,486	69,727,073	21,338,668	735,437,449	172,198,865	130,652,331	116,327,876	161,287,049	144,908,942	355,790,552	160,618,193	30,318,541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66,141,014	40,019,556	-	72,742,261	1,456,784,031	39,066,942	6,636,417	192,581,498	52,020,824	23,324,216	72,483,218	8,186,349	27,971,443	1,977,610,361	30,059,005	59,008,355	9,747,933
판관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60,296,162	101,010,832	69,558,704	146,976,830	91,462,113	111,499,063	68,123,394	24,666,079	736,035,993	124,653,332	115,497,118	95,071,643	158,178,874	92,724,414	169,659,937	113,289,253	60,990,844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65,415,363	241,546,315	975,375	31,416,038	351,528,446	489,008,433	143,490,359	415,589,703	30,673,555	170,407,611	70,729,001	6,341,005	113,536,154	848,738,735	94,083,945	190,946,335	32,807,325
노무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0,415,530	79,278,745	39,075,959	98,491,230	30,081,523	55,463,947	48,055,634	16,462,376	524,054,150	122,018,840	65,272,992	59,602,576	96,448,794	55,774,794	118,795,739	84,395,116	36,658,188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57,940,724	107,955,792	519,037	20,081,125	173,322,789	330,637,554	3,374,244	369,834,825	34,018,297	65,346,830	16,833,400	1,735,788	41,610,624	498,445,199	41,747,811	141,466,217	21,588,878
영업외비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8,486,249	3,433,399	2,301,764	13,302,322	3,973,357	4,673,343	2,367,710	1,193,916	30,551,539	4,675,877	4,427,430	4,023,702	7,410,190	6,281,838	9,248,178	5,084,314	3,018,725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335,130	13,346,581	4,035	2,155,557	24,886,518	11,313,146	1,632,546	7,803,804	1,566,999	3,946,674	751,130	396,232	2,891,747	57,674,156	6,956,972	5,247,979	744,725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제3절 기타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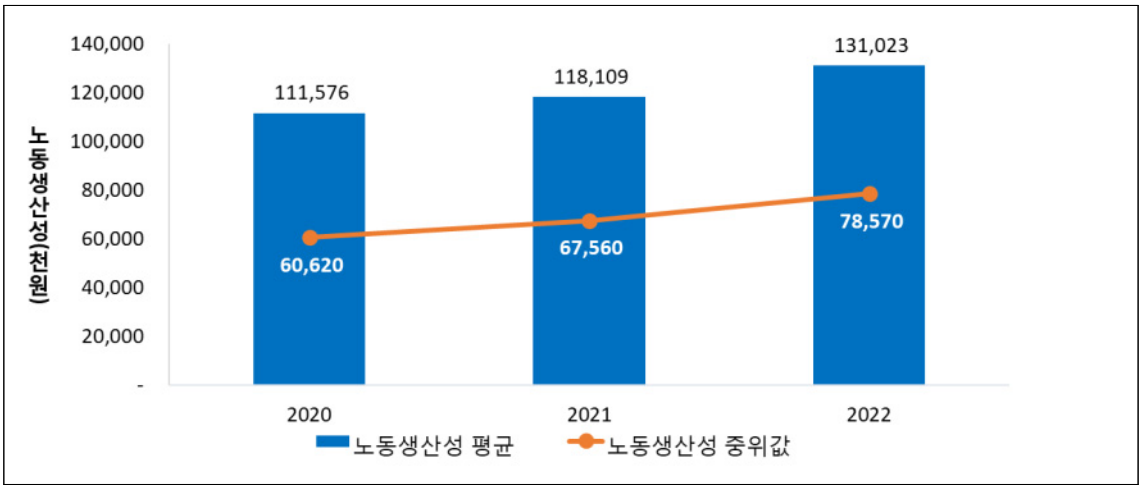
앞서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지표로서 재정성과와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로 분류 가능한 노동생산성과 일반인 고용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노동생산성

먼저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되는데, 다음 [그림 4-50]에 평균 노동생산성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20~2022년 동안 노동생산성의 평균값 및 중위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노동생산성의 평균은 약 1억 3천만 원, 중위값은 약 7천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노동생산성=기업 매출액/근로자 수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아래 <표 4-20>은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약 1억 6천만 원), 서울(약 1억 5천만 원), 경기(약 1억 4천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세종을 제외하면 대전(약 8천 4백만 원), 대구(약 9천 7백만 원), 부산(약 1억 원)이였다. 노동생산성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약 9천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약 5천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20>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지역	노동생산성 평균	노동생산성 중위값
서울	152,090	81,447
부산	103,718	62,556
대구	97,033	63,435
인천	119,861	81,434
광주	126,505	87,407
대전	84,234	59,170
울산	108,229	71,255
세종	88,643	61,451
경기	139,943	87,413
강원	110,701	67,825
충북	130,630	90,388
충남	130,271	78,121
전북	125,333	78,676
전남	130,207	84,705
경북	168,736	81,409
경남	138,734	68,619
제주	104,663	75,994
전체	131,023	78,570

주: 노동생산성=기업 매출액/근로자 수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표 4-21>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다 세분화시켜,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단위 : 천 원)

		2020	2021	2022
인증 연도	2007	82,920	92,766	103,822
	2008	80,169	82,389	85,217
	2009	88,445	87,534	89,109
	2010	76,729	84,189	87,649
	2011	117,828	103,069	114,846
	2012	108,836	120,738	126,210
	2013	129,084	134,953	156,659
	2014	135,306	143,835	156,921
	2015	107,278	115,614	134,528
	2016	155,888	181,022	211,567
	2017	105,425	120,563	148,458
	2018	123,350	132,277	150,303
	2019	98,396	110,190	129,229
	2020	101,277	109,856	127,020
	2021	-	100,919	109,785
	2022	-	-	110,48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1,268	125,398	137,629
	사회서비스제공형	73,398	82,789	89,088
	혼합형	64,372	82,503	86,197
	기타(창의・혁신)형	97,210	109,348	127,459
	지역사회공헌형	126,228	130,423	151,848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88,191	106,759	108,116
	비영리민간단체	51,290	64,209	66,244
	사회복지법인	46,574	43,998	52,485
	상법상회사	118,198	125,952	141,64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0,580	123,641	145,149
	영농조합법인	224,318	203,682	204,79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93,217	94,299	101,360
	기타	-	158,969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인증연도별로 2022년 평균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2016년 인증기업(약 2억 1천만 원)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2014년 인증기업과 2013년 인증기업이 각각 약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8년 인증기업이 약 8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10년 인증기업이 약 8천 8백만 원, 2009년 인증기업이 약 8천 9백만 원 수준을 보였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최근 3년간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공헌형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형이 약 8천 6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3년간 노동생산성 평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외 사회복지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증감을 반복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약 2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약 5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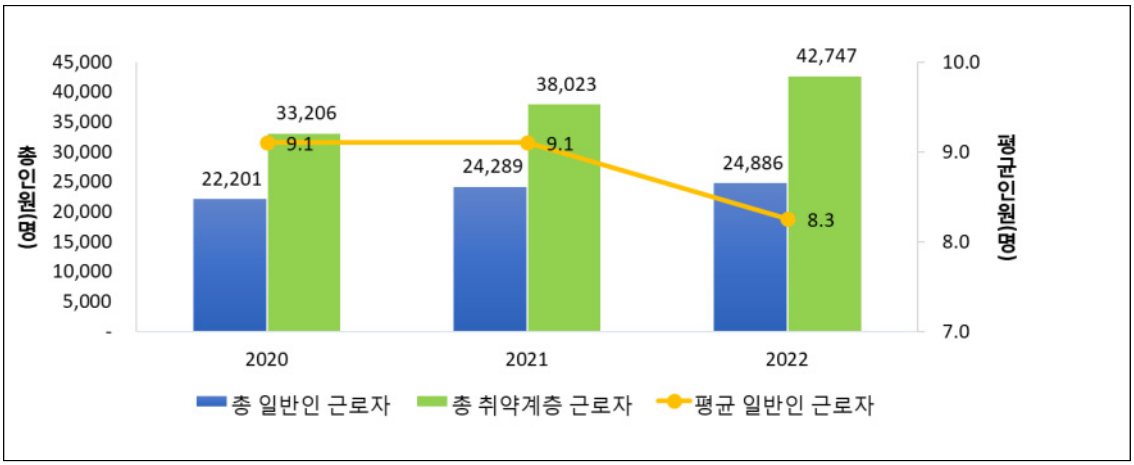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마지막 측정으로, 이하에서는 일반인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4-51]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총 일반인 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총 일반인 근로자와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0년 22,201명, 2021년 24,289명, 2022년 24,886명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0년 33,206명, 2021년 38,023명, 2022년 42,747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2020년 9.1명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9.1명으로 유지하였다가 2022년 8.3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51]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에 제시된 <표 4-22>는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에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을 나타낸 곳은 서울(11.3명), 경기(11.2명)이었다. 반면, 전남(4.7명), 대구(5.0명), 광주(5.6명)는 평균 6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보고하였다.

<표 4-22>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단위 : 명)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전체	8.3	경기	11.2
서울	11.3	강원	9.6
부산	6.2	충북	7.4
대구	5.0	충남	6.8
인천	6.0	전북	6.4
광주	5.6	전남	4.7
대전	6.6	경북	7.3
울산	5.3	경남	7.1
세종	11.6	제주	7.5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의 <표 4-23>에서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수와 평균을 살펴보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많고, 최근 인증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인증연도는 2007년 인증기업으로 평균 근로자 수 28.1명이었으며, 2022년 인증기업은 평균 근로자 수가 4.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2007	983	28.9	965	31.1	898	28.1
2008	1,278	14.0	1,274	15.0	1,164	13.5
2009	836	17.8	626	15.7	661	15.7
2010	1,578	12.7	1,425	13.2	1,318	13.0
2011	1,053	11.6	941	11.3	911	11.2
2012	733	7.5	857	9.4	836	9.5
2013	1,811	11.0	1,719	10.9	1,656	10.8
2014	1,579	8.9	1,608	9.9	1,570	9.8
2015	2,105	10.4	1,978	10.6	2,003	11.1
2016	1,669	8.1	1,620	8.5	1,543	8.5
2017	1,347	6.3	1,248	6.3	1,137	6.0
2018	2,049	7.6	2,138	8.7	1,884	8.1
2019	2,309	6.6	2,349	7.4	2,125	7.0
2020	2,871	7.5	2,980	8.2	2,932	8.0
2021	-	-	2,561	6.1	2,681	6.2
2022	-	-	-	-	1,567	4.1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다음의 <표 4-24>는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총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자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 3개년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탔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이 3개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을 기준으로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일자리제공형(16,154명), 기타(창의·혁신)형(2,993명), 사회서비스제공형(2,575명)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근로자 수는 혼합형(11.1명), 사회서비스제공형(10.7명), 기타(창의·혁신)형(8.5명) 순으로 많았다.

<표 4-24>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2020		2021		2022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일자리제공형	14,611	9.0	15,857	7.8	16,154	8.0
사회서비스제공형	1,833	11.4	2,452	11.1	2,575	10.7
혼합형	1,643	9.9	1,617	8.3	1,761	11.1
기타(창의・혁신)형	3,056	9.5	3,108	8.5	2,993	8.5
지역사회공헌형	1,058	6.3	1,255	5.1	1,403	5.8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조직형태에 따라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구분한 내용은 다음의 <표 4-25>에서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상법상회사에서 고용한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2020년 14,326명, 2021년 14,938명, 2022년 15,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2년 기준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법인도 각각 4,828명과 3,11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3년간 각각 105, 131, 144명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22년 평균 1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평균 4.1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4-25>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2020		2021		2022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민법상법인	2,659	10.6	3,251	9.5	3,110	11.5
비영리민간단체	231	3.9	294	4.0	207	4.1
사회복지법인	801	11.1	791	11.0	712	10.0
상법상회사	14,326	8.8	14,938	7.5	15,492	7.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5	10.5	131	11.9	144	13.1
영농조합법인	381	5.1	394	3.9	393	4.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698	10.6	4,461	9.6	4,828	9.8
기타	-	-	29	7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4-26>은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260만 원, 평균 근로시간은 35.7시간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강원 및 경북이 각각 약 302만 원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가 약 20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근로시간은 충남 33.3시간, 울산 34.2시간, 경남 34.8시간 순으로 적었으며, 강원 및 경북이 각각 37.8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지역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서울	2,589	35.1
부산	2,200	35.9
대구	2,052	35.5
인천	2,259	35.4
광주	2,509	36.4
대전	2,660	37.0
울산	2,269	34.2
세종	2,042	33.4
경기	2,775	35.2
강원	3,032	37.8
충북	2,604	35.6
충남	2,327	33.3
전북	2,574	36.3
전남	2,547	37.6
경북	3,031	37.8
경남	2,337	34.8
제주	2,503	36.1
전체	2,614	35.7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다음 <표 4-27>은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2022년을 기준으로 2010년 인증기업이 일반인 근로자의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304만 원)을 보고하였고, 2016년 인증기업이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37.6시간)을 보고하였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임금은 2012년, 2015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대체로 최근 3년 동안 40시간 미만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표 4-27>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연도	2020		2021		2022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2007	2,305	34.6	2,337	34.2	2,584	34.0
2008	2,379	34.7	2,520	35.1	2,597	34.1
2009	2,110	33.5	2,129	34.0	2,213	32.8
2010	2,636	37.2	2,999	37.9	3,047	35.6
2011	2,585	37.9	2,648	37.3	2,826	37.0
2012	2,526	37.2	2,525	35.8	2,753	37.1
2013	2,206	35.4	2,363	35.1	2,491	35.1
2014	2,266	37.0	2,299	35.4	2,442	34.6
2015	2,956	36.4	2,883	36.5	3,026	35.4
2016	2,426	37.7	2,549	37.9	2,657	37.6
2017	2,413	37.4	2,560	37.8	2,558	37.3
2018	2,338	36.8	2,446	36.1	2,604	35.4
2019	2,295	36.6	2,474	36.7	2,569	36.0
2020	2,535	36.2	2,543	36.5	2,770	36.5
2021	-	-	2,270	36.5	2,299	34.9
2022	-	-	-	-	2,341	36.1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4-28>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이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은 평균 임금(약 259만 원)을 보고한 반면, 평균 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이 36.7시간으로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8>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2019		2020		202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2,592	37.3	2,646	37.1	2,764	36.5
사회서비스제공형	1,904	32.6	1,980	32.9	2,097	32.4
혼합형	1,893	32.8	2,006	32.9	2,035	31.8
기타(창의・혁신)형	2,394	35.9	2,525	36.2	2,652	35.9
지역사회공헌형	2,339	38.2	2,420	38.2	2,470	36.7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아래 <표 4-29>는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이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은 평균 임금(약 346만 원)과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약 39.1시간)을 보고한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낮은 평균 임금(약 194만 원)과 가장 낮은 평균 근로시간(약 32.1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9>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2020		2021		2022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민법상법인	2,220	35.4	2,361	35.5	2,399	34.1
비영리민간단체	1,835	33.5	1,995	34.5	1,958	32.8
사회복지법인	3,108	38.8	3,341	39.1	3,464	39.1
상법상회사	2,569	36.9	2,646	37.0	2,779	36.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00	33.9	1,789	31.6	1,942	32.1
영농조합법인	2,271	38.7	2,330	38.6	2,491	38.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052	34.7	2,085	34.2	2,155	33.3
기타	-	-	2,018	28.1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5>와 <표 부가분석 4-6>에는 앞서 정리한 유급 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일반근로자와 취약근로자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유급근로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0, 2021, 2022)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명, 천 원, 시간)

항목			2020	2021	2022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55,407	62,312	67,633
	인증연도	2007	1,950	1,940	1,927
		2008	3,352	3,461	3,493
		2009	2,427	2,122	2,307
		2010	3,893	3,682	3,739
		2011	2,685	2,548	2,621
		2012	1,916	2,187	2,197
		2013	4,396	4,535	4,825
		2014	4,473	4,455	4,700
		2015	5,371	5,161	5,414
		2016	4,033	3,968	4,047
		2017	3,174	2,926	2,845
		2018	5,603	5,975	5,793
		2019	5,650	5,741	5,486
		2020	6,484	7,366	7,519
		2021	-	6,245	7,064
		2022	-	-	3,65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1,725	46,890	50,854
		사회서비스제공형	3,769	4,874	5,362
		혼합형	4,175	4,448	4,866
		기타(창의・혁신)형	3,995	4,056	4,162
		지역사회공헌형	1,743	2,044	2,389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6,650	7,866	8,134
		비영리민간단체	487	649	429
		사회복지법인	2,981	3,021	3,055
		상법상회사	35,584	38,511	42,6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35	313	313
		영농조합법인	785	810	8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685	11,018	12,196
		기타	-	124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평균임금		2,028	2,057	2,156
	인증연도	2007	1,990	2,017	2,250
		2008	1,801	1,876	1,936
		2009	1,698	1,759	1,826
		2010	2,166	2,403	2,546
		2011	2,008	2,003	2,143

항목			2020	2021	2022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연도	2012	2,002	2,039	2,222
		2013	1,750	1,825	1,887
		2014	1,792	1,838	1,982
		2015	2,580	2,521	2,623
		2016	2,010	2,062	2,146
		2017	2,110	2,180	2,199
		2018	1,941	1,975	2,081
		2019	1,913	2,000	2,115
		2020	2,252	2,194	2,363
		2021	-	1,950	1,976
		2022	-	-	2,06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71	2,086	2,191
		사회서비스제공형	1,682	1,754	1,858
		혼합형	1,606	1,683	1,732
		기타(창의・혁신)형	2,271	2,387	2,518
		지역사회공헌형	2,209	2,285	2,315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760	1,839	1,894
		비영리민간단체	1,593	1,652	1,695
		사회복지법인	1,718	1,885	1,870
		상법상회사	2,179	2,207	2,3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45	1,672	1,791
		영농조합법인	2,105	2,212	2,31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46	1,769	1,835
		기타	-	1,392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전체 평균 시간		33.6	33.3	32.9
	인증연도	2007	33.5	32.8	32.2
		2008	31.1	31.1	30.3
		2009	29.2	30.6	29.5
		2010	34.6	35.3	33.2
		2011	35.2	34.2	33.7
		2012	33.3	32.7	33.7
		2013	31.6	31.2	30.6
		2014	32.5	31.1	31.6
		2015	35.7	35.5	34.8
		2016	34.7	34.4	34.0
		2017	35.4	34.7	34.0
		2018	33.3	32.5	32.3
		2019	33.0	32.7	32.8
		2020	34.9	34.5	34.3
		2021	-	34.0	33.0
		2022	-	-	34.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4.0	33.6	33.4
		사회서비스제공형	30.3	30.2	29.7
		혼합형	29.4	29.2	28.3
		기타(창의・혁신)형	35.1	35.4	34.8
		지역사회공헌형	37.7	37.4	35.8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1.8	31.7	30.6
		비영리민간단체	29.9	29.6	29.4
		사회복지법인	32.3	32.7	32.3
		상법상회사	34.4	34.3	34.0

항목			2020	2021	2022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조직형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3.6	31.7	31.6
		영농조합법인	37.7	38.0	37.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1.8	31.2	30.4
		기타	-	22.6	-
전체 취약근로자 수	전체		33,206	38,023	42,747
	인증연도	2007	967	975	1,029
		2008	2,074	2,187	2,329
		2009	1,591	1,496	1,646
		2010	2,315	2,257	2,421
		2011	1,632	1,607	1,710
		2012	1,183	1,330	1,361
		2013	2,585	2,816	3,170
		2014	2,894	2,847	3,130
		2015	3,266	3,183	3,411
		2016	2,364	2,348	2,504
		2017	1,827	1,678	1,708
		2018	3,554	3,837	3,909
		2019	3,341	3,392	3,361
		2020	3,613	4,386	4,586
		2021	-	3,684	4,383
		2022	-	-	2,08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7,114	31,033	34,700
		사회서비스제공형	1,937	2,422	2,787
		혼합형	2,532	2,831	3,105
		기타(창의・혁신)형	939	948	1,169
		지역사회공헌형	684	789	986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991	4,615	5,024
		비영리민간단체	256	355	222
		사회복지법인	2,180	2,230	2,343
		상법상회사	21,258	23,573	27,1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0	182	169
		영농조합법인	404	416	49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987	6,557	7,368
		기타	-	95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1,749	1,769	1,890
	인증연도	2007	1,669	1,701	1,958
		2008	1,445	1,500	1,606
		2009	1,481	1,604	1,670
		2010	1,845	2,027	2,273
		2011	1,636	1,626	1,779
		2012	1,678	1,726	1,896
		2013	1,430	1,496	1,571
		2014	1,533	1,577	1,751
		2015	2,338	2,297	2,386
		2016	1,716	1,726	1,831
		2017	1,887	1,897	1,960
		2018	1,713	1,712	1,829
		2019	1,649	1,673	1,829
		2020	2,028	1,956	2,103
		2021	-	1,728	1,779
		2022	-	-	1,853

항목			2020	2021	2022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789	1,800	1,924
		사회서비스제공형	1,471	1,525	1,637
		혼합형	1,419	1,499	1,560
		기타(창의・혁신)형	1,869	1,937	2,177
		지역사회공헌형	2,008	2,070	2,095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454	1,472	1,582
		비영리민간단체	1,374	1,367	1,450
		사회복지법인	1,208	1,369	1,385
		상법상회사	1,916	1,929	2,06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21	1,587	1,662
		영농조합법인	1,948	2,100	2,17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20	1,553	1,626
		기타	-	1,202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전체		31.7	31.3	31.3
	인증연도	2007	32.3	31.3	30.7
		2008	28.9	28.7	28.4
		2009	26.9	29.2	28.2
		2010	32.9	33.6	31.9
		2011	33.4	32.3	32.0
		2012	30.9	30.8	31.7
		2013	28.9	28.8	28.3
		2014	30.0	28.7	30.0
		2015	35.3	34.9	34.4
		2016	32.5	32.0	31.8
		2017	34.0	32.5	31.8
		2018	31.3	30.5	30.9
		2019	30.6	29.9	30.7
		2020	33.9	33.1	32.9
		2021	-	32.3	31.9
		2022	-	-	32.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2.2	31.9	31.9
		사회서비스제공형	28.0	27.6	27.1
		혼합형	27.2	27.0	26.3
		기타(창의・혁신)형	32.8	32.7	31.9
		지역사회공헌형	36.8	36.2	34.4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9.4	29.0	28.5
		비영리민간단체	26.7	25.6	26.3
		사회복지법인	29.9	30.4	30.2
		상법상회사	32.8	32.5	3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3.2	31.8	31.2
		영농조합법인	36.7	37.3	36.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9.7	29.2	28.4
		기타	-	20.9	-
전체 일반인근로자 수	전체		22,201	24,289	24,886
	인증연도	2007	983	965	898
		2008	1,278	1,274	1,164

항목			2020	2021	2022
일반인근로자수	인증연도	2009	836	626	661
		2010	1,578	1,425	1,318
		2011	1,053	941	911
		2012	733	857	836
		2013	1,811	1,719	1,655
		2014	1,579	1,608	1,570
		2015	2,105	1,978	2,003
		2016	1,669	1,620	1,543
		2017	1,347	1,248	1,137
		2018	2,049	2,138	1,884
		2019	2,309	2,349	2,125
		2020	2,871	2,980	2,933
		2021	-	2,561	2,681
		2022	-	-	1,56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4,611	15,857	16,154
		사회서비스제공형	1,832	2,452	2,575
		혼합형	1,643	1,617	1,761
		기타(창의・혁신)형	3,056	3,108	2,993
		지역사회공헌형	1,059	1,255	1,403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659	3,251	3,110
		비영리민간단체	231	294	207
		사회복지법인	801	791	712
		상법상회사	14,326	14,938	15,49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5	131	144
		영농조합법인	381	394	39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698	4,461	4,828
		기타	-	29	-
전체 일반인 근로자평균임금	전체		2,444	2,509	2,614
	인증연도	2007	2,305	2,337	2,584
		2008	2,379	2,520	2,597
		2009	2,110	2,129	2,213
		2010	2,636	2,999	3,047
		2011	2,585	2,648	2,826
		2012	2,526	2,525	2,753
		2013	2,206	2,363	2,491
		2014	2,266	2,299	2,442
		2015	2,956	2,883	3,026
		2016	2,426	2,549	2,657
		2017	2,413	2,560	2,558
		2018	2,338	2,446	2,604
		2019	2,295	2,474	2,569
		2020	2,535	2,543	2,770
		2021	-	2,270	2,299
		2022	-	-	2,34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592	2,646	2,764
		사회서비스제공형	1,904	1,980	2,097
		혼합형	1,893	2,006	2,035
		기타(창의・혁신)형	2,394	2,525	2,652
		지역사회공헌형	2,339	2,420	2,470

항목			2020	2021	2022
전체 일반인 근로자평균임금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220	2,361	2,399
		비영리민간단체	1,835	1,995	1,958
		사회복지법인	3,108	3,341	3,464
		상법상회사	2,569	2,646	2,77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00	1,789	1,942
		영농조합법인	2,271	2,330	2,49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052	2,085	2,155
		기타	-	2,018	-
전체 일반인 근로자평균 근로시간	전체		36.4	36.3	35.7
	인증연도	2007	34.6	34.2	34.0
		2008	34.7	35.1	34.1
		2009	33.5	34.0	32.8
		2010	37.2	37.9	35.6
		2011	37.9	37.3	37.0
		2012	37.2	35.8	37.1
		2013	35.4	35.1	35.1
		2014	37.0	35.4	34.6
		2015	36.4	36.5	35.4
		2016	37.7	37.9	37.6
		2017	37.4	37.8	37.3
		2018	36.8	36.1	35.4
		2019	36.6	36.7	36.0
		2020	36.2	36.5	36.5
		2021	-	36.5	34.9
		2022	-	-	36.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7.3	37.1	36.5
		사회서비스제공형	32.6	32.9	32.4
		혼합형	32.8	32.9	31.8
		기타(창의・혁신)형	35.9	36.2	35.9
		지역사회공헌형	38.2	38.2	36.7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5.4	35.5	34.1
		비영리민간단체	33.5	34.5	32.8
		사회복지법인	38.8	39.1	39.1
		상법상회사	36.9	37.0	36.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3.9	31.6	32.1
		영농조합법인	38.7	38.6	38.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4.7	34.2	33.3
		기타	-	28.1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명, 천 원, 시간)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812	2,435	1,433	3,550	1,816	1,875	1,604	1,160	17,784	3,611	2,104	2,107	2,763	1,747	3,562	2,922	1,348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403	3,452	11	730	5,118	17,727	94	13,254	1,416	2,117	384	56	1,111	16,266	1,124	2,483	887
전체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0	1,812.0	1,847.0	1,838.0	1,998.0	2,195.0	1,978.0	1,769.0	2,233.0	2,805.0	2,192.0	2,084.0	2,210.0	2,223.0	2,708.0	2,071.0	2,105.0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329.0	1,960.0	2,966.0	1,879.0	2,324.0	1,692.0	2,744.0	2,260.0	1,958.0	2,022.0	2,615.0	2,482.0	2,719.0	2,119.0	2,489.0	4,877.0	1,915.0
전체 유급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4	32.0	32.9	32.7	32.2	35.6	33.0	31.8	32.7	36.4	32.1	32.7	33.5	35.0	35.6	32.7	33.2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6.1	32.0	40.0	34.3	35.3	29.1	35.5	33.7	32.4	34.0	37.0	37.5	36.6	33.7	36.3	39.4	33.6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 명, 천 원, 시간)

전체 취약근로자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36	1,593	847	2,540	1,092	1,237	1,048	882	11,625	2,092	1,211	1,292	1,590	977	2,032	1,863	790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807	1,382	-	494	2,421	12,310	24	10,230	830	802	192	35	420	10,545	421	1,213	621
전체 취약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88.0	1,607.0	1,705.0	1,670.0	1,659.0	1,955.0	1,823.0	1,683.0	1,946.0	2,640.0	1,888.0	1,931.0	1,942.0	1,967.0	2,465.0	1,920.0	1,823.0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146.0	1,688.0	-	1,711.0	2,053.0	1,590.0	1,965.0	2,045.0	1,708.0	1,800.0	2,201.0	2,322.0	2,301.0	1,741.0	2,019.0	4,723.0	1,740.0
전체 취약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3	29.9	31.1	31.7	29.5	34.9	32.3	31.3	31.4	35.3	29.6	32.3	31.4	33.0	33.9	31.6	31.1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4.8	29.4	-	33.2	33.7	28.2	31.8	32.9	30.3	31.6	35.3	37.0	33.4	31.3	32.8	39.5	32.7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 명, 천 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76	842	586	1,010	724	638	556	278	6,159	1,519	893	815	1,173	770	1,530	1,059	558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596	2,070	11	236	2,697	5,417	70	3,024	586	1,315	192	21	691	5,721	703	1,270	266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89.0	2,200.0	2,052.0	2,259.0	2,509.0	2,660.0	2,269.0	2,042.0	2,775.0	3,032.0	2,604.0	2,327.0	2,574.0	2,547.0	3,031.0	2,337.0	2,503.0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578.0	2,142.0	2,966.0	2,232.0	2,567.0	1,925.0	3,011.0	2,988.0	2,311.0	2,157.0	3,028.0	2,748.0	2,973.0	2,814.0	2,756.0	5,024.0	2,324.0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1	35.9	35.5	35.4	36.4	37.0	34.2	33.4	35.2	37.8	35.6	33.3	36.3	37.6	37.8	34.8	36.1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7.8	33.7	40.0	36.7	36.7	31.0	36.8	36.5	35.3	35.6	38.8	38.3	38.5	38.1	38.4	39.3	35.6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행정자료를 활용해 2020~2022년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다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최근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해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이나 성과는 일부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성에 있어 예년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원금 총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지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부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은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2021년에 3,053개소에서 2022년 3,202개소로 증가하였고, 기타민간지원금이 감소하고 정부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대전에 소재한 기업의 지원금 총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전년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근로자 총인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평균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완화 등으로 인해 2022년 기업당 고용이 증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평균임금은 취약계층, 일반인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경우 각각 소폭의 등락은 있었으나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총매출액은 다소 증가하였고, 평균과 중위값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하락세에 있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37만 원)은 적은 금액이나마 영업이익을 보고했으나, 다른 인증유형은 그렇지 않았다. 혼합형(-4,776만 원)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3,076만 원), 지역사회공헌형(-1,505만 원), 일자리제공형(-1,154만 원) 순으로 손실이 컸다. 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에 당기순이익 총액, 평균, 중위값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에 0원 이하의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보다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5-1>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구분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021년에 비해 378개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해, 202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3,441개소. • 인증연도별로는 2020년 및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인증 기업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6.5%),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67.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지원금 및 기타영업외 수익	• 사회적기업 전체의 지원금 총액은 393,835,925천 원으로 2021년에 비해 약 3.7% 감소했으며, 지원금 총액 중 정부지원금이 75.6%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전체평균은 약 122,997천 원이고 중위값은 57,370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평균과 중위값이 각각 108,067천 원과 54,420천 원으로 소폭 감소함.
취약계층 및 일반인 고용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2년 기준 42,7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1년과 동일하게 유지됨(13.6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조직형태에서는 상법상회사가 기업당 취약계층 유급근로자가 많음.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2년 기준 24,886명.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1년에 비해 감소함(8.3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 조직형태에서는 상법상회사에서 기업당 일반인 근로자 수가 많음. •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1,890천 원으로 2021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1.3시간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인 평균임금은 약 2,614천 원으로 2021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5.7시간으로 2021년에 비해 감소. 일반인 평균임금 대비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2021년에 비해 소폭 증가(72.3%).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2년 1,553개소로 2021년에 비해 증가함.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전체 인원 6,734,11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중위값 258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기업의 2022년 총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2,567,653명, 중위값은 820명으로 나타남. 2021년에 비해 총 수혜 인원과 중위값 모두 증가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시계열자료 기술분석 결과, 총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증가함.

<표 5-1>의 계속

구분	분석결과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은 3,126개소, 기타회의체(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활용하는 주체는 766개소임. 2022년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2.9%, 수혜자 참여비율은 1.9%,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비율은 18.8%로 나타났고, 기타 회의체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4.1%, 수혜자 참여비율은 9.8%, 지역사회구성원 참여비율은 20.2%로 나타남. 2021년과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응답기업 중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보고한 기업은 총 2,380개소이며, 전체 재투자액은 223,502,760천 원으로 나타남. • 기업 수로는 근로자 처우개선과 지역사회 재투자, 총금액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던 반면,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음.
수입 구조	•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6,854,081,7781천 원을 보임.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2,017,093천 원, 중위값은 654,783천 원으로 모두 증가함. 지역마다 민간시장매출과 공공시장매출 간 비중 차이가 있었음. • 2022년 영업이익 총액 -48,048,713천 원, 평균 및 중위값은 각각 -14,120천 원, -1,605천 원임. 2021년과 비교 했을 때 총액이나 평균, 중위값 모두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총액은 104,254,230천 원, 평균은 30,717천 원, 중위값은 12,441천 원으로 다소 증가함.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기업의 비율은 70.1%로 꾸준히 증가함.
지출 구조	• 매출원가 총액은 4,255,622,482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매출원가 평균(1,746,255천 원) 및 중위값(359,070천 원)은 전년 대비 증가함. • 판매관리비(경비 포함) 총액은 3,219,684,222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1년에 비해 평균(945,020천 원)과 중위값(407,294천 원)으로 모두 증가함. • 영업외비용 총액은 144,653,932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1년에 비해 영업외비용 평균(44,482천 원)은 감소하고, 중위값(7,971천 원)은 증가함. • 노무비 총액은 1,986,346,184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1년에 비해 노무비 평균(584,563천 원)은 증가했으나, 중위값(232,820천 원)은 소폭 감소함.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은 2021년에 비해 증가하여 2022년 평균 131,023천 원, 중위값도 증가하여 78,570천 원을 나타냄.

마지막으로 <표 5-2>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수입 항목과 비용 항목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은 매년 감소하여 최근 2년 동안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 중의 하나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출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표5-2>에서 나타나듯이 매출액은 최근 3개년 동안 13.8% 증가하였지만 인건비는 17.3%를 증가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중 다른 항목들은 증가율이 높다하더라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단, 이는 매출액 등 각 항목의 총액의 증감비율을 살펴본 것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입구조와 비용구조를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이는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한 종합분석 및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 사회적기업 수입구조 및 비용구조 요약 (2020~2022)

(단위 : 천 원)

항목		2020	2021	2022	증가율
매출액		5,293,913,658	5,975,954,691	6,854,081,778	13.8%
매출원가		3,431,400,791	3,805,040,700	4,255,622,482	11.4%
판매비와관리비		2,262,581,746	2,679,420,397	3,219,684,222	19.3%
	인건비	1,443,046,364	1,689,129,985	1,986,346,184	17.3%
	복리후생비	62,832,305	74,698,742	90,843,139	20.2%
	(연구)인력개발비	507,792	1,573,824	640,024	12.3%
	교육훈련비	2,518,404	3,233,070	4,399,546	32.2%
	경상연구개발비	18,453,076	26,187,755	28,007,630	23.2%
	기타	1,085,649,479	1,289,042,293	1,574,538,836	20.4%
영업이익		11,203,041	-35,101,092	-48,048,714	-
당기순이익		139,739,052	78,310,101	104,254,230	-13.6%

주 : 인건비=인력비용+임원급여+직원급여+상여금+성과급+잡급(일용급여)+제수당+퇴직급여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인건비-복리후생비-(연구)인력개발비-교육훈련비-경상연구개발비
판매비와관리비(총액, 각 항목)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관리비와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를 포함한 값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부록]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정책 자료 등과 복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기업들과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현황, 재무성과, 기업분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사회적기업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수, 사업체,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또한 시군구 단위 현황을 GIS를 통해 분포를 시각화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파악하였다.

1. 사회적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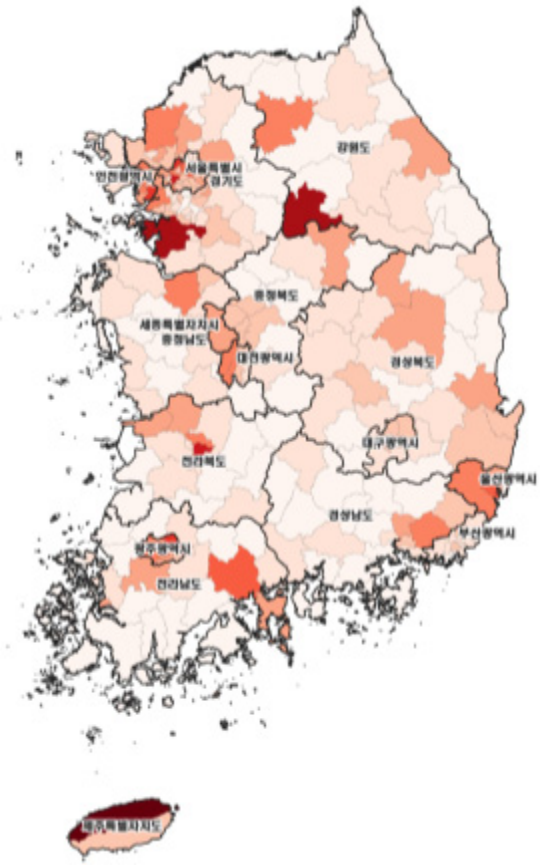
2022년 사회적기업의 시도 및 시군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기도가 619개로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가 596개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28개, 제주특별자치도가 90개 순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70개), 경기도 화성시(58개), 강원도 원주시(57개) 등이 사회적기업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부1-1> 2022년 사회적기업 시도 분포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2022년 기준)	
		개소	순위
합계		3,534	-
1	서울	596	2
2	부산	163	9
3	대구	134	13
4	인천	209	4
5	광주	147	10
6	대전	112	15
7	울산	119	14
8	세종	28	17
9	경기	619	1
10	강원	204	5
11	충북	147	10
12	충남	144	12
13	전북	200	6
14	전남	198	7
15	경북	242	3
16	경남	182	8
17	제주	90	16

[그림 부1-1] 2022년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



<표 부1-2> 2022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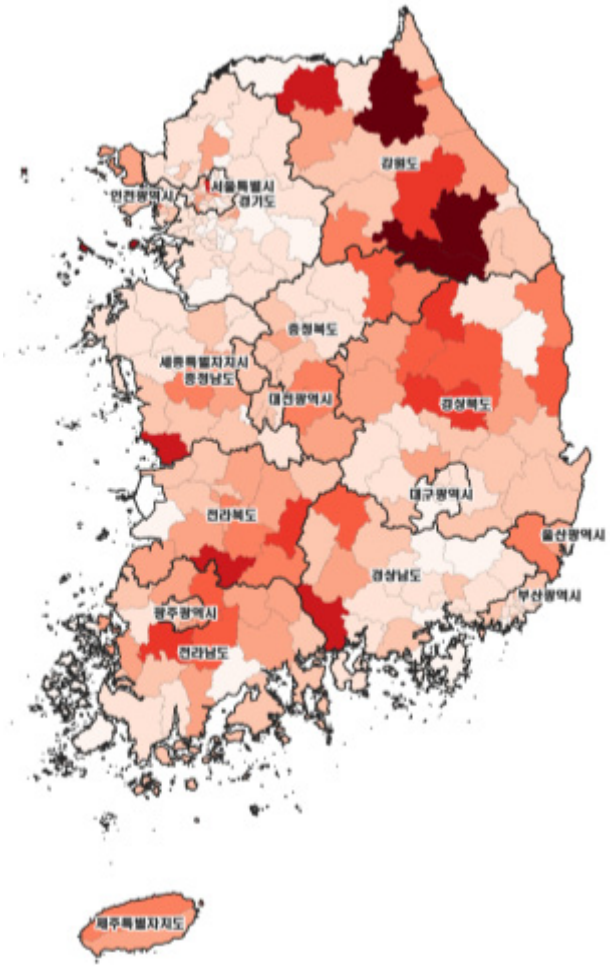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0	25	16	8	10	5	5	5	1	42	18	14	16	15	22	24	22	2
1	0~7이하	83	1	5		1			1		8	10	7	7	7	14	9	13	
2	7~14이하	71	4	9	2	3		1			16	5	2	7	4	4	9	5	
3	14~21이하	43	9	2	5	2	1	2	1		10		4	1			3	2	1
4	21~28이하	26	5		1	1	1		1	1	5	1	1		2	3	3	1	
5	28~35이하	15	2			2	2	2	1		2	1		1	1			1	
6	35~42이하	2	1												1				
7	42~49이하	7	3			1	1		1							1			
8	49~56이하	0																	
9	56~63이하	2									1	1							
10	63~70이하	1																	1

2.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와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사회적기업 수가 13.3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개소 수가 가장 많았으나 인구수 역시 13,589,432명으로 가장 많은 만큼, 인구 10만 명당 사회적기업 수는 4.6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 당 사회적기업 밀집도를 10단계로 구분하여 GIS로 파악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제외한 상위 9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개소 수는 '군' 지역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부1-2] 2022년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표 부1-3>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구분		사회적기업 (2022년 기준)		총인구수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사회적기업	
		개소	순위	명	순위	명	순위
합계		3,534	-	51,439,038	-	6.9	-
1	서울	596	2	9,428,372	2	6.3	13
2	부산	163	9	3,317,812	3	4.9	16
3	대구	134	13	2,363,691	7	5.7	14
4	인천	209	4	2,967,314	5	7.0	11
5	광주	147	10	1,431,050	14	10.3	6
6	대전	112	15	1,446,072	13	7.7	9
7	울산	119	14	1,110,663	15	10.7	5
8	세종	28	17	383,591	17	7.3	10
9	경기	619	1	13,589,432	1	4.6	17
10	강원	204	5	1,536,498	12	13.3	1
11	충북	147	10	1,595,058	11	9.2	8
12	충남	144	12	2,123,037	8	6.8	12
13	전북	200	6	1,769,607	10	11.3	3
14	전남	198	7	1,817,697	9	10.9	4
15	경북	242	3	2,600,492	6	9.3	7
16	경남	182	8	3,280,493	4	5.5	15
17	제주	90	16	678,159	16	13.3	1

<표 부1-4> 2022년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0	25	16	8	10	5	5	5	1	42	18	14	16	15	22	24	22	2
1	0~3.4이하	34	4	3	1				1		13	1		1	1	3	1	5	
2	3.4~6.9이하	87	12	8	5	4		1			25	2	4	8		3	5	10	
3	6.9~10.3이하	55	4	4		3	1	3	1	1	2	5	4	4	5	7	7	4	
4	10.3~13.7이하	35	1	1	1	1	3	1	2		2	3	2	1	4	6	5	1	1
5	13.7~17.2이하	15	2				1		1			2	3	1	3		1		1
6	17.2~20.6이하	9			1	1							1			2	3	1	
7	20.6~24이하	6	1									1			1	1	2		
8	24~27.5이하	5	1									1		1	1			1	
9	27.5~30.9이하	1				1													
10	30.9~34.4이하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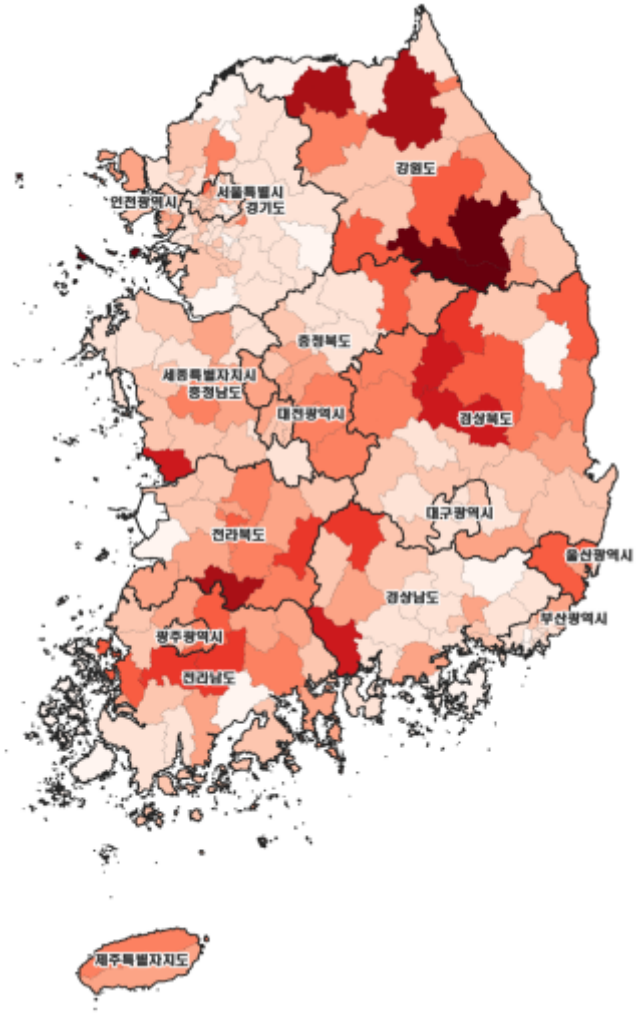
* 시군구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치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일반구·행정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3.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울산광역시가 사업체 1만 개당 사회적기업 수가 10.3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10.2개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산광역시가 4.1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사업체 1만 개당 사회적기업 밀집도를 10단계로 구분하여 GIS로 파악한 결과, 인천 1개, 강원 2개 지역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3]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표 부1-5>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구분		사회적기업 (2022년 기준)		사업체 현황 (2021년 기준)		사업체 1만 개 당 사회적기업	
		개소	순위	명	순위	명	순위
합계		3,534	-	6,079,702	-	5.8	-
1	서울	596	2	1,188,091	2	5.0	13
2	부산	163	9	401,254	3	4.1	17
3	대구	134	13	279,798	7	4.8	14
4	인천	209	4	308,892	6	6.8	10
5	광주	147	10	170,973	13	8.6	5
6	대전	112	15	164,095	14	6.8	10
7	울산	119	14	115,408	15	10.3	1
8	세종	28	17	30,478	17	9.2	4
9	경기	619	1	1,481,054	1	4.2	16
10	강원	204	5	200,365	11	10.2	2
11	충북	147	10	194,561	12	7.6	8
12	충남	144	12	261,263	8	5.5	12
13	전북	200	6	231,380	10	8.6	5
14	전남	198	7	234,688	9	8.4	7
15	경북	242	3	328,657	5	7.4	9
16	경남	182	8	392,614	4	4.6	15
17	제주	90	16	96,131	16	9.4	3

<표 부1-6>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0	25	16	8	10	5	5	5	1	42	18	14	16	15	22	24	22	2
1	0.0~2.3이하	19	2	3							5	1			1	3	1	3	
2	2.3~4.7이하	75	8	9	5	1			1		23	3	4	7		2	3	9	
3	4.7~7.0이하	70	11	2	2	4	1	3			12	4	2	5	4	6	9	5	
4	7.0~9.3이하	36	2	2		3	1	2	1	1		2	4	2	4	6	2	3	1
5	9.3~11.7이하	23	1		1	1	2		1		2	2	3	1	3	1	4		1
6	11.7~14.0이하	12	1				1		2			2	1		1	2	2		
7	14.0~16.3이하	5													1	2	1	1	
8	16.3~18.7이하	4												1			2	1	
9	18.7~21이하	3										2			1				
10	21.0~23.4이하	3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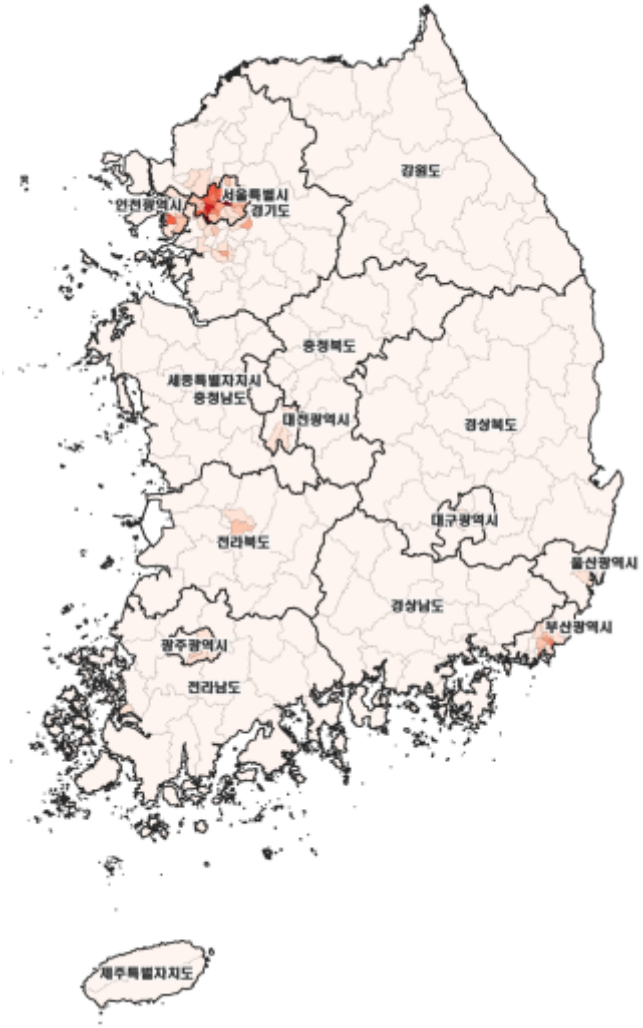
* 시군구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치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일반구·행정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4.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특별시가 면적 100㎢ 당 사회적기업 수가 98.5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29.3개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도가 1.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면적 대비 밀집도를 10단계로 구분하여 GIS로 파악한 결과,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구 지역으로 나타나,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개소 수는 '구' 지역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부1-4] 2022년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표 부1-7>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구분		사회적기업 (2022년 기준)		면적 (2022년 기준)		면적 100㎢ 당 사회적기업	
		개소	순위	㎢	순위	명	순위
합계		3,534	-	100,443.6	-	3.5	-
1	서울	596	2	605.2	14	98.5	1
2	부산	163	9	771.3	13	21.1	3
3	대구	134	13	885.2	12	15.1	6
4	인천	209	4	1,067.0	10	19.6	5
5	광주	147	10	501.0	16	29.3	2
6	대전	112	15	539.7	15	20.8	4
7	울산	119	14	1,062.8	11	11.2	7
8	세종	28	17	464.9	17	6.0	9
9	경기	619	1	10,199.5	5	6.1	8
10	강원	204	5	16,830.1	2	1.2	17
11	충북	147	10	7,407.4	8	2.0	12
12	충남	144	12	8,247.2	6	1.7	13
13	전북	200	6	8,073.2	7	2.5	11
14	전남	198	7	12,360.5	3	1.6	15
15	경북	242	3	19,036.4	1	1.3	16
16	경남	182	8	10,541.7	4	1.7	13
17	제주	90	16	1,850.2	9	4.9	10

<표 부1-8>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0	25	16	8	10	5	5	5	1	42	18	14	16	15	22	24	22	2
1	0~26.1이하	179	1	6	4	3	1	2	3	1	28	18	14	16	13	21	24	22	2
2	26.1~52.2이하	32	3	4	2	3	3	3	1		11				1	1			
3	52.2~78.3이하	15	6	3		2	1		1		1				1				
4	78.3~104.4이하	8	4	1	1						2								
5	104.4~130.5이하	4	3	1															
6	130.5~156.6이하	6	4			2													
7	156.6~182.7이하	1		1															
8	182.7~208.8이하	1	1																
9	208.8~234.9이하	1			1														
10	234.9~261이하	3	3																

* 시군구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치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일반구·행정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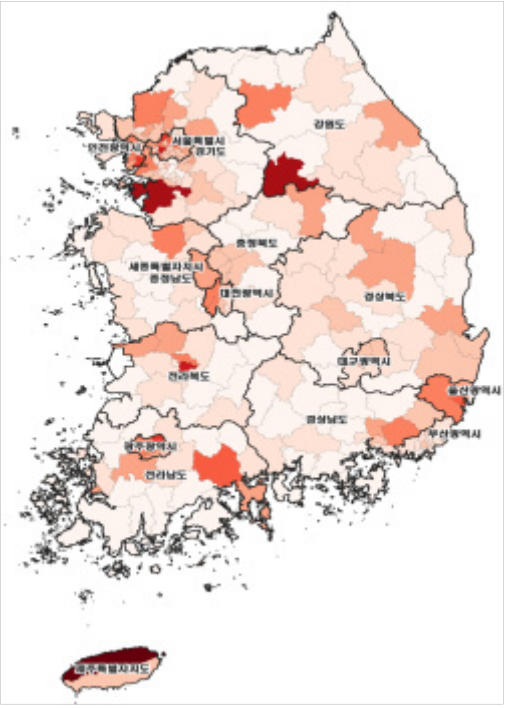
5. 사회적기업 분포 종합진단

사회적기업의 수를 인구, 사업체, 면적 대비로 비교한 결과, 단순 사회적기업 수로 파악했을 때는 도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구 또는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개소 수를 분석하였을 때는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밀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은 인구의 부족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수익성 창출이 어려워 기업 유치가 어렵고,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의 인구를 다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또 이러한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농촌 지역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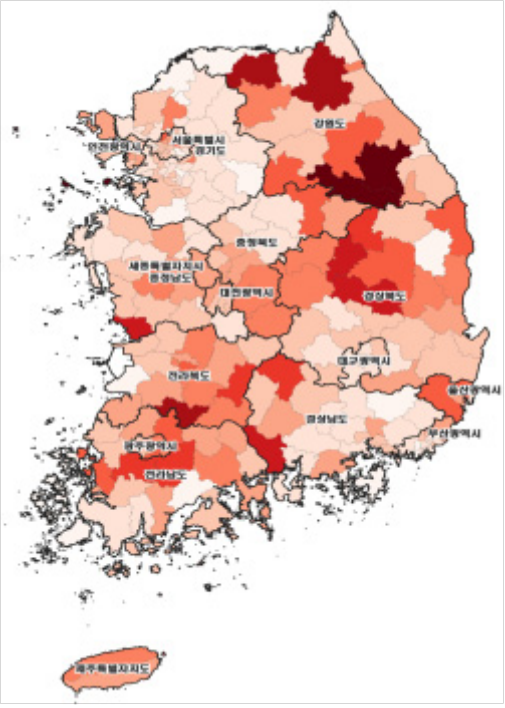
하지만 다양한 사회문제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사회적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농촌 지역이더라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경향이 결국 인구 및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그림 부1-5]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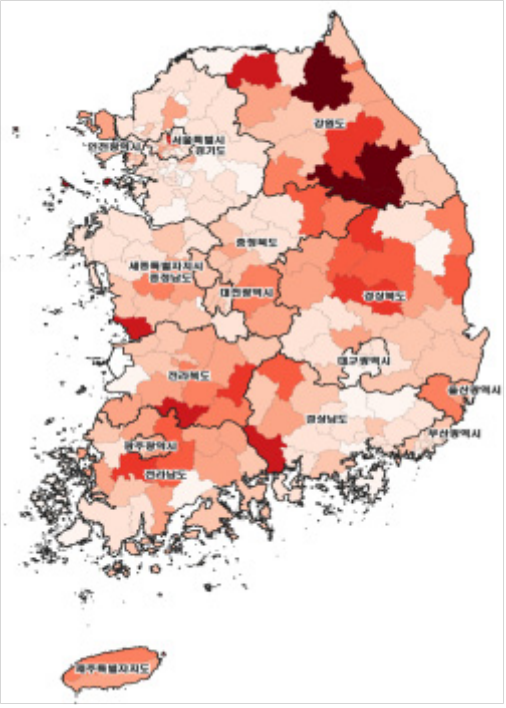


[그림 부1-6]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그림 부1-7]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그림 부1-8]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제2절 사회적 및 경제적성과 비교

일반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발생시키고 있는 상대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정책 자료 및 연구자료 등의 2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제 동향, 고용시장 상황 등의 거시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객관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1.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비교

1) 3개년(2020~2022)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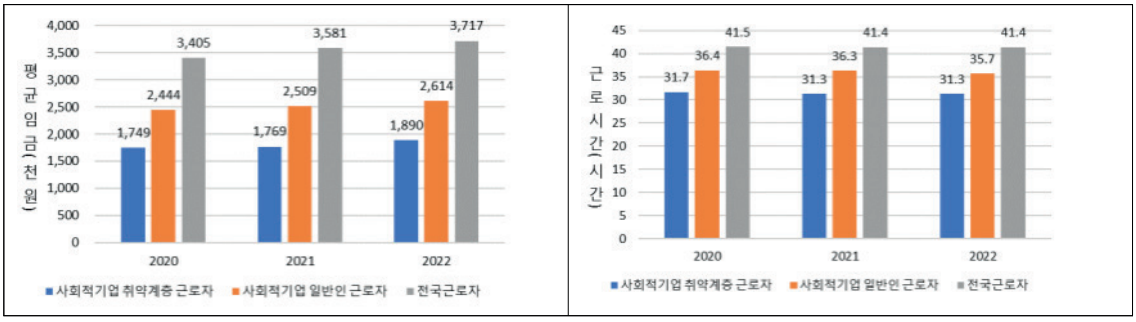
먼저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 근로자의 3개년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림 부2-1], <표 부2-1>을 보면 2022년 기준 전국근로자의 월 임금은 3,717천 원, 주 근로시간은 41.4시간, 근로시간당 임금은 22.4천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기업의 일반인 근로자의 월 임금은 2,614천 원, 주 근로시간은 35.7시간, 근로시간 당 임금은 18.3천 원,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의 월 임금은 1,749천 원, 평균 근로시간은 31.3시간, 근로시간당 임금은 15.1천 원으로 나타나, 전국근로자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당 임금은 모두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근로자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 부2-1>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기업의 일반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당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근로의 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최근 3개 근로시간당 임금상승률도 전국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이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업의 자원을 투입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월 임금, 평균 주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표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당 임금

(단위 : 천 원)

구분		월 임금			주 근로시간			근로시간 당 임금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상승률 (3개년)
전국근로자		3,405	3,581	3,717	41.5	41.4	41.4	20.5	21.6	22.4	4.5%
사회적 기업	일반근로자	2,444	2,509	2,614	36.4	36.3	35.7	16.8	17.3	18.3	4.4%
	취약계층 근로자	1,749	1,769	1,890	31.7	31.3	31.3	13.8	14.1	15.1	4.6%

주: 주 근로시간 = 상용근로시간/상용근로일수X5
근로시간당 임금 = 월평균임금/주근로시간/4주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고용노동부(2022a).

2) 시도별 월평균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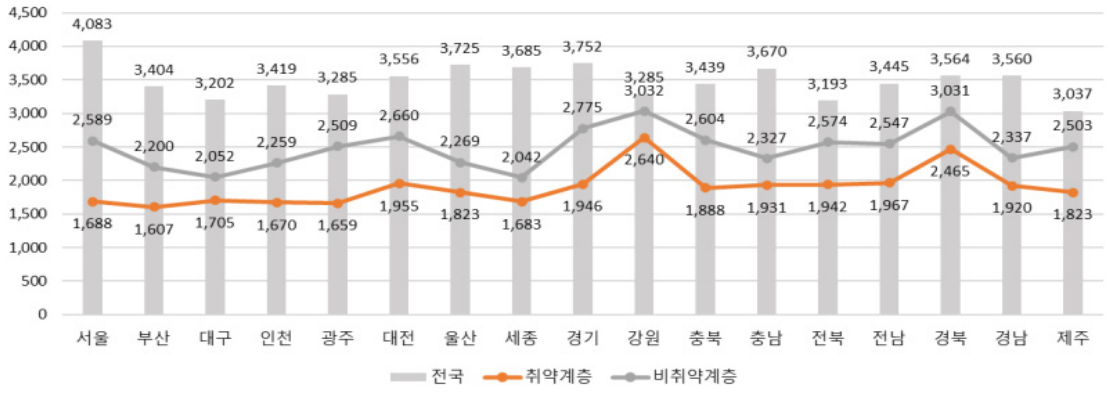
2022년 월평균 임금을 시도 간 비교한 결과 일반근로자는 서울특별시가 4,083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강원도가 비취약계층 3,032천 원, 취약계층은 2,640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 임금 차이가 가장 큰 지역 또한 서울특별시로 임금 차이는 901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359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 및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가 발생함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상되며, 시도별 업종에 따른 임금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 천 원, %)



<표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 천 원, %)

지역	평균임금			임금 비율	
	일반근로자	사회적기업		취약/전국	비취약/전국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전체	3,717	1,890	2,614	50.8	70.3
서울	4,083	1,688	2,589	41.3	63.4
부산	3,404	1,607	2,200	47.2	64.6
대구	3,202	1,705	2,052	53.2	64.1
인천	3,419	1,670	2,259	48.8	66.1
광주	3,285	1,659	2,509	50.5	76.4
대전	3,556	1,955	2,660	55.0	74.8
울산	3,725	1,823	2,269	48.9	60.9
세종	3,685	1,683	2,042	45.7	55.4
경기	3,752	1,946	2,775	51.9	74.0
강원	3,285	2,640	3,032	80.4	92.3
충북	3,439	1,888	2,604	54.9	75.7
충남	3,670	1,931	2,327	52.6	63.4
전북	3,193	1,942	2,574	60.8	80.6
전남	3,445	1,967	2,547	57.1	73.9
경북	3,564	2,465	3,031	69.2	85.1
경남	3,560	1,920	2,337	53.9	65.6
제주	3,037	1,823	2,503	60.0	82.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고용노동부(2022a)

3) 시도별 평균 주 근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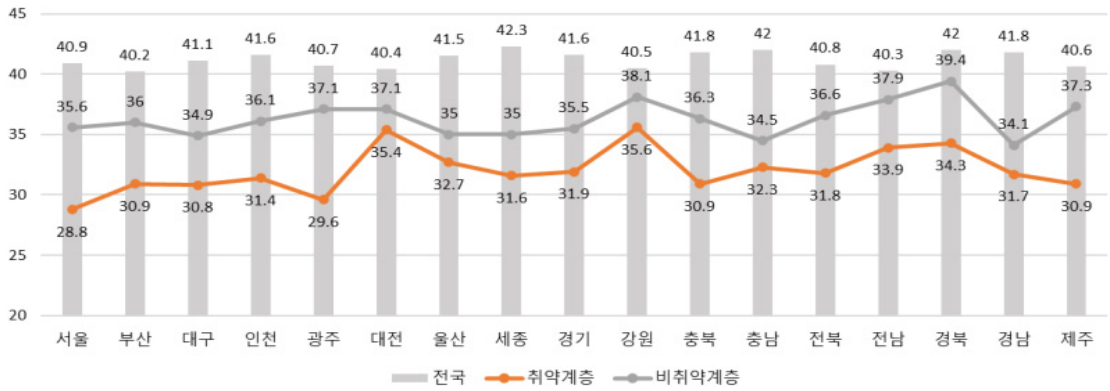
2022년 평균 주 근로시간을 시도 간 비교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반근로자가 42.3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비취약계층은 경상북도가 39.4시간, 취약계층은 강원도가 35.6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취약계층은 35.4시간, 비취약계층은 37.1시간으로 1.7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취약계층 29.6시간, 비취약계층 37.1시간으로 7.5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 및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예상되며, 시도별 업종에 따른 임금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주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고용노동부(2021a).

<표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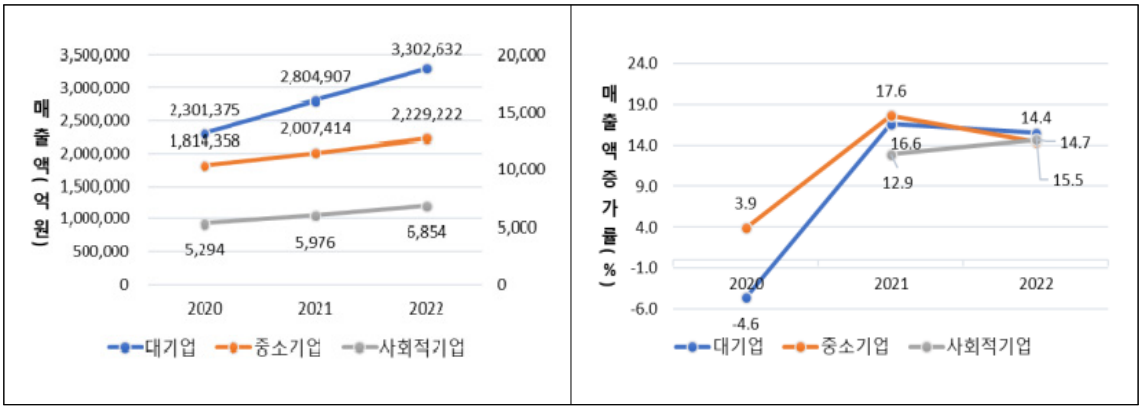
지역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 비율	
	전국	사회적기업		취약/전국	비취약/전국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전체	41.4	31.4	36.1	75.9	87.3
서울	40.9	28.8	35.6	70.4	87.0
부산	40.2	30.9	36.0	76.8	89.4
대구	41.1	30.8	34.9	75.0	84.8
인천	41.6	31.4	36.1	75.6	86.8
광주	40.7	29.6	37.1	72.8	91.1
대전	40.4	35.4	37.1	87.6	91.9
울산	41.5	32.7	35.0	78.8	84.4
세종	42.3	31.6	35.0	74.8	82.6
경기	41.6	31.9	35.5	76.8	85.4
강원	40.5	35.6	38.1	87.9	94.2
충북	41.8	30.9	36.3	73.9	86.8
충남	42.0	32.3	34.5	76.8	82.1
전북	40.8	31.8	36.6	77.9	89.8
전남	40.3	33.9	37.9	84.0	94.1
경북	42.0	34.3	39.4	81.8	93.7
경남	41.8	31.7	34.1	75.9	81.5
제주	40.6	30.9	37.3	76.0	91.8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매출액의 변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업의 매출액은 3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2022년 기준 대기업은 3,302,632억 원, 중소기업은 2,229,22억 원, 사회적기업은 6,854억 원의 매출액 규모를 보였다.

2022년 기준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이 15.5%, 중소기업이 14.4%, 사회적기업이 14.7%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021년에 16.6%와 17.6%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사회적기업은 2021년 12.9%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1), 한국은행(2022).

<표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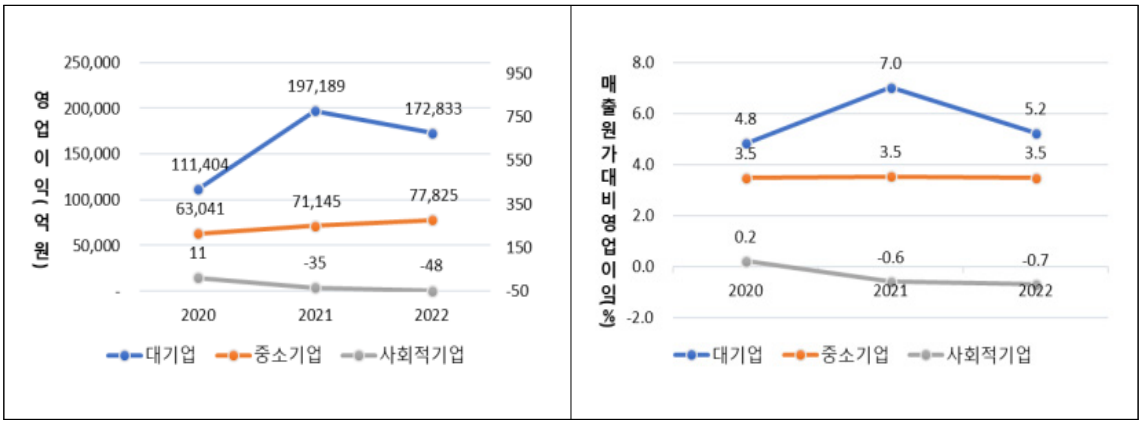
규모	매출액(백만 원)			매출액 증가(%)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대기업	2,301,375,271	2,804,906,596	3,302,632,020	-4.6	16.6	15.5
중소기업	1,814,358,189	2,007,413,951	2,229,221,847	3.9	17.6	14.4
사회적기업	5,293,914	5,975,955	6,854,082	-	12.9	14.7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영업이익의 변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172,833억 원, 중소기업이 77,825억 원, 사회적기업이 -48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3.5%, 사회적기업이 -0.7%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변화는 영업이익과 비슷한 양상이었고, 중소기업은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1), 한국은행(2022).

<표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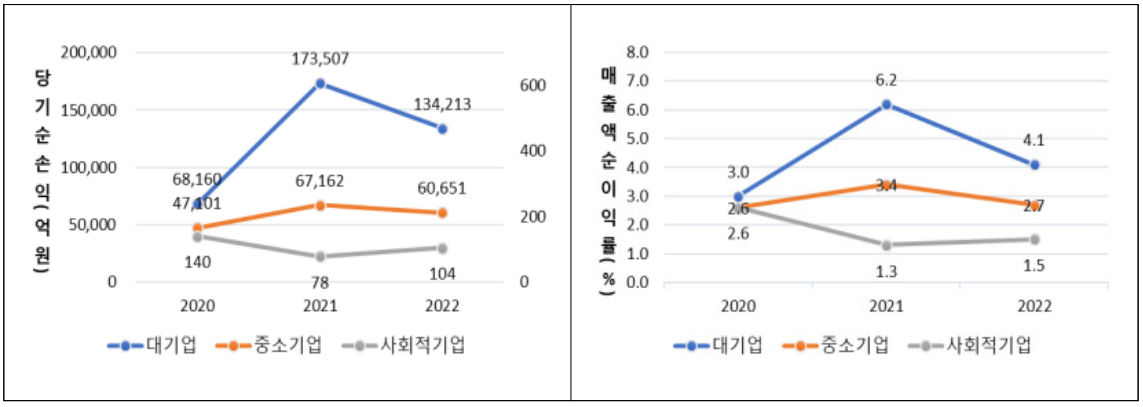
규모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대기업	111,404,199	197,189,270	172,832,683	4.8	7.0	5.2
중소기업	63,040,688	71,144,975	77,824,891	3.5	3.5	3.5
사회적기업	11,203	-35,101	-48,049	0.2	-0.6	-0.7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영업이익의 변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대기업이 134,213억 원, 중소기업이 60,651억 원, 사회적기업이 104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한 반면, 사회적기업은 2022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이 4.1%, 중소기업이 2.7%, 사회적기업이 1.5%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의 변화 추세는 당기순이익의 변화 추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1), 한국은행(2022).

<표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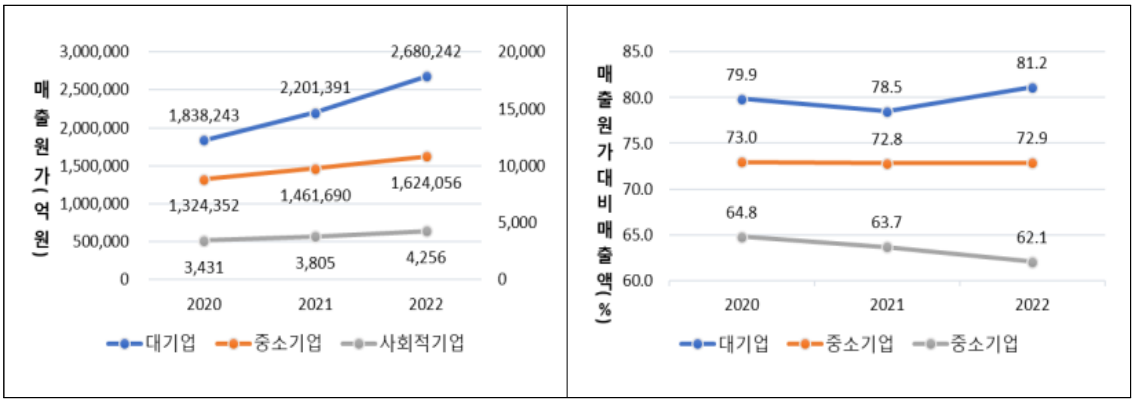
규모	당기순이익(백만 원)			매출액 순이익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대기업	68,159,756	173,506,730	134,212,941	3.0	6.2	4.1
중소기업	47,100,769	67,161,826	60,650,882	2.6	3.4	2.7
사회적기업	139,739	78,310	104,254	2.6	1.3	1.5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의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매출원가의 변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매출원가는 대기업이 2,680,242억 원, 중소기업이 1,624,056억 원, 사회적기업이 4,256억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업의 매출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은 대기업이 81.2%, 중소기업이 72.9%, 사회적기업이 62.1%로 나타났다.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의 변화 추세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021년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교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1), 한국은행(2022).

<표 부2-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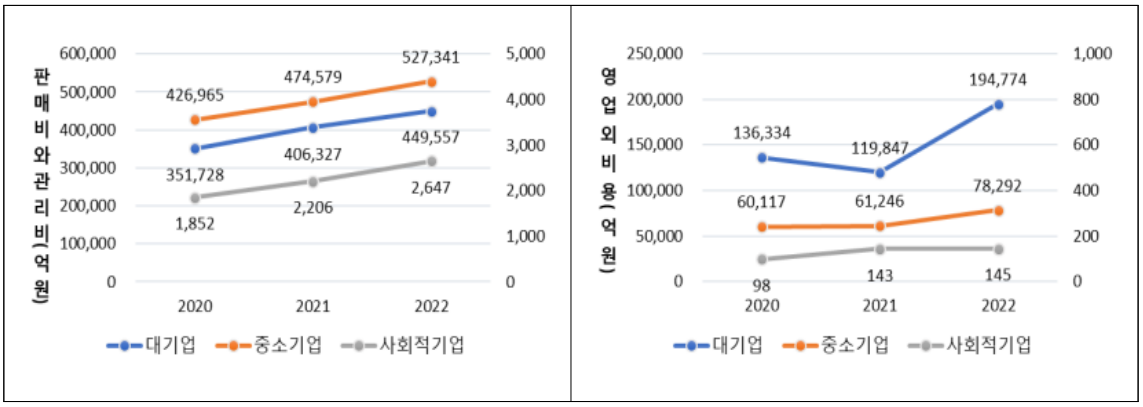
규모	매출원가(백만 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대기업	1,838,243,188	2,201,390,608	2,680,242,443	79.9	78.5	81.2
중소기업	1,324,352,014	1,461,689,759	1,624,055,966	73.0	72.8	72.9
사회적기업	3,431,401	3,805,041	4,255,622	64.8	63.7	62.1

6. 비용구조: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 판매비와 관리비의 변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판매비와 관리비는 대기업이 449,557억 원, 중소기업이 527,341억 원, 사회적기업이 2,647억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외비용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영업외비용의 변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영업외비용은 대기업이 194,774억 원, 중소기업이 78,292억 원, 사회적기업이 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외비용 변화 추세를 보면 대기업은 2021년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8]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비교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11,147개소, 중소기업 847,419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1), 한국은행(2022).

<표 부2-8>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비교

규모	판매비와 관리비(백만 원)			영업외비용(백만 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대기업	351,727,884	406,326,717	449,556,895	136,333,641	119,846,628	194,773,895
중소기업	426,965,488	474,579,218	527,340,989	60,117,457	61,245,900	78,292,220
사회적기업	1,852,056	2,206,015	2,646,559	98,013	143,130	144,654

제3절 기업규모별 경제적성과 비교

1.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일반기업과 유사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를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소상공인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규모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기업규모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분류

정부 정책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기업 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규모의 목적은 소상공인은 경영 안정화, 소기업은 기업 성장, 중기업은 경영 고도화, 중견 및 대기업은 사업화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별 매출 및 업종이 매우 다양하며, 기업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도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기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 기업분류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부3-1> 2022년 기업분류 기준표

번호	업종분류		중소기업기준 (매출액)	소기업기준 (매출액)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코드	업종명			
1	C10	식료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	C11	음료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3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4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5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표 부3-1>의 계속

6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7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8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9	C24	1차 금속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2	C28	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3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5	C32	가구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6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5명 미만
17	E36	수도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5명 미만
18	A	농업,임업 및 어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명 미만
19	B	광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0	C12	담배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1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2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3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4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5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7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8	C3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9	F	건설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30	H	운수 및 창고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31	K	금융 및 보험업	4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명 미만
32	G	도매 및 소매업	1,0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5명 미만
33	J	정보통신업	8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5명 미만
34	E(E36 제외)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8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5	L	부동산업	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6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7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9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10명 미만
40	I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1	P	교육 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3	S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4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자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개정 2018.3.27.)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2)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현황

기업규모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규모를 파악하였다. <표 부3-2>에서 정리하였듯이,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은 2020년 2,777개 기업 중 2,712개(977%), 2021년 3,215개 기업 중 3,063개(95.36%), 2022년 3,534개 기업 중 3,408개(96.4%)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최소 95% 이상의 기업의 현황이 파악되었다.

<표 부3-2> 3개년(2020~2022)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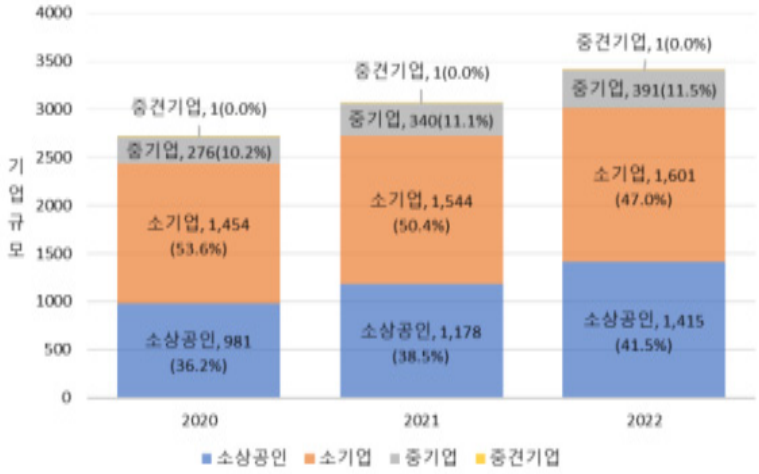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연도	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제출 기업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기업 수	제출 비율	N	%	N	%	N	%	N	%	N	%
2020	2,777	97.7	2,712	100.0	981	36.2	1,454	53.6	276	10.2	1	0.0
2021	3,215	95.3	3,063	100.0	1,178	38.5	1,544	50.4	340	11.1	1	0.0
2022	3,534	96.4	3,408	100.0	1,415	41.5	1,601	47.0	391	11.5	1	0.0

먼저 최근 3개년(2020~2022) 간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을 [그림 부3-2]에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기업이 2020년 1,454개(53.6%), 2021년 1,544개(50.4%), 2022년 1,601개(4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소상공인의 비중이 2020년 981개(36.2%), 2021년 1,178개(38.5%), 2022년 1,415(41.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표 부3-3>에서 분석한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최근 3년 동안 인증을 많이 받은 업종들은 제조업(2,695개소), 교육 서비스업(1,055개소), 도매 및 소매업(951개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4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3개년 평균 매출과 인증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매출 규모가 상위권인 제조업보다 매출 규모가 최하위권인 교육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증가와 소기업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림 부3-1] 3개년(2020~2022)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표 부3-3> 3개년(2020~2022)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천 원, 개소, %)

구분		매출	개소				
		평균 (20~22)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20~22)
합계		1,973,642	2,712	3,063	3,408	9,183	12.1
1	농업, 임업 및 어업	808,053	80	93	114	287	19.4
2	광업	359,952	0	1	0	1	-
3	제조업	2,485,246	804	911	980	2,695	10.4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550,961	4	6	8	18	41.4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071,094	68	70	74	212	4.3
6	건설업	1,355,316	138	153	167	458	10.0
7	도매 및 소매업	5,256,072	282	309	360	951	13.0
8	운수 및 창고업	3,429,315	16	19	20	55	11.8
9	숙박 및 음식점업	723,493	89	105	114	308	13.2
10	정보통신업	903,450	106	118	135	359	12.9
11	금융 및 보험업	949,000	1	1	1	3	0.0
12	부동산업	1,508,954	10	12	12	34	9.5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88,297	61	75	85	221	18.0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66,839	250	262	294	806	8.4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0,843	0	2	0	2	-
16	교육 서비스업	552,350	300	352	403	1,055	15.9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35,154	211	234	256	701	10.1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8,418	248	285	316	849	12.9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3,373	44	55	69	168	25.2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0	0	0	0	-
21	국제 및 외국기관	-	0	0	0	0	-

<표 부3-4> 2022년 시도 및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N	%	N	%	N	%	N	%	N	%
합계		3,408	100	1,415	41.5	1,601	47.0	391	11.5	1	0.0
1	서울	576	100	220	38.2	270	46.9	85	14.8	1	0.2
2	부산	157	100	60	38.2	88	56.1	9	5.7	0	0.0
3	대구	128	100	53	41.4	67	52.3	8	6.3	0	0.0
4	인천	199	100	84	42.2	95	47.7	20	10.1	0	0.0
5	광주	140	100	60	42.9	69	49.3	11	7.9	0	0.0
6	대전	110	100	45	40.9	54	49.1	11	10.0	0	0.0
7	울산	113	100	50	44.2	51	45.1	12	10.6	0	0.0
8	세종	26	100	7	26.9	15	57.7	4	15.4	0	0.0
9	경기	606	100	209	34.5	285	47.0	112	18.5	0	0.0
10	강원	191	100	97	50.8	82	42.9	12	6.3	0	0.0
11	충북	140	100	63	45.0	61	43.6	16	11.4	0	0.0
12	충남	139	100	64	46.0	61	43.9	14	10.1	0	0.0
13	전북	195	100	79	40.5	96	49.2	20	10.3	0	0.0
14	전남	191	100	105	55.0	75	39.3	11	5.8	0	0.0
15	경북	234	100	91	38.9	125	53.4	18	7.7	0	0.0
16	경남	180	100	94	52.2	66	36.7	20	11.1	0	0.0
17	제주	83	100	34	41.0	41	49.4	8	9.6	0	0.0

2. 기업규모별 경제적성과 비교

1)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비교 자료 구축

본 연구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고자 기업규모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분류하여 일반기업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견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에서는 1개 기업으로 일반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움에 따라 제외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간 비교를 위해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의 조사항목을 검토한 결과 총 5개의 항목이 비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조사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와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조사하고 있어 이를 추가 비교하였다. 항목별 세부 산출 방식은 <표 부3-5>에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중소기업에서는 조사한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10개 업종이 공통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 업종*에 대한 7개 지표의 현황자료를 재구축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10개 업종: ① 교육 서비스업,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⑧ 정보통신업, ⑨ 제조업, ⑩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참고로 본 연구를 진행한 시점에서는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실태조사는 모두 기업의 2021년 재무제표 조사 결과만 공개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사회적기업도 2021년에 제출된 재무제표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부3-5>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현황 조사 항목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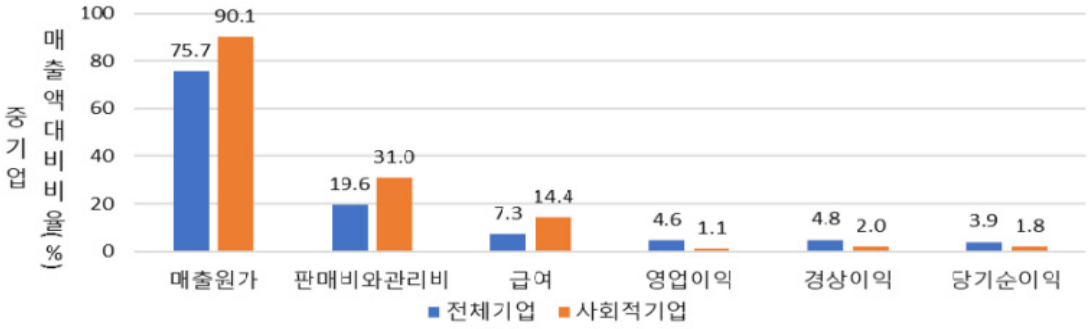
번호	항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2021)	소상공인실태조사 (2021)	중소기업실태조사 (2021)
1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2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3	판매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4	급여	인력비용+임원급여 +직원급여+제수당 +상여금+성과급 +잡급(일용급여)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제외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제외
5	영업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영업비용	영업손익
6	경상이익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	세전계속사업손익
7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당기순손익

주 :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급여총액 조사 시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조사하여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급여 계산 시에도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자료 :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1), 소상공인실태조사(2021), 중소기업실태조사(2021)

2) 기업규모별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비교

먼저 일반기업 내 중기업과 사회적기업 내 중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3-2]와 같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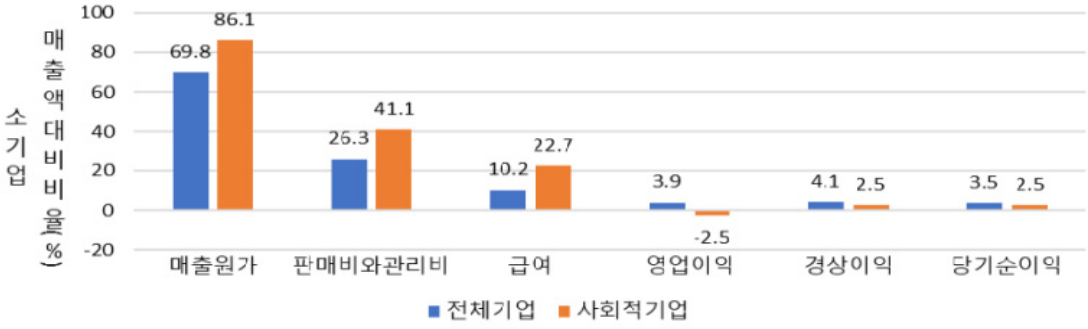
[그림 부3-2] 2021년 일반기업 중기업 및 사회적기업 중기업 비교



주1 : 중소기업실태조사(2021): 중기업 75,803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1): 사회적기업 181~183개
주2 : 사회적기업의 해당금액이 없는 기업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10개 업종 기업만 도출하여 비교분석함

다음으로 일반기업 내 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내 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3-3]과 같다. 중기업의 비교 결과와 같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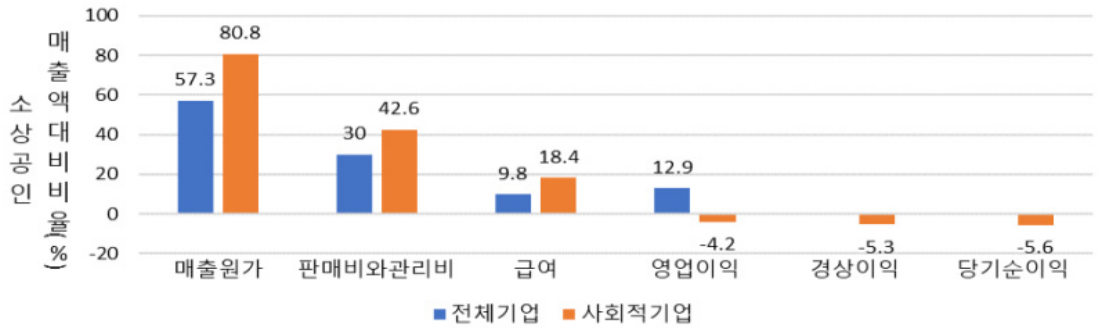
[그림 부3-3] 2021년 일반기업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소기업 비교



주1 : 중소기업실태조사(2021): 소기업 629,057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1): 사회적기업 935~1310개
주2 : 사회적기업의 해당금액이 없는 기업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10개 업종 기업만 도출하여 비교분석함

끝으로 일반기업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내 소상공인의 매출액 대비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3-4]와 같다. 앞선 비교 결과와 같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은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특성상 자료 확보의 한계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부3-4] 2021년 일반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비교



주1 : 소상공인실태조사(2021): 소상공인 3,668,226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1): 사회적기업 745~982개
주2 : 사회적기업의 해당금액이 없는 기업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10개 업종 기업만 도출하여 비교분석함

기업규모별로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한눈에 정리하면 <표 부3-6>과 같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사회적기업의 급여 평균값 및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이 일반기업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중기업에서는 평균 346,325천 원(7.1%), 소기업에서는 평균 157,541천 원(12.6%), 소상공인에서는 평균 61,143천 원(8.6%)으로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이익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일반기업의 평균값과 비율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중기업에서는 평균 -501,921천 원(-3.6%), 소기업에서는 평균 -94,387천 원(-6.4%), 소상공인에서는 평균 -46,608천 원(-17.0%)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영업이익은 낮지만, 매출액 대비 급여 등 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성과 부문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부3-6>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간 기업규모별 재무제표 비교(2021)

(단위 : 개소, 천원, %)

구분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기업수	평균	비중	기업수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중기업	매출액	75,803	12,856,029		183	8,907,410		-3,948,618	
	판매비와관리비	75,803	2,524,361	19.6	183	2,761,808	31.0	237,447	11.4
	급여	75,803	934,231	7.3	181	1,280,556	14.4	346,325	7.1
	매출원가	75,803	9,735,434	75.7	138	8,024,537	90.1	-1,710,897	14.4
	영업이익	75,803	596,234	4.6	183	94,312	1.1	-501,921	-3.6
	경상이익	75,803	619,629	4.8	181	174,160	2.0	-445,469	-2.9
	당기순이익	75,803	503,776	3.9	181	156,775	1.8	-347,001	-2.2
소기업	매출액	629,057	1,531,874		1,310	1,379,035		-152,839	
	판매비와관리비	629,057	402,953	26.3	1,310	566,554	41.1	163,602	14.8
	급여	629,057	155,706	10.2	1,298	313,247	22.7	157,541	12.6
	매출원가	629,057	1,069,424	69.8	935	1,187,225	86.1	117,802	16.3
	영업이익	629,057	59,497	3.9	1,310	-34,890	-2.5	-94,387	-6.4
	경상이익	629,057	62,516	4.1	1,307	34,989	2.5	-27,526	-1.5
	당기순이익	629,057	53,318	3.5	1,307	34,727	2.5	-18,591	-1.0
소상공인	매출액	3,668,226	216,946		979	448,409		231,464	
	판매비와관리비	3,668,226	65,097	30.0	982	191,032	42.6	125,935	12.6
	급여	3,668,226	21,159	9.8	953	82,302	18.4	61,143	8.6
	매출원가	3,668,226	124,267	57.3	745	362,111	80.8	237,844	23.5
	영업이익	3,668,226	27,879	12.9	981	-18,729	-4.2	-46,608	-17.0
	경상이익				979	-23,794	-5.3	-	-5.3
	당기순이익				979	-25,270	-5.6	-	-5.6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1a), 202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2021b), 행정구역(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고용노동부(2023).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23~‘27) 발표”

관계부처 합동(202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윤지성・이재호・한송연・송민주・전혜원(2021),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윤지성・송민주・이선웅(2022),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1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2019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2), “2021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a), “2023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b),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한국은행(2022a), 2021년 기업경영분석_책자형 통계편.

한국은행(2022b), 2021년 기업경영분석_업종별 작성대상 업체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2022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발 행 인: 정현곤
발 행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대표전화: 031-697-7700
팩　　스: 031-697-7889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044-866-5577)

ISSN: 2799-8061

9 772799 806002 45
ISSN 2799-8061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